

Ellen G. White Estate

사도행적



ELLEN G. WHITE

사도행적

Ellen G. White

**Copyright © 2021
Ellen G. White Estate, Inc.**

Information about this Book

Overview

This eBook is provided by the [Ellen G. White Estate](#). It is included in the larger free [Online Books](#) collection on the Ellen G. White Estate Web site.

About the Author

Ellen G. White (1827-1915) is considered the most widely translated American author, her works having been published in more than 160 languages. She wrote more than 100,000 pages on a wide variety of spiritual and practical topics. Guided by the Holy Spirit, she exalted Jesus and pointed to the Scriptures as the basis of one's faith.

Further Links

[A Brief Biography of Ellen G. White](#)
[About the Ellen G. White Estate](#)

End User License Agreement

The viewing, printing or downloading of this book grants you only a limited,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cense for use solely by you for your own personal use. This license does not permit republication, distribution, assignment, sublicense, sale,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or other use. Any unauthorized use of this book terminates the license granted hereby. (See [EGW Writings End User License Agreement](#).)

Further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author, publishers, or how you can support this service, please contact the Ellen G. White Estate

at mail@whiteestate.org. We are thankful for your interest and feedback and wish you God's blessing as you read.

Contents

Information about this Book	i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vi
2장 열두 제자의 훈련	xi
3장 대사명	xvi
4장 오순절	xxiii
5장 성령의 선물	xxxi
6장 성전문에서	xxxviii
7장 위선에 대한 경고	xlvii
8장 산헤드린 앞에서	lii
9장 일곱 집사	lix
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lxv
11장 복음이 사마리아에	lxi
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	lxxv
13장 준비의 시기	lxxxiii
14장 진리의 탐구자	lxxxviii
15장 옥에서 놓임	xcvi
16장 복음 기별이 안디옥에	civ
17장 복음의 사자들	cxi
18장 이교도 가운데서 전파함	cxviii
19장 유대인과 이방인	cxxv
20장 십자가를 높임	cxxxiv
21장 지경을 넘어서	cxli
22장 데살로니가	cxlvii
23장 베뢰아와 아덴	cliv
24장 고린도	clxii
2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clxx
26장 고린도에서의 아볼로	clxxix
27장 에베소	clxxxvii
28장 수고와 시련의 시대	cxciv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	cxcviii
30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	ccv
31장 기별에 유의함	ccxiv
32장 너그러운 교회	ccxxii
33장 곤란 중에서 수고함	ccxxx

34장 헌신한 목사.....	ccxxxix
35장 구원이 유대인에게	ccxlviii
36장 갈라디아에서의 배도	cclv
37장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cclix
38장 옥에 갇힌 바울	cclxvi
39장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cclxxix
40장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	cclxxxv
41장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cclxxxviii
42장 항해와 파선.....	ccxcii
43장 로마에서	ccxcvii
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	cccvi
45장 로마에서 편지함	cccxi
46장 자유인이 됨.....	cccxxiii
47장 마지막으로 체포됨	cccxxvi
48장 네로 앞에 선 바울	cccxxviii
49장 바울의 최후의 편지.....	cccxxxii
50장 사형 선고를 받음	cccxl
51장 충성스러운 부목사	cccliii
52장 끝까지 확고부동함	cccliii
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	ccclix
54장 충실한 증인.....	ccclxiv
55장 은혜로 변화됨	ccclxxii
56장 밧모 섬	ccclxxix
57장 계시	ccclxxxv
58장 승리한 교회.....	ccxcv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寶庫)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엡 3:10, 새번역)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7).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나의 말이 나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겔 34:26, 29~31).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사 43:10~12, 42:6, 7).

[11]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

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 49:8~16).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그분이 목적하신 바는 모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

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에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막 4:30)라고 물으셨다. 그분은 세상 나라들을 비유로 들 수 없으셨다.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분은 아셨다. 세상 나라들은 물리적 힘의 우월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세상의 무기와 탄압 도구가 제거된다. 이 나라는 인류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13]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겔 47:8~12).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潮水)가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롬 1:21)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앞에 높이 들릴 것이었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 제도의 기초이셨다. 모든 표상과 상징들의 체계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예언이었고 구속의 약속들이 묶여져 있는 표상이었다. [14]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았다. 그들은 이방인의 행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가하신 제재를 그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15]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의식 존중주의의 틀에 매여 있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였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이뇨”(렘 2:2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호 10:1).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걸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3~7).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겔 34:4).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2장 열두 제자의 훈련

[17]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산헤드린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재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써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삼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顯現)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에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1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일보로서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 이 안수에 관하여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

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막 3:13, 14)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당신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은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셨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쳐 나갈 것과 그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이 종말까지 세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것을 아셨다.

[19]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 구약에 열두 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열두 사도는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배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잠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엡 2:14, 3:6)는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 진리는 그분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보상하실 때와, 또한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 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행 17:26, 27)시다는 그 진리의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 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1, 23). 그분은 그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분은 창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아셨고,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과 언젠가 피뎀은 깃발이 제자들 위에 의기양양하게 휘날릴 것을 아셨다.

[21]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개인적 지도 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과 헤어져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는 것처럼 그들을 남겨 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을 메시아라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

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22] 그분은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요 14:1~4).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대들을 위하여 일해 왔다.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냄은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요 15:26, 27)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23]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고별 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신 고통과 아직 견디셔야 할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사람들의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실패도 낙담도 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하였다. 비록 그들의 길이 일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방해받을지라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과업을 완수하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일꾼들을 불러내셨다. 그분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10, 11, 20~23) 라고 말씀하셨다.

[24]

3장 대사명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거의 낙담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주님은 거절과 정죄를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조롱하는 말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고 선언하였다. 제자들의 희망의 태양은 져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제자들은 종종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눅 24:21)는 말을 반복하였다.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눅 23:31)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후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들의 불신의 결과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슬픔으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삼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그들의 믿음은 사단이 그들의 앞길에 던진 그늘 저편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만사가 모호하고 신비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구주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문들을 굳게 닫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이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사십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의 초림, 유대

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본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언하신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5~48). [27]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딤후 1:12)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 즉 그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구속의 경륜의 오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였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에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알고 있다. 비록 내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 내게 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행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28]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현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29]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다.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 6:12)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

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 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 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다.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다. 그분이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앗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시는 중이었다. 무한한 권위를 부여 받으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 20).

[30]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당신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지상의 군주가 되어 통치하도록 임명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고 예수께 물었을 때에 그분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대답하셨다(행 1:6, 7). 그분이 그들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그 이상의 장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구주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 24:49)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5, 8).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31]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최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심치 않는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었다.

[32]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도시는 오랫동안 인류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무대가 되어 왔었다. 바로 그 곳에서 인성을 쓰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담화도 하셨지만, 하늘이 얼마나 가까이 내려왔는지를 분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곳에서 그분은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루살렘 성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은밀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의 요청을 받아야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는 명백히 증거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장렬한 사건들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있는 때에, 제자들은 전도를 통해 가장 깊은 감명을 끼치게 될 것이었다.

그의 지상 봉사 기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하는 이 사업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셨다. 그분은 열둘과 또 후에 칠십인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각자 봉사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므로 그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 멈추시자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다. 마치 당신의

보호에 대한 보증인 것처럼 손을 펴 축복하시고는 그들 가운데서 천천히 승천하셨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하늘로 올리우)”(눅 24:51)셨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 위를 주시하고 있을 때, 기뻐하는 하늘 천사들의 대열이 그분을 영접하였다. 이 천사들은 예수를 하늘 궁정으로 호위하면서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시 68:32~34)라고 의기양양하게 노래하였다.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0, 11)고 말하였다. [33]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상징적인 예식에서 대제사장이 그의 정장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짐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을 옷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친 후 정장을 다시 입고 기다리는 회중에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막 9:3) 아주 흰옷을 입으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를 호위할 것이다.

이리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요 14:3)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 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34]

들어 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제자들이 주께서 돌아오시리라는 소망으로 매우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쳤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 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눅 24:53)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늘에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 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 24).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는 힘 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

이 과거의 삼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 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37]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 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 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38]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 보고 찬탄해마지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7, 13)고 말씀하셨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쁨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에 제자들에게 내려 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에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은 여러 언어를 배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유대인들 중의 많

[40] 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진행 중인 종교 축제에 참석하였다. 알려진 모든 언어가 모인 사람들에게 의해 다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다. 성령께서는 그들 홀로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에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그들의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였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몹시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감히 그들의 악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지만 지금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 그의 종들이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그분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제자들의 그 신기한 능력을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로 작정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절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참석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더 총명한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정확함을 증거하였다.

[41]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운동은 요엘의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였음을 보여 주었는데, 그 예언 속에는 특별한 사업에 사람들을 적합하게 할 그러한 능력이 예고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힘있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청중들의 편견이 매우 커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이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 [42] 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 광경은 흥미진진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각처로부터 오는 백성들을 보라. 그들은 밀려들어 성전에 운집하였다. 그 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여전히 악의로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손은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흘러진 피로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근자에 잔인한 손에 의해 굴욕과 조롱과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가 생명의 왕이시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더러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를

[43]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할 때 그들의 음성은 폭도들과 뒤섞였었다. 예수와 바라바가 법정에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부르짖었었다(마 27:17; 요 18:40).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었다(요 19:6; 마 27:24, 25).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다. 백성들은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다. “저희가...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였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신앙에 성실한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 설교자의 말에 함께 하였던 능력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셨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44]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권고를 바란다면, 그리고 저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관원들이 먼저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권고하였다. 그 힘있는 사람들은 비록 경건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받기 위해 즐겨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러한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제시되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장막은 이제 폐지되어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유전과 미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대신 구주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이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오순절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말은 이적과 기사로 입증되었다. 유대교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랐으며 또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고 계셨다.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과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45]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행 2:46, 4:32)였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행 4:13)을 알았다.

[46]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제 열려졌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야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늘에 대해 그들이 진 큰 빛과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달았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신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저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계셨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 17).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 있는 사업을 행하시러 오실 그 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48]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 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슥 12:8)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행 4:33)였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

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49]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 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둑거둑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50]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

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51]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임으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주시는 때이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

나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요 15:26, 16:13).

[52]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성령의 직무는 다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의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6:14, 14:26).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러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53]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 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요 16:13)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풀 지움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 방

법이 지극히 명료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느 9:20)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시대 동안 왈덴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54]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 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

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 [55]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 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심은 늦은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슥 10:1; 율 2:23).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되신 분과 살아 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 [56]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현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써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인류의 만형으로서 그분은, 고통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분 자신의 모본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6장 성전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성령 강림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기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사십 세의 한 앓은뱅이를 보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8]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 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는 동냥을 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붙잡히 여겼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앓은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밋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앓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사십년 동안 가망 없던 그 앓은뱅이가 이제 사지가 온전케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 하고 있었다.

[59]

제자들이 백성들의 놀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사도는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였다.

사도들이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기는 하였으나, 청중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의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는 성령께서 그들로 회개하고 개심하도록 호소하시고 계심을 선언하였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확실히 말하였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60]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듣자 그들은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열에 섰다. 구주께서 뿌리신 씨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 로마의 파수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원근에 퍼뜨렸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가 살해한 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불쾌해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몹시 흥분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교리에 위협을 느꼈고, 따라서 그들의 명성도 위태로움을 느꼈다.

[61]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만일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감화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전 책임자가 여러 사두개인들의 도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넣었는데 이는 그 날이 그들을 심문하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때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긴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을 짓눌러 버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였고, 이 무서운 책망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의 초청을 주셨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한 유대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

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시종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모든 반항 행위는 제사장들로 동일한 길을 가도록 하는 부가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더 굳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굴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 [62] 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악한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학대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의 종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기별에 대한 계속적인 반항 행위로 그들의 반역적인 적개심은 격렬해졌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다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얇은뎅이를 고친 다음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심문을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심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심문받으실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63]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우쭐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 만만하던 베드로는 심문받기 위해 산헤드린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개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

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무기력한 사람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피고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들은 물었다.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64] 이 용기에 찬 항변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산헤드린 앞에 나오면 두려움과 혼란으로 맥이 다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증인들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선언할 때에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베드로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상적인 말을 사용하였다. 선지자들은 그 버림받은 돌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언젠가 친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마 21:42~44).

사도들의 대담한 말을 들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며 “제자들

이... 오직 예수”(마 17:8)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 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랐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안위를 말씀하시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기별을 전하시는 중에 하늘로 들리워 가셨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을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이 당신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당신의 상하신 손과 발을 당신의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의 기념으로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비난을 굳세게 참을 수 있게 하였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65]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변호하기 위하여 한 말에 당신의 인을 치셨다. 그 제자 곁에는 힘 있는 증인으로서 놀라운 기적으로 고침 받은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력한 앓은뱅이였지만 이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된 이 사람의 출현으로 베드로의 말에는 그 증언의 무게가 더해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진술을 논박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자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인 나사로의 부활로 제사장들은 예수의 세계와 그분의 놀라운 사업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감화는 신속히 소멸

[66]

되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지금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거나,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유력한 증거가 있었다. 벌써 앓은뱅이를 고친 것과 사도들의 전도는 예루살렘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난처함을 감추고자 사도들을 내보내고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가 고침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임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 이적을 거짓으로 돌리고자 소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이 백주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행하여졌고, 이미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를 지게 되어 그들 자신에게 수치가 따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일하기를 계속한다면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다시 산헤드린 앞에 소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67]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거룩한 소명에 확고부동하게 충실한 것을 처벌하고 싶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그러므로 위협과 금지 명령을 반복하고는 사도들을 석방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악의를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나타내었던 그 잔인성을 반복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형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사도들이 석방되자마자 그들은 다른 남은 제자들을 찾아 심문의 결과를 알려 주었다. 신자들의 기쁨은 매우 컸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

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봉사 사업을 위해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당하셨던 것과 같은 단호한 반대를 만날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연합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동안 응답이 이르렀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흔들렸고, 그들은 새롭게 성령으로 채움을 받았다. 그들은 용기가 충만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다.

[68]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언하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을 고수하던 자들이 고수하려고 투쟁하던 그 원칙과 동일하다. 1529년 독일의 제후들이 스파이얼스 의회에 모였을 때에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개혁 교리들을 더 이상 보급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제출되었다. 마치 세상의 희망이 꺾이는 것처럼 보였다. 제후들이 이 칙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군중들에게서 복음의 빛이 거두어져야만 할 것인가?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은 함께 모여 만장일치로 “이 칙령을 거절하자. 양심문제에 있어서 다수는 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D’Aubigne : 종교 개혁사 제13권, 제5장).

오늘날도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복음 교회의 창시자들과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하여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 위탁되었다. 이 큰 선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

[69]

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란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로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증거를 더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 초대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끊어졌으므로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영감의 기록은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은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들 중에 돈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를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하였다. 집이나 토지를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그러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포한 진리는 듣는 이들에게 유력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신자들이 나타낸 박애 정신의 모범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으니,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그들의 경험은 초대 교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소위 제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졌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행 4:31)였을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 곳에 있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72]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감화를 잃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 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 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 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아나니아가 헌물을 가져왔을 때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73]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더냐고 베드로는 물었다. 아나니아에게 공공 자산으로 그의 소유를 강제로 희생하도록 한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여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을 속이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던 것이다.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함을 아셨다. 교인의 수효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이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그들로 허위와 위선을 꾀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한 경고였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실례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였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74]

하나님께서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십일조는 주의 사업에 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즉 십일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신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사람에게 한 그런 류의 약속들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구속력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얼마나 더 구속력이 더하겠는가? 양심으로 결정한 약속이 사람들의 계약서보다 구속력이 덜하겠는가?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 있게 마음을 비추게 되면 평소의 이기심은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 때 한 약속을 사단의 방해
 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75] 구속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사단은 그들이 약속한 서약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모으거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암시
 한다.

사람들을 재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
 이 잘 자라게 하신다.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그의 다함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온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십일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 헌
 금, 종교자유 헌금, 숙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십일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
 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
 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많은 사
 람들이 자기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
 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
 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
 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
 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드리는 적은 금액을 더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위증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76] 는 오늘날도 모든 위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신다
 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
 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
 서는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신다. 거짓된 입술은 그분
 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
 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계 21:27)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
 서 무책임한 필치나 불확실한 이해가 있게 하지 말라. 이 일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

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과선을 의미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엡 6:14)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싼값에 파는 것이다. 그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른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이룰 수 없을 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인고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확신을 갖지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의 교회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악한 것은 아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8장 산헤드린 앞에서

세상에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

가장 뿌리 깊은 편견이 있던 곳, 그리고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혼돈된 견해들이 성행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사명,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을 제시하기를 계속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분명하고 담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놀라움으로 들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이 확실히 제자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의 사업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랐으므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효가 증가하였다.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리마다 백성들은 병자들을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흑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랐다.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데려왔다. 군중들이 그들 주위에 모였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더 칭송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만일 사도들이 부활한 구주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며, 머지않아 사두개 교파는 멸절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였다. 한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의 가르침이 유대 의식들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희생 제사를 무효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분노하였다.

지금까지 이 새로운 가르침을 억누르고자 한 모든 노력이 실패했으나,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양편이 제자들의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었다. 격분한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크게 실패하였다. 주께서 진리의 수탁인 [79] 인으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불충실함이 입증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행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눈이 어두워진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의 소중히 여기는 교리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소위 의분이라는 것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었다. 그들은 저희가 스스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했을 가능성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그들 중에 더러는 어부들에 지나지 않는 이 선생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친 교리에 반대되는 사상을 제시하느냐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제지하려고 결심한 그들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제자들은 그러한 처사에 겁을 내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꺾박하였은즉 너희도 꺾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요 15:20, 21; 16:2, 4).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밤에 주의 천사가 [80] 옥문들을 열고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다. 이 명령은 유대 통치자들의 명령과는 정반대였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관원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그리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

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순종하였다. “저희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그 천사가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을 헤치고 그들을 직접 인도해 내었고, 방해받던 그 사업을 다시 계속하라고 명령했는지를 말하였을 때 형제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제자들에게 폭동죄를 씌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해하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공모하였다고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폭도들을 자극시켜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예수를 취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권위자들의 전제적 통치에 싫증을 내고서 무엇인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만일, 이 불만 세력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진리를 받아들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전국민의 분노가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해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81]

그들은 죄수들을 그들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옥문들이 든든히 잠겨 있고 그 앞에 간수도 있었으나 죄수들이 행방불명이라는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다.

곧 깜짝 놀랄 만한 기별이 왔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말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비록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심문과 형벌을 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막 13:9)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또한 당신의 임재의 보증을 주셨다. 이제 그들이 전과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의 할바 일이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본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복음 전파 시대에 어느 사람 못지않은 영웅적인 것이다.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듯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

[82]

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을 옥에서 구원하여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명한 것은 하늘에서 온 천사였다.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에 영감의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였으며, 피고들은 고소자들이 되어 공회원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 문책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선언하였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더 이상 심문도 하지 않고 로마 관리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죄수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범한 그들인지라 이제는 그 손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피를 흘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러나 공회 가운데는 제자들이 한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판이 좋은 바리새인이요,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가말리엘이었다. 그의 명석한 지성은 제사장들이 음모하는 난폭한 시도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참석자들에게 연설을 하기 전에, 그는 죄수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서슴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83]

그 때에 그는 지극히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좃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

나 백성을 피어 좃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좃던 사람이 다 흠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제사장들은 이 견해가 타당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가말리엘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편견과 증오는 거의 제지할 수가 없었다. 제자들을 때린 후에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그들은 마지못하여 제자들을 석방하였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84]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고 말씀하셨다.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써 평화를 얻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화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분열의 원인이 되셨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타올라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꺾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요 16:33; 눅 21:12, 16)리라.

이 예언은 현저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그리고 이 예언은

또다시 현저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인데, 이는 육신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반목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의 원칙들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을 일으킨 그 같은 증오심과 제자들을 박해한 그 같은 증오심이 여전히 불순종의 자손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중세 암흑시대에 남녀들을 감옥으로, 유배지로 보내고, 종교 재판의 끔찍한 고문을 생각해 내며, 성 바돌로매 제일의 대학살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스미드필드의 화형주에 불을 붙였던 그 동일한 정신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심령 속에 악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협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서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요 16:33; 사 41:10).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시 125:1, 2; 72:14).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

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로
다”(슥 9:15, 16).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초대 교회는 여러 나라, 여러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행 2:5)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흔히 헬라파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과 팔레스틴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었다.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불평의 원인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도움을 받는 데서 빠졌다는 주장이었다.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불만에 대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원수로 하여금 신자들 중에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활동 경험에서 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수고한 사도들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복음의 사신들에게 위임된 그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교인수의 증가는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한 사람이나 심지어 한 무리의 사람들일지라도 교회의 미래의 번영을 위태롭게 함 없이 홀로 그 짐을 계속 감당할 수는

[89] 없었다. 교회 초창기에 몇몇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그 책임을 앞으로는 분담할 필요가 있었다. 사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졌던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킴으로써 교회 안의 복음 질서를 완성시키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였다.

사도들은 신자들의 집회를 소집하여 성령의 지도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도들은 교회를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나누어 주는 일과 그와 유사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복음 전파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권고를 따라 선택된 일곱 사람을 집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기도와 안수으로써 엄숙하게 구별하였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일곱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에 큰 축복임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고려하였고, 그들의 빈틈없는 경영과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90]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 선한 결과로 인해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일곱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그 형제들을 안수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사업에 종사하였다.

초대 교회에게 끊임없는 사업 확장, 곧 정직한 영혼들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곳마다 빛과 축복의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 위탁되었다. 복음 선포는 그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어야 하였으므로 십자가의 사신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결속으로 연합하여, 세상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

들의 중대한 사명을 성취시킬 것을 바랄 수 없었다. 그들은 거룩한 지도자께서 하늘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고 선언하시지 않았던가?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지 않았던가?(요 17:11, 14, 23, 21) 그들의 영적인 생애와 능력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신 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제자들은 그에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바랄 수 있었다. 이러한 거룩한 대리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세상 앞에 연합 전선을 펴서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그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아 6:10)있게 나아갈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었다.

[91]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개심자들을 얻게 될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였다. 교회의 전체적인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하였고, 도리어 현명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벧전 5:2, 3)어야 하였으며,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이 사람들은 의의 편에서 연합하여 그들의 직분을 받아 이를 확고부동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온 양떼에게 연합의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었다.

세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구성했던 초대 교회 후기 역사에서 교회의 조직은 한층 더 완전하게 되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을 받았다. 각자는 그에게 맡겨진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였다. 어떤 이

[92]

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고전 12:28) 등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층의 일꾼들은 조화를 이루어 일해야 하였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4~12).

[93]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엄숙하다. 신정 시대에 모세가 오래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자 애쓰고 있을 때에 이드로가 그 책임을 현명하게 분담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하였다. 이드로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충고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일하도록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들은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라야 하였다. 그들은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해야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헌신한 조력자들이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사소한 문제들에 모세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여 그를 피곤케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에서 지도적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힘을 특별한 지혜와 도량을 요구하는 보다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취급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가 아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안하였다.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 계획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출 18:19~26).

후에 지도적인 책임을 분담할 칠십 인의 장로를 선택할 때에도 모세는 위엄과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을 그의 조력자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안수식에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준 권고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현명한 처리자가 되기에 합당한 몇 가지 자격이 나타나 있다. 모세는 너희가 “너희가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 말 것이”(신 1:16, 17)라고 말하였다.

다윗왕은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울 때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엄숙한 명령을 내렸다. 노령의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와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대상 28:1, 8)고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하였다.

다윗은 솔로몬이 지도적인 책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명령을 주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시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대상 28:9, 10).

모세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중의 처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동일한 경건과 공의의 원칙은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역시 따라야

[94]

[95]

할 원칙이었다.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일을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들은 교회에서 지도적 책임의 위치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1:7-9)는 권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6] 초대 그리스도교회가 유지했던 질서로 그들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잘 훈련된 군대로서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었다. 신자들의 무리는 비록 넓은 영토에 흩어져 있었을지라도 모두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일치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후에 안디옥과 다른 곳에서처럼 지방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신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을 때에는 이 문제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게 하지 말고, 여러 지방교회에서 온 대표자들과 지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전체 신자들의 총회에 그 문제를 회부해야 하였다. 이리하여 외딴곳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노력은 모든 지방에서의 합의된 행동에 의하여 저지되었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던 원수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 당신께서 그 위에 승인하신다는 인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일곱 집사 중의 으뜸 되는 스테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테반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관습과 예절에 익숙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테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스테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힘 있게 옹호하고 그의 적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 21:14, 15)는 약속이 스테반에게 성취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테반의 설교에 함께 한 능력을 보고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여러 번 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들이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저희 민족의 관습에 따라 죄수들을 심문하고, 정죄하고, 처벌한 소송을 눈감아 주도록 하였다. 스테반의 원수들은 아무 위험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 결과를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스테반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앞으로 데려다가 심문했다.

이 죄수의 논증을 반박할 목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소환되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테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테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테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

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99]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테반의 명석하고 침착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까닭에,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고자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만족시키는 한편, 공포심을 조장하여 다른 사람들로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증인들을 고용하여 그가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참람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 증인들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주장하였다.

스데반이 참람되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편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스데반은 그가 고소당한 진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맑고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고, 그 음성은 온 공회당에 울려 퍼졌다. 회중의 넋을 잃게 하는 말로 스테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날날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유대인의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한 모세의 예언을 반복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15). 그는 하나님과 유대 신앙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밝히는 한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던 율법이 이스라엘을 이상승배에서 구원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모든 유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 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하면서 솔로몬과 이사야의 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100] 스테반이 여기까지 말하자 백성들 중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그리스도를 예언들과 연결시키고 성전에 대하여 말하자

그 제사장은 공포에 질린 채하며 그의 예복을 찢었다. 그 행위는 스테반에게 곧 그의 음성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고, 그가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창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돌연히 그는 설교를 결론지었다.

갑자기 그가 계속하던 역사의 연속적 설명을 중단하고, 격분하고 있는 재판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테반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불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스테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부르짖었다. [101]

그가 그의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할 때에 박해자들은 더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테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큰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미친 듯이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쳤)”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무런 합법적인 선고가 스테반에게 내리지 않았으나 로마 당국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스테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

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102]

스데반의 심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 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그의 열성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로마 당국자들은 그 잔인한 사업을 막으려는 아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비밀리에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 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산헤드린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잔인한 박해자는 그가 지금 혈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11장 복음이 사마리아에

[103]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매우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인한 행위에 대한 그의 열심에 관하여 후에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다는 사울 자신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죽임을 당한 자가 스데반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행 26:9~11).

이 위기의 때에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언하러 나아왔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업을 목격했을 때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굳어졌었다. 니고데모는 너무 교만하여 그 갈릴리 선생을 동정하면서도 공공연히는 인정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회견하고자 했었다. 예수께서는 이 회견에서 그에게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으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주저했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삼년 동안 표면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승인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제사장들의 음모에 대해서는 거둡 반대했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산에서의 밤중의 회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요 3:14)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다.

[104]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

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아왔다. 부자요 명예가 있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그 어두운 시간에 절실하게 필요되었다. 그들은 운명하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재산과 영향력으로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에서 크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105]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아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 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곳에서의 말썽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썽을 전”하였다.

[106] 구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마 28:19)이라는 사명을 맡기신 자들 중에는 천한 계급의 사람들, 곧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웠고,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한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의 지상 봉사기간에 구주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야 하였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

든 사람에게 떼어 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기별은 열매를 맺었다. 그 여인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은 그 여인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듣고,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더 듣기를 갈망하여 그분께 더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이틀 동안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요 4:29, 41)았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에,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신들을 환영하였고, 유대인 개심자들은 한때 철천지원수였던 사람들 중에서 귀중한 수확을 하였다.

[107]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리하여 용기를 얻은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었다. 이제 사도들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였다.

빌립이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하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일어나 갔”다. 그는 부르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개심하면 그는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감화를 끼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108]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예언을 그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이 가까이 나아가 내시에게 묻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라고 물었다. 그때에 빌립은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그에게 공개하였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 말씀의 설명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흥미로 벅찼고, 그 제자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주어진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높은 지위를 복음을 거절하는 핑계로 삼지 아니하였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였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109]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

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 나라 경계선에 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최초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임무를 각 시대의 신자들이 분담하여 왔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세상에 나누어 줄 거룩한 진리를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극적인 선교사들로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바치며 또한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하였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무아적인 수고는 우리에게 한 실물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어, 세속적인 야망을 끊고 선을 행하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들은 동정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죄인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일은 힘든 것이긴 하지만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성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구주께로 나오는 것을 볼 터인데, 이는 거룩한 사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함께한 능력을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은 안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계 22:17). 온 교회가 이 초청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초청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에 “오라”고 외치면서 그 기별을 널리 전해야 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받은 겸손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께서는 안수함으로 성직에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실 것이다.

[111] 구원의 기별을 들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리고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부언하신다(마 20:6, 7).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가? 저희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기 때문인가? 헌신한 무수한 평신도들이 설교단 밖에서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라.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

[112]

복음 선포에 따른 성공으로 매우 자극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특출한 이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다.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빌 3:5, 6). 랍비들은 사울을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이 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회의 회원으로 등용되어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울은 스테반을 심문하고 판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스테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험잡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였다.

[113]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하여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거룩한 남녀들을 재판정으로 끌어다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선고한 사울의 활동으로, 새로이 조직된 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도망하게 되었다.

이 꺾박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행 8:4)하였다. 그들이 간 도시들 가운데 다메섹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앙으로 많은 개심자를 얻었다.

[114]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방심치 않는 노력과 가혹한 박해를 함으로 이단이 진압되기를 바랐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단호한 조치를 다른 곳에서도 도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다메섹에서 하기를 바랐던 그 특별한 일을, 사울이 돕겠다고 제안하였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와같이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행 26:12)은 다소 사람 사울은 건장한 힘과 활력, 그리고 그릇된 열심으로 불타 올라 그의 삶의 전 방향을 전환시킨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잊지 못할 여행길에 올랐다.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정오”에 피곤한 여행자들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로 물을 댄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전원과 과실이 풍부한 과수원들이 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황량한 황무지를 오랫동안 여행한 후라 이와 같은 광경은 참으로 상쾌하였다. 사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아래에 있는 비옥한 평야와 아름다운 성읍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홀연히”, 너무나 현란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행 26:13)었다고 그는 후일에 말하였다. 눈이 멀어 당황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다.

그 빛이 계속 그들을 둘러 비추고 있는 동안, 사울이 들으니 한 “소리”가 들려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꺾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꺾박하는 예수라”(행 26:14, 15).

[115]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찢었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

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묘히 날조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에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친히 나타나서 계셨으므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그 시간, 사울의 마음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깨달았다. 그는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의 거절, 그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울의 마음에는 순교할 때의 스테반의 설교가 힘있게 떠올랐으며, 순교자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하였을 때, 순교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을 깨달았다(행 7:56, 55). 제사장들은 이 말을 신성 모독이라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사울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116]

이 모든 것은 박해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았다. 거룩한 계시가 임한 그 순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증거한 스테반이 그의 동의로 희생되었고, 그 후 그로 인해 다른 많은 훌륭한 예수의 제자들이 잔인한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였다.

구주께서는 스테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행 6:15)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테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 준 깨끗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기만당한 광신자들이라는 자기의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문제를 해결하였었다.

[117]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주여 뉘시오니이까”라는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을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사울은 그들을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구주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한 것이었다.

사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울이 “떨고 놀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영광이 물러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는 자신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육신의 눈에 너무나 강렬하였으므로 그 빛이 사라지자 밤의 캄캄함이 그의 시야를 덮었다. 그는 이처럼 자기의 눈이 먼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믿었다. 깊은 흑암 중에 그가 이리저리 더듬거렸으므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의 일행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118]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사울은 대제사장이 그에게 준 신임장으로 인하여 자족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새로운 신앙이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대 종교의 이익을 도모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그의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자 결심하였고, 그의 앞에 있으리라고 예상한 그 경험을 열렬한 기대감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일이 일어났는가? 눈멀고 무력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 임할지를 몰라 번민하던 사울은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 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삼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둬들여 괴로운 심정으로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그는 스테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휘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에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검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신자들은 그가 그들을 더욱 쉽사리 속이기 위하여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멀리하여 동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사울은 신자들 [119]을 박해하는 데 연합하려고 계획했던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호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써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피며 내려왔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

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120]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사울의 회심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기이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친 줄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모든 유대 희생제도의 창시자이심을 확신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형은 원형과 만났으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달았다.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길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121] 사울의 마음의 어둠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참회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안수하신 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홀로 기도와 탄원을 계속하는 동안, 주께서는 계시 중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사자는 말하기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

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하였다.

아나니아는 천사의 말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혹독히 핍박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까닭이었다. 아나니아는 감히 다음과 같이 간언(諫言)하였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 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나 그 명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근래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던 그 사람을 찾아내어 고통하는 참회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22]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권위를 시인 하셨고 사울을 지상에서 당신이 임명하신 대리자들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 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시므로 그들이 근심할 때에 마음 아파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무지한 죄과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의 빛인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

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샘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바울은 침례를 받은 후 금식을 끝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즉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 4, 8)고 부언하였다. 예언을 인용한 그의 논증은 매우 확정적이었으므로 그의 노력에는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응수할 수가 없었다.

바울의 회심 소식은 유대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신자들을 붙잡아 퍽박하고자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행 26:12) 다메섹으로 여행하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미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의 손을 굳게 하며, 그가 한때 것처럼 심히 반대하였던 신앙으로 계속 새로운 개심자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바울은 전에 열렬한 유대교의 옹호자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지칠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졌었다. 용기, 자립적인 정신, 끈기, 재능과 훈련 등 그는 거의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있었다. 그의 논리에는 비범한 명석함이 있었고 그의 풍자는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특출하게 전도유망한 이 젊은이가 전에 박해하던 사람들과 연합할 뿐 아니라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았다.

싸움에서 전사한 장군은 아군에는 손실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원수가 힘을 더 얻지는 않는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이 반대 세력에 가담할 때에는 그의 봉사를 잃을 뿐 아니라 그가 가담한 상대방에는 결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주께서는 다소 사람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쉽게 죽이실 수가 있었다. 그리하였다면 박해의 세력은 크게 그 힘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사울의 생명을 아끼셨을 뿐 아니

라 회개시키심으로 그 용사를 적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기셨다. 단호한 목적과 불요불굴의 용기를 가진 웅변가요 통렬한 비평가인 바울은 초대 교회가 필요로 한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125]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듣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바울은 그의 개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이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바울이 놀란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행 26:20)고 계속 호소할 때에 그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그의 기별을 받기 거절하였으므로 곧 이어 그의 개심에 대한 그들의 놀람은 저희가 예수에게 나타내었던 것과 같은 격렬한 증오로 변하였다.

반대가 너무 맹렬히 일어났으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하였으므로 그는 “아라비아로”(갈 1:17) 가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126]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가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예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이 계발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

목하”(욥 22:21)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바울이 아나니아와 만났을 때에 받은 엄숙한 명령은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바울이 “형제 사울아...보”라는 말에 응답하여 처음으로 이 현신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아나니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4~16).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일치하였으니 그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사로잡으셔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행 26:16~18).

바울이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고전 1:1)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 그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사업의 중대함은 그로 하여금 성경을 많이 연구하여 복음을 전파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듣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전 1:17, 2:4, 5) 함이었다.

바울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전 1:26~29)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의 빛에서 세상의 지혜

[127]

를 바라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전 2:2)다.

[128] 바울은 그의 봉사를 마칠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러 해 후에도 여전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들어보라.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빌 3:8~10)함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갈 1:17)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다.” 그의 논증의 지혜를 당할 수 없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성문들을 부지런히 경비하였다. 이런 위기를 당하여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행 9:25)렸다.

[129] 다메섹에서 도망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가 개심한 지 약 3년이 지난 때였다. 바울이 이 방문을 하게 된 주목적은 후에 그가 선언한 바와 같이 “게바를 심방하려” 함이었다(갈 1:18). 한때 그가 “박해자 사울”로 잘 알려졌던 성읍에도 착하여 바울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매우 거만한 바리새인이요, 것처럼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그가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바울을 그들의 동료의 한 사람으로 영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의 진실됨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았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는 이제 과거의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 있었으며, 그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주의 초림으로 성취된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하고자 갈망하였다. 바울은 그가 한때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자기처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그는 유

대 형제들의 정신을 오관하여 그들이 신속히 개종하리라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는 쓰라린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다. 비록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으나 유대교의 머리되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가 그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근심 중에 것처럼 거짓되이 비난을 받은 스테반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테반이 생명을 바친 그 진리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번민한 바울은 후에 그가 스스로 증거한 바와 같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행 22:18)고 말하였다. [130]

바울은 그가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였다. 도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이었다. 남아 있는 일이 비록 그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리함으로 그는 완고한 유대인들 중의 어떤 이들에게 복음 기별의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종이 불필요하게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사자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행 22:19~21)고 대답하였다.

이 이상에 대하여 알게 된 형제들은 그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도망시켰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떠남으로 한동안 유대인들의 난폭한 반대가 중단되었으므로 교회는 평안한 시기를 가지게 되어 많은 신자들이 증가하였다.

14장 진리의 탐구자

사도 베드로는 목회를 하는 동안 룻다에 있는 신도들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베드로는 애니아의 병을 고쳤는데, 그는 8년 동안 중풍 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었다. 사도가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다.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룻다에서 가까운 읍바에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 없이 봉사하였다. 숨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녀가 “그 때에 병들어 죽”었다. 읍바의 교회는 그들의 손실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자 교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였다. 도르가가 살아 온 봉사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슬퍼하면서 생기 없는 시체 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숨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베드로가 아직 율바에 있는 동안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부자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그의 선행으로 인해 원근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의 감화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 영감의 기록은 고넬료를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133]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제단을 쌓았다.

고넬료는 비록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알지는 못하였다. 그가 유대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으므로 랍비들은 그를 부정한 이방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그를 아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고넬료도 역시 아셨으므로 하늘에서 직접 그에게 사자를 보내셨다.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백부장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나, 그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는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하고 말하였다. 천사는 대답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율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묵고 있던 집의 사람의 직업까지 지칭한 이 분명한 명령은 하늘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의 역사와 사업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노동자의 경험과 일을 보좌에 앉은 왕의 그것처럼 익히 아신다.

[134]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시몬을 청하라.”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업과 당신의 조직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증거를 주셨다. 고넬료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사가 할 사명이 아니었다. 백부장 자신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한 사람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에 관하여 말해 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려고 인성을 취하셨다.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구주가 필요하였다.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을 알리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고넬료는 기쁨으로 그 환상에 순종하였다. 천사가 떠난 후에 백부장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읍바로 보내”었다.

[135] 천사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읍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갔다. 그 때에 베드로는 그가 유숙하는 집의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배고파한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읍바 성과 인근의 촌락을 바라보면서 동포의 구원을 갈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환상중에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

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그 환상으로 베드로는 책망과 교훈을 받았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의 축복의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무너진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여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한 까닭이었다. 이제 주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가 세계적인 것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136]

많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흥미 있게 듣고 있었으며,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되었지만, 고넬료의 개종은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업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때 때가 이르렀다.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이제 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이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였다.

유대인의 교육으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 깊이 뿌리박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시는 일에 주께서는 얼마나 주의 깊게 일하셨던가! 보자기와 그 속에 든 물건들의 환상으로 주께서는 사도의 마음에서 이 편견을 없이하여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귀중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교도들도 복음의 축복과 특권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읍바에 도착하여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 문앞에서 있었다. 그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하셨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괴로운 명령이었으므로 그는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주저하였지만 감히 불순종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하였다.

[137]

그들은 베드로에게 기묘한 심부름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였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에 순종하여 사도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형제 여섯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그가 이방인을 방문하는 동안에 말하고 행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였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의 가르침을 그처럼 직접적으로 깨뜨린 데 대하여 설명하도록 소환받으리라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보통 방문객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다. 자녀들이 저희 부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왕이나 고관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동방의 풍속이었지만 고넬료는, 자기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되어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베드로는 놀라서 백부장을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138] 백부장은 그의 사자들이 심부름을 간 동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들로 그와 함께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곳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자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를 발견하였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에게 먼저 유대인의 규례에 대하여 언급하여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 고넬료는 자기의 경험과 천사의 말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사도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즉 그분의 생애, 이적, 배반당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요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베드로가 참석 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이 전에 보았던 계시의 뜻을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돌연, 이 설교는 성령의 강림으로 중단되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139]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이와 같이 복음이 낮선 자들이요 외국인이었던 이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개는 거두어들여야 할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 가족으로부터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가 그 이교의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주께서 당신의 사업에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매는 인연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데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들은 저희의 책임과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상류 계급에 복음을 전할 열렬하고 겸손한 일꾼들을 부르신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적, 곧 지금으로서는 분별되지 않는 이적이 작용해야 한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 용감하고 충실하게 그들의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성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개심시키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140]

진리로 거듭난 그들은 빛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리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버려진 계급의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시간과 재정이 주의 사업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새로운 능력과 힘이 교회에 더하여질 것이다.

고넬료가 그가 받은 모든 교훈에 순종하여 생애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들을 지도하셨다. 하늘 궁정에서 한 사자가 로마 관리와 베드로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고넬료는 그를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다.

[141]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많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다. 어느 곳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충실한 빛의 증거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나아가도록 강권할 것이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모인 무리에게 전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놀랐으며 몹시 분노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제넘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 노선이 베드로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후에 베드로를 만나자 신랄하게 비난하기를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레와 무할레의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 사신들이 온 것, 그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 백부장과 회견 내용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 회견에서 그 백부장은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라는 지시가 그에게 주어졌던 이상에 대하여 그에게 말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설명을 들은 형제들은 잠잠하였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의 직접적인 성취였으므로 그들의 편견과 독선이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달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였다.

[142]

그리하여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때에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유대 정부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신하 헤롯 아그립바의 치하에 있었다. 헤롯은 또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었다. 그는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열심이었다. 유대인의 호의를 얻어 자기의 직책과 명예를 확고히 하려는 열망으로 헤롯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옥함으로써 유대인의 갈망을 이루어 주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마치 이전에 헤롯이 선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집행인을 보내어 검으로 그를 죽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투옥하였다.

이 잔인한 행위들이 자행된 것은 유월절 기간이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경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큰 열심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살해함으로써 바로 그 율법의 원칙을 범하고 있었다.

야고보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큰 슬픔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다. 베드로가 또다시 투옥되자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의 행위는 그 일을 은밀히 하지 말고 대중 앞에서 행하였더라면 신자들과 그들을 동정하는 이들을 더욱 철저히 공포에 질리게 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불평이 있기는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래서 헤롯은 그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더욱 만족시키고자 베드로를 감금하여 두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도를 끌어내어 처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가 처형되기 위하여 끌려나오는 광경이 군중의 동정심을 유발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베드로가 빈번히 백성들로 예수의 생애와 품성을 연구하도록 이끈 그 능력 있는 호소, 즉 그들의

모든 논법으로도 논박할 수 없었던 호소를 하지 않을까 또한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옹호하는 베드로의 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굳세게 하였으므로, 관원들은 예배하러 그 도성에 온 군중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옹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왕의 손에서 그를 놓아주라는 요구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드로의 처형이 유월절 이후로 연기 되는 동안, 교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할지도 모를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145]

한편 각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된 성전을 찾았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장엄하게 보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셨다.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 23:38).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나가시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베드로의 처형일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를 지키고 있었다.

사도들의 이전의 탈출을 기억한 헤롯은 이번에는 이중의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탈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교대로 주야 감시하는 16명의 군사들의 감시 아래 두었다. 감방 안에서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 놓여 있었으며 양팔에는 사슬을 채웠는데 각 사슬은 병사의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병사들 몰래 움직일 수 없었다. 옥문들은 든든히 잠겼으며, 각 문에는 강한 파수병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146]

베드로는 바위를 깎아 만든 감방 속에 갇혀 있었으며 그 문들은 굳게 잠겨 있었다. 보초병들은 죄수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움의 모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문빔장들과 로마의 과수병들은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할 뿐이었다. 헤롯은 전능자를 대적하였으므로 철저히 패배할 것이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귀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강한 문들이 인간의 도움 없이 열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천사가 지나가자 문들은 그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닫힌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다.

[147] 천사를 두른 빛이 감방에 가득하였으나 사도는 깨지 아니한다. 그는 천사의 손이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급히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깨어 그의 방이 하늘의 빛으로 밝아졌음과 그의 앞에 큰 영광의 천사가 서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일어나 그의 손을 들자 쇠사슬이 손목에서 풀어진 것을 희미하게 느낀다.

또다시 하늘로부터 온 사자의 음성이 들린다.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 그러자 베드로는 방문객을 이상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꿈을 꾸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무의식적으로 순종한다. 다시 한 번 천사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명령한다. 천사가 문을 향하여 걸어가자 항상 수다스럽던 베드로도 지금은 놀라 잠잠히 따라간다. 그들이 과수병을 지나 든든히 잠긴 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가는 곧 다시 닫혔으나, 안팎의 간수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한다.

역시 안팎으로 과수를 보고 있는 둘째 문에 이른다. 이것도 돌쩌귀가 삐걱거리거나 철빔장이 덜컹거리지 않고 첫째 문처럼 열린다. 그들은 지나오고 문은 다시 소리 없이 닫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셋째 문을 통과하고, 밖의 길에 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말소리도 없고, 발자국 소리도 없다.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천사가 앞서 미끄러지듯이 걸어가고, 어리둥절한 채로 여전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믿는 베드로는 그의 구원자를 따른다. 이와 같이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고 홀연히 사라진다.

하늘의 빛은 사라지고 베드로는 자신이 짙은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느꼈으나,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하게 되자 어둠은 점

점 줄어드는 듯하였으며 찬 밤공기가 그의 이마를 스치고 있는 고요한 거리에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그 성읍의 잘 아는 거리에 와 있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곳은 그가 자주 지나다녔던 곳이고 또한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통과하기로 예정된 곳임을 알았다.

[148]

베드로는 몇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돌이켜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신과 겹옷을 벗어 놓고 두 병사 사이에 끼여서 깊이 잠들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는 자기의 몸을 살펴보고 자신이 온전히 옷을 입고 띠를 띤 것을 발견하였다. 잔인한 쇠사슬로 묶여 부어올랐던 양 손목은 수갑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졌다. 베드로는 그의 놓임이 기만이나 꿈이나 환상이 아니요 복된 사실임을 깨달았다. 다음날 그는 죽임을 당할 예정이었으나, 보라, 한 천사가 감옥과 죽음에서 그를 구원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하였다.

사도는 즉시 형제들이 모인 집으로 갔으며 그 때에 그들은 거기서 그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였다.

[149]

아침에 큰 백성의 무리가 그 사도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자 모였다. 헤롯은 베드로를 부르러 관원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들은 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동정자들을 위협하고 왕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병기와 과수병들을 크게 과시하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되어 있었다.

문 앞에서 지키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알고는 공포에 싸였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이 관할하던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고, 이것 때문에 그

들은 특별히 경계를 해왔다. 관원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을 때에, 병사들은 여전히 옥문 앞에 있었고, 빗장들은 여전히 굳게 질러 있었으며, 쇠사슬은 여전히 두 병사의 팔목에 채워져 있었으나, 죄수는 사라지고 없었다.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보고가 헤롯에게 전달되자 그는 안달하고 분노하였다. 간수들에게 불충실하다는 책임을 물어 그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베드로의 구출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으나, 그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150] 베드로가 옥에서 놓인 지 오래지 아니하여, 헤롯은 가이사랴로 갔다. 거기 있는 동안 그는 큰 축제를 베풀어 백성들을 감복시켜 갈채를 받고자 계획하였다. 이 잔치에는 각 지방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큰 잔치와 주연이 있었다.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헤롯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웅변적인 연설을 하였다. 은·금으로 번쩍거리고 빛나는 주름들이 햇빛을 반사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부시게 하는 예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화려하였다. 용모의 위엄과 잘 선 별된 말의 힘은 큰 능력으로 회중을 압도하였다. 이미 연회와 음주로 감각이 비뚤어진 그들은 헤롯의 장식에 현혹되고 그의 태도와 웅변에 매혹되어 열광적으로 그에게 아첨하면서 어떤 인간도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거나 그처럼 놀라운 웅변을 토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간 그를 한 통치자로 존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금 들리고 있는 한 비루한 죄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음성 가운데 더러는 몇 년 전에 분노의 부르짖음으로 예수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던 사람들의 음성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초라하고 자주 다니심으로 인해 더럽혀진 의복 속에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초라한 외모 아래 감추어진 생명과 영광의 주를 분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은,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의복으로 부패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린 거만한 왕은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였다.

[151] 헤롯은 그에게 돌리는 찬양과 경의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자

신이 받을 가치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는 마치 그의 묵인 것처럼 백성들의 이상숭배를 받아들였다. 그가 “이것은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충만하였고, 만족어린 자만의 빛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그에게 임하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것처럼 파랗게 질렸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기공에서는 큰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잠시 고통과 공포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그의 창백하고 검푸른 얼굴을 공포에 질린 친구들에게 돌리면서, 공허하고 절망적인 음조로 너희가 신으로 높였던 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헤롯은 가장 괴로운 고뇌로 고통하면서 환락과 허식의 무대로부터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많은 무리의 찬양과 예배를 거만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더 강하신 통치자의 수중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일, 무죄한 야고보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일,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계획, 그리고 원한과 헛된 분노로 감옥의 파수병들에게 부당한 보복을 행한 것 등을 기억하고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박해자인 자기를 처치하고 계심을 느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번민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헤롯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불의의 잔을 채워 여호와의 공의의 분노를 자신에게 초래케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 궁정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되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처서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악한 왕을 처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가한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으로 마음과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다.

거룩한 공의에 대한 이 실례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감옥과 죽음에서 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반면 박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

이 각 지방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도록 인도한 빌립의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153]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준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귀로써만 하늘 음성의 조화를 들을 수 있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과멸”(시 91:6)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신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다. 거듭 거듭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게 하여 승리자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흰옷과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가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154]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한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군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어둠을 흠어 버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우리의 모든 성공적인 노력이 하늘에 보고된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들은 외관적으로는 불리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수행하고 있는 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주의 깃발 주위에 집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나아가면 새로운 정복 사업은 성취되고, 새로운 명예를 얻게 된다. 모든 하늘 천사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일꾼들의 군대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 찬양대는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찬양을 돌린다.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히 1:14)신 바 된다.

16장 복음 기별이 안디옥에

제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후에, 복음 기별은 팔레스틴 지역 너머 지방들에 신속히 전파되었고 작은 예배소들이 많이 생겨 중요한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다. 어떤 제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그들의 많은 거류민들을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된 지역 가운데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있었다. 사람이 붐비는 그 도시는 광범위한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다양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다. 그 외에도 안디옥은 건강에 좋은 위치와 아름다운 주위 환경, 그리고 부와 교양과 세련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었다. 사도시대에 있어서 안디옥은 사치와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열렬한 노력은 결실을 얻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새로운 일터에 도착하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취된 사업을 보았으며,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다.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효가 많이 증가하였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는데, 그는 얼마 전 예루살렘을 떠나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파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고하고 있었다(갈 1:23, 21).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목회 사업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람이 봄비는 도시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일터를 발견하였다. 바울의 학식과 지혜와 열심은 그 문화도시의 주민들과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감화를 끼쳤으므로, 그는 바나바가 필요로 한 바로 그 조력자임이 증명되었다. 일 년간 이 두 제자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데 연합하여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속주,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는 지식을 전달하였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157]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심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름은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후에 야고보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약 2:6, 7)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름이었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하였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6, 14).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 [158] 즐겨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빌 2:13) 일하기 원하심을 깨달았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물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저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겸손

히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태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그들의 천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교역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명한 개인적인 봉사로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경의 진리의 살아 있는 대표자들이 필요하다. 대도시들을 경고하는 일은 안수 목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받지 않은 도시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문서 전도자, 성경 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은 많다. 현재의 기회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159]

바나바와 연합하여 수고한 안디옥에서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주께서 이방 세계를 위한 특별한 사업에 그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굳게 하였다. 바울의 개심시에, 주께서는 그가 이방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행 26:18)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고 말했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후에 자기의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행 22:21)고 명한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신과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하시고 황홀해진 그의 시야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다. 그에게 “영세 전부터 감취”(롬 16:25)였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엡 1:9)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 3:5~11).

[160]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신자들과 함께 머물던 그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크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 복음 사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위탁하시려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편의를 필요로 하였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이교도 세계의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써 엄숙히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충만한 성직의 권위를 받아서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침례식을 거행하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은 힘차게 수행되어야 하였고, 그 결과로서 교회는 영혼의 큰 수확으로 힘을 얻어야 하였다. 이 사업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

[161]

은 사도들은 의심과 편견과 질투를 받게 될 것이었다. 매우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중간에 막힌 담을”(엡 2:14) 헐어 버리는 것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이단이란 비난을 받아, 복음 교역자들로서의 그들의 권위는 열광적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보시고 그들의 사업이 도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공적인 봉사 사업을 위하여 구별하라고 계시로 교회에 지시하셨다. 따라서 그들의 안수식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임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었다.

[162]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그들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안수 예식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은혜나 실제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해진 직무에 임명함을 인정하는 형식이요, 그 직무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교회의 인이 하나님의 사업에 찍혔다.

이 예식은 유대인에게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유대인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는 경건하게 그의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었다.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에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이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의 교회 목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의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은 그 행위로써 정해진 그 특별한 사업을 위해 헌신한 그 선택된 사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었다.

후에 손을 얹는 이 안수 예식은 크게 남용되어 마치 안수를 받는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즉시 임하여, 당장 그들이 목회 사업에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부당한 중요성을 그 행위에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로 어떠한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그들의 안수와 미래 사업에 끼친 관계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163]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정한 분야의 봉사에 구별하신 것과 관련된 여러 여건들은 주께서 그의 조직된 교회 안에서 임명된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 준다. 여러해 전에 구주께서 친히 바울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그에게 처음 계시하셨을 때,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 새로 조직된 교회의 교인들과 접촉하도록 인도되었다. 더욱이 그 곳 교회는 개심한 그 바리새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

다. 그런데 이제 그 때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더욱 온전히 수행해야 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다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하신 그릇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안수하는 일을 맡기셨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교회와 분리된 어떤 경험이나 반대되는 경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흑암 중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교회를 위한 그분의 뜻을 결코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종들로 자신을 더욱 적게 신뢰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곳에 두신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정신이 인간 도구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권고를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임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64]

자기 개인의 판단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지상의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고 확장하시는 빛의 통로인 그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된 노력이다.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과 관련된 일에 지도적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돕고 격려하며, 힘을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는 주의 사업을 하는 어떠한 일꾼도 그 방법들을 버리고 그의 빛은 다른 어떤 통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에게 기만당하여 쓰러지기 쉬운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모든 신자들이 유

지해야 할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도록 계획하셨다. 이리하여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기관들이 성령께 복종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되고 잘 지도된 수고를 하도록 연합하게 될 것이다.

[165] 바울은 공식적인 안수를 받은 것을 그의 평생의 사업의 새 룩고 중요한 신기원을 여는 표로 삼았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의 사도직의 시작을 기산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안디옥에서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도들은 한 중요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매년 절기 때에는, 모든 지방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이들 순례자 중에는 열렬하고 경건하며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나그네들로 붐비는 동안 사도들은 비록 저희가 그렇게 행하면 그들의 생명을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두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굴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노력에 인을 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개심하였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렸다.

이 사업에 종사한 뛰어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국에서 저희 동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명하셨음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충실하고 지혜롭게 수고하였고, 저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행 2:36) 하셨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벧후 1:19)으로 호소하였다.

17장 복음의 사자들

[166]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형제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들의 최초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다.

구브로는 스테반의 죽음에 뒤따른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곳들 중의 하나였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주 예수를 전파” (행 11:20)한 것도 구브로에서 간 것이었다. 바나바 자신도 “구브로에서 난”(행 4:36) 사람인데, 이제 그와 바울은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과 함께 이 섬 지방을 방문하였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다.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167]

살라미에 도착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함” 썼다.

사단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며, 이 흑암의 세력은 특히 신앙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강력하게 활동한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기별을 듣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총독은 그들이 전하러 온 기별을 듣고자 사도들을 불렀으나 박수 엘루마를 통하여

일하던 악의 군대는 열심히 악한 제안을 함으로 그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타락한 원수는 만일 개심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대열에 잡아 두고자 항상 노력한다. 그러나 충성된 복음 교역자는 원수의 손에 패배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가 모든 사단의 감화를 저항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68] 비록 사단에게 철저히 포위되어 있었으나,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원수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을 책망하였다.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니라.”

박수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부터 그의 눈을 감았으므로, 주께서는 의분으로서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한낮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처럼 소경이 되게 한 것은 그가 경고를 받아 회개하여 이처럼 크게 범죄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한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에게 이른 혼란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의 간교한 계책을 바꾸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가 눈먼 가운데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이 엘루마의 비난대로 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었다. 총독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169] 엘루마는 교육받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이상하게 사단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활한 원수를 만날 것이다. 사단이 영혼을 기만하는 데 성공적인 도구가 되도록 훈련시킨 자들은 때때로 유식한 자도 있겠지만 흔히는 무식한 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의 권세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사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사단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였으며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둘러 있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였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주리고, 추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에서였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70]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나의 위로”(골 4:11)라고 골로새인들에게 추천하였다. 바울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마가에 대하여 자기의 “일에 유익하”(딤후 4:11)다고 말하였다.

[171] 마가가 떠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라는 초청을 받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놀라운 설교가 뒤따랐다. 바울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께서 유대인을 다루신 방법의 역사를 말하고 또한 구주께서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심을 말하고는 담대히 선언하였다.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의 구주요 예언의 메시아”라고 전파하였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바울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

[172]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구주를 거절함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사도는 계속하여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기록하고 미뵈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

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제 익숙한 메시야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밝히 말하고서 바울은 회개와 그들의 구주 예수의 공로를 통한 죄 사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말에 함께하셨으므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한 사도의 호소, 그리고 그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봉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그의 선언은 약속된 메시야의 초림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설교자의 그 확신의 말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173]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가자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로 설교해 달라고 하였다”(영어성경). “폐회한 후에” 그날 그들이 들은 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관심으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음을 크게 기뻐하였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174]

복음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으므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여러 세기 전에 영감의 빛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묘사하였으나 이 예언의 말씀은 매우 희미하게 이해되어 왔다.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리고 계속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말하였다(호 1:10, 2:23).

구주께서는 친히 당신의 지상 봉사기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나아가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들은 경고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였다(마 28:19; 막 16:15).

[175]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밖에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도 수고하기를 쉬지 아니하였고, 어디서나 청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중심지들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힘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그들의 주된 노력을 이교도 지역에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쏟았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였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끈기 있는 봉사를 통하여, “전에 멀리 있던” “외인”과 “손”이었던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엡 2:12, 13, 19).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무시했던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였다. 계속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딤후전 6:15)로 높였고 신자들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골 2:7)라고 권고하였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확고한 기초가 되신다. 이 산들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세움을 입었다. 그것은 만민에게 충분한 만큼 넓고, 온 세계의 걱정과 근심을 지기에 충분할 만큼 튼튼하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었다. 그의 봉사 말년에 복음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굳게 선 이방 신도들의 무리에게 편지하면서 사도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엡 2:20)고 하였다.

[176]

복음 기별이 비시디아에 전파될 때에 안디옥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맹목적인 편견으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 내”었다.

사도들은 이러한 취급에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1, 12).

복음 기별이 계속 전파되었으므로, 사도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수고로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인들은 큰 축복을 얻었고, 그들이 잠시 그 사업을 홀로 감당하도록 맡긴 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18장 이교도 가운데서 전파함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들은 안디옥에서처럼 이곳에서도 동족의 회당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들이 수고한 다른 곳에서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까닭이었다. 반대와 시기와 편견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사업을 계속하였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마음을 열어 죄를 깨닫는 이들에게 힘 있는 감화를 끼쳤고, 복음으로 개종하는 이들이 증가하였다.

사도들이 전한 기별이 인기가 올라가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증오로 충만하여 그 즉시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을 중단시키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거짓되고 과장스럽게 보고를 함으로 당국자들로 온 성읍에 폭동의 선동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그들은 많은 무리가 사도들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은 은밀하고 위험한 음모라고 암시하였다.

이러한 비난의 결과로 제자들은 빈번히 당국자들에게 소환되었으나, 그들의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변론과 그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아주 침착하고 종합적인 진술로 당국자들은 감화를 받아 오히려 큰 호의를 갖게 되었다. 비록 행정 장관들이 거짓 진술로 인해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그들의 말을 듣자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정숙하게 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게 한다는 것과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그 성읍의 도덕과 질서가 향상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들이 당한 반대를 통하여 진리의 기별은 크게 대중성을 얻게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새로운 교사들의 사업을 좌절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그 새 신앙의 교인 수를 더 늘려 놓은 것을 보았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태가 그렇게 전개되는데 매우 분노하여, 폭력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무식하고 야비한 군중의 비열한 걱정을 자극시킴으로 폭동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제자들의 가르침의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거짓 비난으로 그들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행정 장관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폭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도로 쳐 그들의 수고를 끝내려고 결심하였다.

[179]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사도들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에 관하여 경고하고 불필요하게 폭도의 분노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당분간 신자들이 홀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맡기고 은밀히 이고니온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인 이별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돌아와서 시작한 그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하였다.

각 시대의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고의로 하늘의 빛을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참혹한 반대를 당하였다. 종종 허위 진술과 거짓으로 복음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들을 닫아 버림으로 승리를 얻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문들이 영원히 닫힐 수는 없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일을 다시 계속하려고 돌아올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힘 있게 일하셨다.

이고니온에서 박해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도들은 루가오니아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이 성읍들은 주로 이교도들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그들 중 더러는 즐겨 복음 기별을 듣고 받아들였다. 사도들은 유대인의 편견과 박해를 피해 이러한 곳들과 인근 지역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였다.

[180]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는 했으나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 많은 루스드라 주민들은 쓰스에게 봉헌한 신전에서 예배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읍에 나타나

루스드라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의 단순한 진리들을 설명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교리들을 쓰스를 예배하는 그들 자신의 미신적 신앙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사도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구주이신 그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곧 해와 달과 별들과 아름다운 계절의 순환질서, 눈 덮인 장엄한 산들, 높은 수목들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솜씨를 드러내는 또 다른 자연의 경이들에 주목을 끌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전능자의 업적을 통하여, 사도들은 이교도들의 마음을 크신 우주의 통치자를 묵상하도록 인도하였다.

창조주에 대한 이 기본 진리를 설명한 사도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인간 자녀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생애와 봉사, 그분께서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심, 심문받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 곳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일하심 등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181] 한번은 바울이 백성들에게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청중 가운데서 한 앓은뱅이를 보았는데 그는 바울을 주목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바울의 마음은 이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분별하였다.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인 청중 앞에서 그의 발로 일어서라고 그에게 명하였다. 지금까지 이 앓은뱅이는 앓은 자세밖에 취할 수 없었으나, 이제 그는 바울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여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일어섰다. 이와 같은 믿음의 노력에 능력이 임하였고, 이제까지 앓은뱅이였던 그는 “뛰어” 걸었다.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였다. 이 말은 때때로 신들이 세상을 방문한다는 그들의 유전과 일치하였다. 그의 덕망 있는 모습, 품위 있는 태도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온화함과 자비스러움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를 신들의 아비 “쓰스”라고 불렀다. 그들은 바울을 “허메”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열렬하고 활동적이며, 웅변적으

로 경고와 권고의 말을 하고, “그 중에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서 루스드라인들은 사도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쓰스 신당의 제사장을 설복하였다. 그래서 그는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물러가 쉬기를 구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준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온 큰 군중들의 음악 소리와 열광적인 외침을 주목하게 되었다.

[182]

사도들은 그 방문의 동기와 거기에 따른 흥분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다. 바울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능가하는 높고도 우렁찬 음성으로 그들로 주목하기를 요구하자 갑자기 그 소동이 멎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그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배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이신 참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려는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이교도들의 의도를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사람들은 진실로 신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고, 열성이 너무도 컸으므로, 그들은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을 “겨우... 말”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루스드라인들은 저희가 사도들이 행한 이적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전에 결코 걸을 수 없었던 앓은뱅이가 온전한 건강과 힘을 얻은 것을 보았다. 바울 편에서 많이 설득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크신 치료자이신 그분의 아들의 대표자로서의 그 자신과 바나바의 사명에 관하여 주의 깊이 설명한 후에야 백성들은 겨우 설득되어 그들의 목적을 포기하였다.

[183]

루스드라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갑자기 제지되었다. 그들은 루가오니아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의 사업이 성공한 것을 알자, 그들을 따라가 꺾박하려고 결심하였다. 루스드라에 도착하자 이 유대인들은 곧 저희 마음에 작용한 그같은 악독한 정신을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불어넣었다. 조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릇된 설명과 비방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실은 살인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며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특권을 사도들에게 거절당함으로 겪은 실망은 그들을 신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접근하던 열성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그들은 폭력으로 사도들을 공격하고자 계획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못하게 만들었고, 만일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준다면 그는 백성들을 현혹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84] 곧 복음의 원수들은 살인적인 음모를 진행시켰다. 악한 감화에 굴복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악마적인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무자비하게 돌로 쳤다. 사도는 자신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스테반의 순교와 그 때에 자기가 행했던 잔인한 행동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상처와 고통으로 기절하여 그는 땅에 엎드러졌으며, 격분한 폭도들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쳤다.

이 암흑 같은 시련의 시간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봉사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루스드라의 신도들은 충성되고 진실하게 남아 있었다. 원수들의 부당한 반대와 잔인한 박해는 오히려 이 헌신적인 형제들의 신앙을 굳게 할 따름이었고, 이제 그들은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바울 주위에 슬픔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 들고 발로 일어나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대단히 놀랐다. 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종의 회복은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개종에 하늘이 인을 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였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시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에,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바울이 돌에 맞은 다음날, 사도들은 더베로 떠났는데, 그곳에서의 그들의 수고는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 같이 저희가 근자에 일한 곳에서 잠시 홀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개종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만족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고, 이리하여 그들 자신은 비난과 반대에 노출되었다. 사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이미 이룬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185]

새로운 개종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한 요인으로서 사도들은 복음 질서라는 안전장치로 그들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신자들이 있는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의 모든 곳에 정식으로 교회들이 조직되었다. 각 교회는 직원들을 임명하였고, 신자들의 영적 복리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한 질서와 제도를 세웠다.

그 일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복음의 계획과 일치하였고 바울은 그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이 계획을 따르고자 주의하였다. 어느 곳이든 그의 수고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교회를 조직하였다. 신자들이 매우 적을 때에라도 이 일을 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서로 도와야 함을 배웠다.

[186]

바울은 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들에 대한 염려는 점점 증가하는 짐처럼 그의 마음을 차지했다. 무리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염려의 대상이었다. 바울은 보다 작은 교회들을 친절하게 돌보았는데, 이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진리 가운데 확고히 서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렬하고 무아적인 노력을 쏟도록 가

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특별히 돌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모든 선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영혼을 위해 자원하여 희생하시고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방심치 않고, 열심 있고 끈기 있게 개인적인 기호나 안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염원과 끊임없는 활동으로 진리의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림에 있어서 사도들은 복음에 확고히 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자 주의하였다. 이 열렬하고 거룩한 근심의 정신은 새로운 제자들의 마음에 복음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명을 끼쳤다.

[187] 디모데의 경우처럼 유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들은 주의 길을 충실하게 배웠으며,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 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훈련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한 현저한 성공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속히 끝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새로 조직한 교회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도들은 밤빌리아로 가서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앓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19장 유대인과 이방인

[188]

그들이 선교 사업을 시작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신자들을 모을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행 14:27)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크고 성장하는 교회였다. 이 교회는 선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리의 하나였다. 그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나온 많은 계층의 백성들로 구성되었다.

사도들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열렬한 노력으로 안디옥에 있는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연합시키고 있는 동안, 유대에서 온 어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 후에 교회 내에 광범위한 논쟁을 일으키고 이방인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어떤 문제를 도입하기에 성공하였다. 이 유대교 교사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의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짓 교리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그런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한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근자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견해에 찬성하였다.

[189]

유대인 개종자들은 대체적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빨리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수고한 결과로, 이방인 개종자의 수효가 유대인 개종자보다 훨씬 많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제한과 의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였던 유대인의 민족적 특수성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자랑하였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인의 예배 방법의 기틀을 분명히 해주신 이상, 그 세목 중에 어느 것이라도 바꾸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희생 제사는 그 안에서 표상과 실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에는 모세의 율법시대의 의식과 예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190] 바울은 그가 개심하기 전에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운”(빌 3:6)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심 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의 구주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얻게 되었고 또한 산 믿음과 죽은 형식주의와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대 의식과 예법은 새롭고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들이 예시하던 것은 성취되었고 복음 시대에 사는 이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인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지켰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할례 문제에 대한 고려는 많은 토의와 논쟁을 초래하였다. 마침내 교인들은 계속된 논의의 결과로 저희 중에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교회의 몇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다른 교회의 대표자들과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었다. 모든 논쟁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야 하였다. 그 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이 결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였다.

[191]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사도들은 저희가 지나가는 성읍들에 있는 신도들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통한 그들의 경험과 이방인들의 개종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은 총회를 위하여 모인 여러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봉사 사업에 수반된 성공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개심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초래된 혼란의 개요를 분명히 말하였다.

이 문제는 총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할례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주의 깊은 연구를 요하는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다. 한 가지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용

함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방인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백성들 중에 살고 있었다. 이 이교 예배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바친 제물로 크게 장사를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상숭배의 풍습에 동조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평판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또한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짐승을 식용으로 죽일 때에는 피를 반드시 쏟아야 한다는 특별한 주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기는 온전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도록 이 명령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된 것으로 여겼다. 피는 생명이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희생 제물로부터 흐르는 피를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채택한 그 관습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 때에 일어난 일들처럼,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서 먹으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크게 분노할 것이었다.

[192]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몹시 방탕하였으므로 마음에 개심하지 않은 어떤 이들이 그들의 악한 행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할 위험이 있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는 부도덕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할례와 의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들의 성실성과 헌신의 표시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심령의 진정한 개심이 없이 신앙을 받고 후에 부도덕과 부절제로 그 사업에 치욕을 가져올지도 모를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함된 여러 가지 주장들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이 의회 앞에 제시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 결정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번영이 달려 있고 만일 해결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까지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 문제를 성령은 이미 실제적으로 해결하셨다.

[193]

“많은 변론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였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써 논쟁 중에 있는 그 문제의 결론을 이미 내리셨다고 설득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를 그의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명하셨던 그의 환상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먹기를 거절하였을 때에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였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분명한 해석을 설명하였는데, 그 말씀은 백부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권고와 거의 동시에 주어졌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청중 곧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놀란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그 동일한 빛과 영광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얼굴에도 비치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고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4]

전에 언젠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개종과 그들과의 교제에 관하여 형제들과 논의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행 11:17). 이제 동일한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그는 말하기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하였다. 이 멍에는 율법의 구속력 있는 요구들을 반대하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

다.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효 되고 폐지된 의문의 율법이었다.

베드로의 설교로 회중은 이방인들을 위해 일한 그들의 경험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들었다.

야고보도 역시 결정적으로 증언하기를 유대인에게 허락되었던 동일한 특권과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내려 주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였다.

성령께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아셨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같았다. 야고보는 회의를 인도하였으며 그의 최종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었다.

이로써 토의는 끝났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반박거리를 찾을 수 있다.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교황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베드로가 지극히 높은 자의 대리자로서 그의 형제들보다 높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그의 생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만일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의 모본을 따른다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형제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야고보는 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하도록 택함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의문의 율법과 특히 할례 제도를 이방인들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선언하였다.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전향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큰 변화를 이루었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의심만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망을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풍습들은 버려야 하였다. 그런고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금하라는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들을 교훈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를 받아야 하였다. 또한 그들은 할례가 의무적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사

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위임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했다.

[196]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위하여 저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천거되었다. 유다와 실라는 회의의 결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이방인들에게 선언하도록 그 사도들과 함께 보냄을 받았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그 네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편지와 기별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는 그것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권위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렸던 그 총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육성하는 데 탁월했던 사도들과 교사들,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가장 유력한 교회들이 참석한 셈이었다. 그 회의는 밝은 판단의 지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의 위엄과 일치되게 제안하였다. 그들이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면 문제에 대해 응답하셨음을 그들 모두가 알았고,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임을 깨달았다.

[197]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 문제를 가결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영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령(敎令)을 만들어 반포하였다. 그러나 모두 그 결정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찬성하지 않은, 야심 있고 자신감을 가진 형제들의 과별 싸움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듯하였다. 그들은 많은 불평과 허물 찾기에 몰두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제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기별을 가르치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였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으므로 거기에는 최대의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특권들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의 의식과 유전에서 떠나는 것과 유대인의 풍습 속에

담겨진 그 특별한 신성성이 새로운 신앙의 빛 가운데서 곧 소멸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바울에게 분개하게 되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그 회의의 결정을 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으므로 유대인 율법의 의무에 대해 느슨한 원칙을 가진 까닭에 바울을 냉대하였다.

총회의 폭넓고 관대한 결정들은 이방 신도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번영하였다.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들과 함께 한 특사들인 유다와 실라가 돌아옴으로 안디옥 교회는 혜택을 입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한동안 안디옥에 체류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었다.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하였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식탁에 앉는 데 대하여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교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없이 변경시켰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다. 교회는 분열될 위험에 직면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중 행동으로 교회에게 해를 끼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진정한 감정을 이처럼 위장함에 대하여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갈 2:14)다.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스스로 내버려 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최

[199] 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자칭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당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하였다.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이러한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사업에 중임을 맡은 사람들로 성실성에 실패함 없이 원칙을 굳게 고수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된다. 인간 대리자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지시하고 통제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될 때, 만일 그가 주의 길을 주의 깊이 따르지 아니하고, 전체 신자들의 연합 회의에서 결의된 결정들과 일치되지 않다면 그는 더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베드로의 모든 실패, 그의 실수와 회복, 그의 오랜 봉사의 경력,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바른 원칙을 곳곳이 실천하신 구주에 대한 그의 지식, 그가 받은 모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얻은 모든 은사와 지식과 영향력 등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든 아니면 존경을 얻고자 해서든 간에 복음의 원칙을 숨기고 둘러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가 의를 고수함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의 배를 가지고 똑바로 안전하게 항구를 향해 나가기에 그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200] 바울은 그의 봉사 사업에서 때때로 홀로 설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감히 원칙을 굽히는 양보는 하지 않았다. 때로는 부담이 무거웠으나 바울은 의를 위하여 굳게 섰다. 그는 교회가 결코 인간 세력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들의 전통과 격언이 제시된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인간들의 편견과 편애 때문에 복음 기별의 발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바쳤다. 그는 직접 하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받았고 그의 봉사 사업 내내 하늘 대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유대주의 신도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할례 문제를 도입하였을 때에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알고서 교회들을 유대인의 의식

과 예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였다.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없었다. 바울은 직접적인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반면, 항상 교회의 교제를 통해 연합을 이룬 신도들의 몸, 즉 교회에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는 자문이 필요함을 느꼈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들을 교회 앞에 제출하여 형제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기를 기뻐하였다. 심지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2, 33)고 그는 선언하였다. 베드로와 더불어 그는 교회에서 중임을 맡아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서로 순복하”(벧전 5:5)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201]

20장 십자가를 높임

바울은 얼마동안 안디옥에서 목회 사업에 시간을 보낸 후 그의 동료 교역자에게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제의하였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봉사로 최근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을 만나기를 갈망하였다. 이런 염려를 바울은 결코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그가 초기에 봉사하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선교 지역에 있을 때에라도 그는 그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후 7:1)도록 권고하는 부담을 계속 마음에 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립적이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강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도와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202]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가려고 준비하면서 저희와 함께 다시 목회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는 일차 선교 여행 시 도움이 필요했던 그때에 그들을 떠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버린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것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논쟁이 너무도 격렬하였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의 확신에 따라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여행하면서 그 곳에서 교회들을 굳게 하였고, 마침내 루가오니아도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다.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이 루스드라였으나 우리는 이전 위험을 만났던 장소에 있는 그를 다

시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의 수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련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몹시 보고 싶었다. 그런데 루스드라 신도들이 난폭한 반대에 직면해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는 바울이 일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 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그래서 그는 길이 열리는 대로 사도를 도와 그의 수고를 분담하기를 갈망하였다.

[203]

바울의 동역자 실라는 예언의 영의 은사를 받은 믿음직한 일꾼이었다. 그러나 이루어야 할 사업이 매우 컸으므로 활동적인 봉사를 위하여 더욱 많은 일꾼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업의 신성성을 옳게 분별하고, 다가올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 않으며, 즐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먼저 그의 품성과 과거의 생애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함 없이는 경험 없는 청년 디모데를 복음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책임을 감히 맡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가 가정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은 건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경건한 여인들이 디모데를 지도한 규칙이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에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감화에 물들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가정교사들은 그를 책임을 맡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유년 시절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이들은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아들이 그 위대한 사도와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연결됨을 봄으로 보상을 받았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의 그의

[204]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비록 젊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경계의 한 방편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현명하게 충고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아니요 유대인들로 디모데의 목회를 반대할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선교 사업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해야 하였고 종종 다른 집회 장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기회를 가지곤 하였다. 만일 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의 사업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집으로 크게 방해받을 것이었다. 각처에서 사도는 단호한 반대와 격심한 박해를 당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의 동포 형제들에게도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자 갈망하였으므로, 신앙에 모순되지 않는 한, 모든 반대에 대한 구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의 편견에 이렇게 많이 양보하는 반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 가르쳤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딤후 1:2) 된 디모데를 사랑하였다. 그 위대한 사도는 종종 젊은 제자를 데리고 나가 성경 역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또한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주의 깊이 가르쳐 주었다. 바울과 실라도 디모데와의 그 모든 교제에 있어서, 복음 교역자의 사업의 신성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이미 그의 마음에 끼쳐진 감명을 더 깊게 해주고자 노력하였다.

[205] 디모데는 그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다. 그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깊이 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였다. 성령께서는 그가 거룩한 임재자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꼴 지워질 수 있음을 발견하셨다.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할 때에,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된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귀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로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은 보통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분명하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주의 사업에 바쳐야 한다. 그들은 높고 거룩한 부르심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상급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날마다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1~14).

새 지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비시디아와 인근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성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206]

사도 바울은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저희가 충실하여 그의 말처럼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빌 2:16)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의 봉사의 결과에 대해 몹시 걱정하였다. 만일 그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또한 교회도 영혼 구원 사업에 그와 협력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 자신의 구원까지도 위태하게 되리라고 느꼈다. 그는 신자들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도록 교육하는 데 혼자 전파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았다. 그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알았다.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에 실패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바울이 그의 편이 어떤 실수로 인하여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습 대신 인간의 모습을 심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늘의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만일 그가 수고한 이들을 위한 사업에 불충실함으로 하나님의

[207]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의 지식, 뛰어난 웅변, 행한 여러 이적들, 삼중 하늘에 올라가 영원한 사물을 목도함 등이 모든 것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입의 말과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빌 2:15, 16)히 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따라가라고 탄원하였다.

모든 진실한 목사는 그의 보호 하에 위탁된 신자들의 영적인 향상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뿐더러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고자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 교회의 안녕은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얼마나 충성되게 수행하는가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낀다. 그는 새로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구속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신자들에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열렬하고 끈기 있게 고무시킨다.

비시디아와 인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가서 큰 능력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갈라디아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약속한 기별을 기뻐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가운데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불순종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남녀를 구속하러 오신 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전에는 결코 참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208] 이와 같이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배웠다. “듣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갈 1:3, 4, 3:2, 26).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바울은 후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갈 4:12)고 말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았다. 그의 입술은 제단에서 가져온 타는 숯불로 지

짐을 받았으므로 그는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할 수가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게 되었다.

복음을 제시하는 이 방법은 이방인 가운데서 그의 봉사 내내 그 사도의 활동의 특징이 되었다. 바울은 항상 그들 앞에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였다. 그는 후년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5, 6).

기독교의 초기의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헌신적인 사신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훼손시키는 자만적인 생각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권위나 탁월성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구주 안에 자신을 감추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높였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르침의 요지였다.

[209]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치켜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 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210] 사랑의 빛이 비쳐 나오므로 십자가의 발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갈 6:14)다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21장 지경을 넘어서

[211]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 지중해 변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 요청이 긴급하여 지체할 수가 없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여행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동행한 누가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였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하였다. 루디아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았다. 그와 그 가족이 개심하고 침례를 받았고, 그 여자는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간청하였다.

[212]

십자가의 사신들이 가르치는 일을 위해 나갔을 때에 한 귀신들린 점쟁이 여인이 그들을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부르짖었다.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점으로 많은 이득을 주었다. 그의 감화는 우상숭배를 굳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이들이 가르친 진리를 자기의 궤변과 혼합시키고자 하였다. 이 여인이 했던 칭찬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써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 그리하여 그 말로 인하여 많

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단의 사자와 동일한 신의 작용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

얼마동안 사도들은 이 반대를 참았으나 얼마 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은 악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였다. 갑작스런 그 여인의 침묵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되었고, 그 귀신도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213] 악한 귀신에게서 놓여 바른 정신을 회복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떨어져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예언과 점으로 돈 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았고 만일 사도들을 계속 복음 사업을 하도록 용납한다면 얼마 후에는 그들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성안에는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돈을 버는데 흥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저희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감화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관원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였다.

흥분으로 동요된 군중들은 제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났다. 폭도적인 정신이 편만하였고 당국자들은 이를 인정하고서 사도들의 겉옷을 찢고 매질을 명하였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다.

[214]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혹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꺾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 소리와 저주와

옥지거리가 밤의 적막을 깨뜨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히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자문하였다.

그동안 관원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저희가 폭동을 진압한 데 대하여 자축하면서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그들은 저희가 매질하여 투옥하도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의 성격과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그들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의 용모와 태도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에 그 여인은 성읍을 매우 소란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침착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저희가 무죄한 두 사람에게 로마법의 엄한 형벌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분개하여 아침이 되면 사도들을 은밀히 석방하여 성읍에서 폭도의 위험이 없는 곳까지 호송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잔인하고 보복적이고 혹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엄숙한 책임에 대하여 죄스럽게도 태만하였으나, 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질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215]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었다. 그들을 집어넣을 때에 그는 그들의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손수 그들의 발에 차꼬를 단단히 채웠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 소리와 저주를 들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그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는 지진과 옥문의 진동으로 잠에서 깨었다.

간수는 놀라 뛰어나가, 모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놀라움으로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죄수들이 탈주하였으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는 어젯 밤 바울과 실라가 그의 관할 아래 위임되었다는 분명한 명령을 기억하였으므로 그 분명한 근무 태만의 벌로 사형을 당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는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216] 할 때에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 명랑한 바울의 음성을 들었다. 한 동료 죄수를 통하여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지되어 모든 사람이 다 제자리에 있었다.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더 깊은 옥으로 들어갔다. 그는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다. 그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 앞에 부복하고는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앞뜰로 데리고 나와서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다.

간수는 지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떨었다. 또한 죄수들이 도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때에 그는 자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의 마음을 흥분시킨 새롭고, 이상한 두려움과 비교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적적인 방법으로 중재하신 사실도 알았다. 따라서 귀신들렸던 여인의 말이 이상스런 힘으로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217] 간수는 크게 겸손하게 되어 사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도들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그 때에 간수는 사도들의 상처를 씻어 주고 그들의 수발을 들었으며, 그 후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사도들에게 침례를 받았다. 성화시키는 감화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에게 퍼져 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려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속박에서 놓이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빌립보 시민들은 지진으로 크게 두려워하였고, 아침에 간수들이 밤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행정 장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놀라 아전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석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언명하였다.

사도들은 로마 시민이었으며, 가장 흉악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로마 사람을 매질하거나 공정한 재판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공중 앞에서 투옥되었으므로 이제 그들은 행정 장관들의 정당한 설명 없이 비밀리에 석방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 말이 당국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도들이 황제에게 공소하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에 질려 즉시 감옥으로 가서 그들에게 행한 불법과 잔인함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친히 그들을 감옥에서 인도해내어 성읍에서 떠날 것을 간청하였다. 행정 장관들은 백성들에 대한 사도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였고, 또한 이 무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신 능력을 두려워하였다.

[218]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교훈에 따라 사도들은 환영하지 않는 곳에 있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사도들은 빌립보에서의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하였으나,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을 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위한 섭리의 중재와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을 목도하였다. 부당한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사업이 알려지게 되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사도들이 것처럼 크게 희생한 그 귀중한 진리를 소중히 여겨 구속주의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였다.

이 교회가 박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나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라고 말한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에 확고부동하였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

[219]

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빌 1:29, 30, 3~5)고 말하였다.

진리의 사자들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중요한 중심지들에서 선악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투쟁은 치열하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고 바울은 선언한다.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악한 천사들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투쟁이 있을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어둠의 권세들과 대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원수는 꾀변과 박해로 그들을 참된 신앙에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다.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도시마다 그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단체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대기만자는 혼란과 반역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식을 좇지 않는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기별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견실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때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받기까지 결코 그들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220]

22장 데살로니가

[221]

빌립보를 떠난 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곳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큰 회중들에게 설교할 특권을 얻었다. 그들에게는 최근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로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호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봉사에서 이 예언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눅 24:27)셨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내었었다. 스테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222]

약속된 구주의 출현에 관한 분명하고 특별한 예언들이 주어져 왔었다. 아담에게 구속주의 오심에 관한 보증이 주어졌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 3:15)고 사단에게 선고하신 선언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속의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창 22:18; 갈 3:16).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교사로서 자기의 사업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분명히 예

언하였다. 모세는 회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 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의 말씀을 하시며 이 일을 나타내셨다고 보증하였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신 18:15, 18).

[223] 메시아는 왕의 혈통이어야 하였는데 이는 야곱의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사 11:1, 55:3~5).

예레미야도 역시 다윗가의 왕으로 오시는 구속주에 관하여 증거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렘 23:5, 6, 33:17, 18)고 하였다.

메시아의 탄생 장소까지도 예언되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224] 구주께서 세상에서 하셔야 할 사업의 윤곽도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다. “여호와와 그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

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름부음을 받은 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11:2, 3, 61:1~3).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1~4).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미 5:1)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던가?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에 관하여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고 예언하지 않으셨던가?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당신이 사람들에게 받으실 취급을 예언하셨다. “나는...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훼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공홀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시 22:6~8, 17, 18, 69:8, 9, 20).

[225]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의심할 바 없이 얼마나 분명한가! 선지자는 묻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2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사 53:1~8).

그의 죽음의 방식까지 예시되어 있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오실 구속주도 들려야 하였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슌 13:6).

[227]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사 53:9,10)다.

그러나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야 하셨던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정복자로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가수는 전능자의 영감을 받아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증거하였다. 그는 기쁨으로 선포하였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무덤)에 버리지 아니하

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 16:9, 10).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분”에 관한 예언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시키셨는지를 보여 주었다. 메시아는 당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주셔야 하셨다. 수 세기를 통해 내려온 구주의 속죄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 53:7, 10, 12)고 증거하였다.

예언에 나타난 구주께서는 유대 민족을 세상의 압제자들에게서 구원하실 현세적 왕으로서가 아니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빈곤과 비천의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멸시와 거절과 죽임을 당해야 할 자로 오셔야 하였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주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훼손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분 안에서 희생 제사의 모형은 그 원형과 만나게 될 것이었고 그 모든 유대인의 제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그가 전에 가졌던 의문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다메섹 도성에서의 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말하였다. 개심하기 전에 그는 유전적 경건, 즉 거짓 소망을 확신했었다.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닳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대신 그는 형식과 의식을 신뢰했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율법의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은 거절했었다.

[228]

그러나 그의 개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였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핍박하던 그분, 곧 나사렛 예수께서 그의 앞에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나셨다. 박해자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리고 그의 생애로 성서의 모든 세부적인 약속들을 이루신 분으로 보았다.

바울이 거룩한 담력으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성소봉사와 관계된 의식과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 주는 빛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청중들의 마음을 지상봉사를 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향

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 때로 향하게 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였다. 그가 이 사건에 관한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은 그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229] 바울은 세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설교하였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사업과 미래의 영광에 관하여 성경으로 그들에게 논증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이며, 그 풍부한 보화를 얻는 통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였다.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큰 능력으로 선포되자 그는 큰 회중의 주목을 끌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이전 전도 지역처럼 사도들은 단호한 반대를 당하였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이 유대인들은 그 때에 로마의 권력의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에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의심을 받아 감시를 당하였고, 그들의 자유는 다소 제재를 당하였다. 그들은 이제 다시 환심을 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동시에 사도들과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기회를 보았다.

[230] 그들은 이 일을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을 소동케” 하는 방법으로 행하고자 하였다. 사도들을 찾으려 하여 그들은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으나 바울도 실라도 모두 찾을 수 없었다. 폭도들은 “발견치 못하매” 미친 듯한 실망으로 “야손과 밋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였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읍장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소당한 신자들을 붙잡아 두었다. 그 이상의 폭행을 두려워하여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

오늘날 인기가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

23장 베뢰아와 아덴

바울은 베뢰아에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즐겨 연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에 대하여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베뢰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이 성경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계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뢰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과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제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걸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 매달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된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뢰아까지 그들을 따라와 쉽게 흥분하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로 사도들을 대적하도록 자극하였다. 만일 바울이 거기에 머물 경우 그가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한 형제들이 그를 아덴으로 보냈는데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몇몇 베뢰아 사람들도 그와 동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진리의 교사들은 꺾박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복음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사도들의 사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 중에 나타난 계시와 같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행 22:21)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결심하였다.

[233]

바울이 베뢰아에서 급히 떠났으므로 그는 그가 고대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방문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베뢰아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그에게로 보내라고 기별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베뢰아에 왔으며, 실라와 함께 그곳에 남아서 훌륭하게 착수된 그 사업을 수행하였고, 새로운 개종자들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교훈하였다.

아덴 성읍은 이교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다. 도처에 있는 그들 신의 형상과 신격화된 역사와 시(詩)의 영웅들의 조상(彫像)이 시선을 끌었고, 한편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민족의 영광과 널리 성행하던 이교신의 숭배를 나타내었다.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황홀해져 있었다.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후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전쟁의 승리와 고명한 사람들의 행위가 조각물, 사당 그리고 명판에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234]

바울이 주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사도는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그가 본 것으로 인해 미혹되지 않았다. 그의 영성은 하늘의 사물의 매력, 곧 결코 쇠하지 아니할 풍성한 기쁨과 영광에 매우 생생히 집착되어 있었으므로, 주위의 장엄함과 화려함은 그의 눈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였다. 아덴의 장엄함을 보았을 때에 그는 예술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마음은 그의 앞에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큰 도시에서 바울은 고독감에 억눌려 그의 동역자들의 동정과 조력을 갈망하였다. 인간적인 우정에 있어서 바울 자신은 몹시 외로웠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는 “우리만 아덴에 머물”(살전 3:1)러 있다는 말로 그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이 그의 목전에 나타나 백성들의 마음에 접근하려던 그의 시도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235]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바울의 주요한 사업은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다. 사도는 곧 가장 교활하고 유혹적인 형태의 이교 신앙과 대면해야 하였다.

아덴의 위대한 사람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백성들 앞에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제시하는 어떤 특이한 교사가 저희 도시에 와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곧 청중들의 무리가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도를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그들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준비를 하고서 저희들끼리 조롱하는 말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였다. 다른 이들은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한 까닭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라고 말하였다.

저자에서 바울과 만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코 철학자들”도 있었으나, 그들도 그와 접촉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곧 바울이 자기들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졌다

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지력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편 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이론과 힘있는 웅변은 모든 청중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청중들은 그는 뜻대기가 아니요, 그가 가르친 교리를 지지함에 있어서 그는 수긍시키는 논증을 가지고 각 계급의 사람을 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사도는 담대히 서서 그들의 땅에서 그의 반대자들을 대하였고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대처하였다.

이교도 반대자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까닭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소크라테스의 운명에 그의 주목을 끌게 하였고, 그들은 같은 길을 따름으로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도록 바울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사도의 담화는 백성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꾸밈 없는 지혜는 그들의 존경과 경탄을 받았다. 철학자들은 학문이나 풍자로 바울을 침묵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바울이 만사를 내걸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시키며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을 공평하게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236]

그런고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하였다. 이곳은 온 아덴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으므로, 그 곳을 회상하고 연상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들의 심중에 공포심을 일으켜 미신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다. 민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종의 재판관으로서 일한 사람들이 종종 종교와 연관된 문제들을 주의 깊이 연구한 곳도 이 곳이었다.

군중이 운집한 대로와 소음과 혼잡, 그리고 시끄러운 토론의 소동에서 떨어진 이곳에서 사도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었다. 사도의 주위에는 시인들과 화가들과 철학자들, 곧 아덴의 학자와 성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였다.

[237]

이 엄숙한 책임의 시간에 사도는 평온하고 침착하였다. 그의 마음은 중대한 기별로 무거웠고, 따라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가 한가한 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확신시켰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

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모든 지력과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욱 큰 빛을 갈망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을 향하여 다가가고자하고 있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신전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는, 그의 심령의 부담을 토로하면서 아덴 사람들의 종교상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예술 작품, 문학 그리고 종교에 정통함을 나타내었다. 그들의 조상(彫像)과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형상과 같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 새긴 우상들은 아주 희미하게라도 여호와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다. 그 우상들은 아무 생명도 없고, 인간의 힘에 지배되어 사람의 손이 그것을 움직일 때에만 움직일 수 있는 고로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 우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바울은 상기시켜 주었다.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인 청중들의 마음을, 거짓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 주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선포한 그 존재는 사람에게서 독립하여 계시고, 능력과 영광을 더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

[238]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특성, 곧 그분의 창조력과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바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경탄하여 넋을 잃었다. 사도는 열렬하고 불일 듯한 웅변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만큼 넉넉지 아니한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이야 얼마나 보잘것없겠는가.

종종 인간의 권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던 계급 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바울은 인간의 형제 관계에 관한 대진리를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민은 평등하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 후에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사도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이 금실처럼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분은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

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의 주위에 있는 인간성의 고상한 표본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그들 자신의 시를 빌어 가지고 그들이 다 그의 자녀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묘사하였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39]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 어두운 시대에는 거룩한 통치자께서 이교도의 우상숭배를 묵과하셨으나 이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내셨으므로, 가난하고 비천한 출신뿐만 아니라, 거만한 철학자와 지상의 군주들도 모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를 기대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걱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자,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도 하였다.

이리하여 이교 학문의 중심지 아덴에서 사도의 수고는 끝났는데, 이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려 참된 신앙의 빛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함으로 아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숭배의 신비들에 더욱 만족하였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 있는 논증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에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능력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240]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시대의 이교주의에 대항하였다. 아덴에서의 그의 수고가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저명한 시민의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자들과 전적으로 연합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교만하고 자족하는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과 세련미와 예술에도 불구하고 악습에 빠졌던 아덴 사람들의 생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사도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가 처했던 환경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 고독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확신과 용기, 그리고 그가 이교의 심장부에서 기독교를 위하여 얻은 승리를 증거해야 하였다.

[241] 바울의 말에는 교회를 위한 지식의 보배가 담겨 있다. 바울은 그의 말로 교만한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만일 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재치를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교의 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오늘날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죄악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 즉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는 않으시는 그 진리를 그들 앞에 두신다. 만일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분은 그들을 버려두시어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 1:18, 19, 27, 28).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가장 위대한 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세계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빛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계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고백하고, 크신 교사 예수의 발아래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될 것이다.

[242]

상류 계층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길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나, 가장 어두운 때에도 위에는 빛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꿰뚫고 비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 가진바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가 없다. 헌신한 일꾼은 믿음으로 그 사업에 수반된 모든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실 뿐더러 즐겨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뢰를 두는 이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24장 고린도

그리스도교 시대의 제1세기 동안,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였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 중심지인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열렬한 일꾼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알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

[244]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그의 활동 초기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의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들을 사방에서 보았다.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문란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도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그들은 한 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는 아덴에서 했던 활동과는 다른 방법을 따랐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곧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낭비된 시간을 생각하였을 때, 그리고 아덴에서 가르치기는 많이 하였으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고전 2:2, 4)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다.

바울이 고린도의 헬라인들 앞에 그리스도로 제시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사악함이 속담거리가 된 한 동리에서 자라나신 비천한 가문의 한 유대인이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다. 헬라인들은 인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믿었으나, 철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참된 향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바울은 그들로 이 미천한 유대인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할 수 있었을까?

현시대를 사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거룩한 추억에 싸여 있다. 십자가의 장면은 거룩한 연상을 자아낸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았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었다.

[245]

바울은 고린도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그의 기별을 어떻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23)임을 인정하였다. 유대인 청중 가운데는 그가 선포하려고 하는 기별로 분노하게 될 사람들이 많았다. 헬라인의 견해로는 그의 말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능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다.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246]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그의 큰 동정심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 1:14)고 말하였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꺾박함으로 것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고린도의 회당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들어가며 그의 청중들을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향하도록 설교하는 사도를 바라보라.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민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시고 그 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셔야 했던 인류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구주의 사업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바울의 청중들은 그분의 강림을 갈망해 오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그분의 돌아가심은 모든 희생 제물의 원형이었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봉사는 그 그림자를 드리웠던 위대한 실물로서 유대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247]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그는 예언들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따르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 준 다음,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편 기자 다윗 왕을 거쳐 오게 될 예수의 가계를 자세히 말하였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업,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서 받으실 대접에 관한 선지자들의 증언을 읽은 후 이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봉사와 죽음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의 민족적 존재의 극치와 영광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으며, 그의 통치가 죽음으로 끝날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였었다. 그는 회개만이 유대 민족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청중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그들의 제일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겼던 이 성경절들의 의미에 관하여 그들이 무지함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그들의 세속적인 태도와

지위와 직함과 허식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과도한 이기심을 책망하였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적적인 회심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것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엄숙하고도 열렬하게 말하였으므로 그의 청중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분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았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최고의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다.

[248]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사도가 이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증거에 눈을 감았으며 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를 거절하였다. 그들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당신의 종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충만케 하였으므로 그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았을 것이다.

“저희가 대적하여 훼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도우려 “마게도냐로서 내려”왔으므로 그들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구주라고 전도하였다. 십자가의 사자들은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론을 피하고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세계의 창조주의 속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들은 인류를 위하여 이루신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이방인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들은 만일 이교의 흑암 가운데서 오랫동안 암중모색해 온 자들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볼 수 있게만 된다면 구주에게로 이끌리리라는 것을 알았다. 구주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선언하셨다.

[249]

고린도의 복음 교역자들은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위협을 알았으며 예수께

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한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음을 깨달은 때문이었다. 그들의 기별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호하였다. 곧 그것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거나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의 말로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다. 천사들은 그들과 협력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언제나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증오심은 이제 격렬하였다. 그리스보의 회개와 침례는 이 완고한 반대자들을 수긍케 하는 대신에 격노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논박할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으며 그와 같은 증거의 부족에 대하여 기만과 악의적인 공격에 호소하였다. 그들은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들은 맹목적인 분노로 가장 가혹한 말과 가장 비열한 계략을 썼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적들을 행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께서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유포하였으며 바울이 행한 놀라운 사업도 동일한 대리자를 통하여 수행되었다고 단언하였다.

[250]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 더욱 유망한 일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자 열렬히 간구할 때, 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에 체류하라는 명령이요 뿌려진 씨를 주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알았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써 거기서 계속하여 일하였다.

사도의 노력은 공중 설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수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으며 가정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는 병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압박당하는 이들을 일으켰다.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와 같이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고전 2:3)는 중에 일하였다. 그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대한 감명을 자아내게 하거나 앓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바울은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6~13).

[251]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운 감화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사도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인물이 되셨다.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고 선포하였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자였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종종 그의 청중들을 열정적인 웅변으로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252]

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렸다. 감각을 기쁘게 하고 상상력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매일의 생활에 감명을 줄 수 없는 시적(詩的) 묘사와 공상적 표현에 몰두하는 대신에, 바울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확신시켜 주고자 노력하였다. 진리에 대한 공상적인 표현은 희열을 일으킬지 모르나 너무도 자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진리는 생애의 투쟁을 위하여 신자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데 필요되는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다. 투쟁하는 영혼들의 직접적인 필요, 곧 당면한 시련들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나타난 건전하고 실제적인 교훈과 접촉해야 한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노력에 결과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아래 등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얻은 증가된 성공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 단호한 반대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그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재판자리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이전의 경우처럼 관헌들이 그들의 편을 들리라고 기대하여 크고 분노한 음성으로 사도에 대한 그들의 불평을 토로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였다.

[253] 유대 종교는 로마 권력의 보호 하에 있었으므로 바울의 고소자들은 만일 그들이 그들의 종교의 법을 범한다는 비난을 그에게 씌울 수만 있다면 바울은 심문과 선고를 받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넘겨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그를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속는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의 고집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난 그는 고소를 무시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려고 준비할 때 갈리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분노한 고소자들을 향하여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

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모두 갈리오의 결정을 열심히 고대하였으나 그가 민중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즉시 기각시킨 일은 계획이 좌절되어 화가 날지라도 유대인들이 물러가야 한다는 표시였다. 총독의 단호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교사(敎唆)를 받았던 시끄러운 군중의 눈을 열었다. 바울이 유럽에서 수고하던 동안 처음으로 폭도들은 그의 편이 되어 바로 총독의 눈앞에서 그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가장 현저하게 비난한 사람들을 난폭하게 공격하였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리하여 그리스도교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였다. 만일 이 때 사도가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면, 예수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이 위험한 위치에 놓였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기까지 그들이 얻게 된 유리한 입장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254]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도착하였는데 이는 사도를 크게 기쁘게 하였다. 그들은 복음 사신들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한 동안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로 가져왔다. 바울의 마음은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였던 이 신자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동정심을 나타내었다. 그는 몸소 그들을 방문하기를 갈망하였으나 그 당시 이 일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편지하였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증가하였다는 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는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사도는 주를 충실히 따름에 있어서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 칭찬의 말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편지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연고라고 하였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진실한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장래 노하심”에 대한 공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구주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생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 하였다.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이 증가해 갔다.

이 첫째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행한 그의 활동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기만이나 간사스런 꾀를 통하여 개종자들을 얻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에게 보내는 그의 처음 편지에서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에 관하여 그들에게 교훈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죽은 사람은 잠자는 자 곧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257]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58]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충실한 자들을 변화시켜 당신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생각을 열심히 붙잡았다.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 바라보았으며 감히 내세에 그들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였다.

바울의 편지를 열어 읽었을 때, 죽은 자의 진정한 상태를 나타낸 말은 교회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가져왔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먼저 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이 자는 자들에게 울리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259] 이 보증이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회에게 가져다 준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저희 복음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믿고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마음이 그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어졌다. 그가 전에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였었으나 그 때 그들의 마음은 새롭고 이상스러운 것처럼 보인 교리들을 붙잡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을 주지 못하였던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갈급하였으므로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주었으며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혀 주신 그분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깊은 사랑을 심어 주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 죽은 자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던 흑암은 사라졌다. 한 새로운 광

채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새로운 영광을 보았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바울은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해석하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위안이며 영광스러운 희망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하는 동안 시대의 징조에 관한 문제를 아주 충분히 다루어,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전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260]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 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 때를 재촉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는 경성하며 깨어 있는 자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날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점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다. 대종말이 매우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다음 말은 현저한 능력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

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261]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증가될 때에는 또한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한다.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당부하였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 들었다.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애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도록 간청하였다. 바울은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고 하였다.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의 남녀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당신과 산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진리의 빛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종종 그들과 상의하였다. 또한 자신이 위하여 수고한 이들과 헤어져 있을 때에 바울은 종종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며 그들이 활동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하였다. 사도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63]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64]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로 예언의 선물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시켰고 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함에 있어서 주의 깊히 구별하도록 명하였다. 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들에게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그의 편지를 끝마쳤다. 그는 침언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관하여 그의 첫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보낸 교훈은 그의 이전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몇몇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오해를 받았다. 그들은 바울 자신이 살아서 구주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열심과 흥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전에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했던 이들은 이제 더욱 완고하게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게 되었다.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시정하고 그들 앞에 자신의 진실된 입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다시 그들의 성실성을 확신하며 그들의 강한 믿음과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나타낸 그들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는 다른 교회들에게 그들을 박해와 환난을 용감히 견디는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신앙의 모본으로 소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때로 향하게 하였는데 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265]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언 가운데 미리 이야기한 종교계의 중대한 일이 일어나야 하였다. 사도는 그 일을 이렇게 선포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울의 말은 곡해되지 않아야 하였다. 그가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경고한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신앙에 혼란을 일으킬 것인데, 이는 종종 실망은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러한 기별을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주의를 시켰으며, 계속하여 선지자 다니엘이 매우 분명하게 묘사한 교황권이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지 아니한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권세가 그 가공할 만한 참람된 사업을 수행하기까지는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 헛될 것이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266]

무서운 시련이 참 교회를 괴롭힐 것이었다. 사도가 편지를 쓰던 그 때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관한 사도의 진술은 특히 엄숙하다. 바울은 일부러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언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거절하고도 무사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들에 계속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시며 그들로 그들이 사랑하는 기만에 빠지게 하신다.

[267]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암흑과 박해의 긴 세대를 통하여 계속될 저 악한 세력의 사악한 일을 대강 진술하였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조속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게 저희 앞에 놓인 사업을 짊어지도록 권유를 받았다. 사도는 그들의 의무를 등한히 하거나 한가로이 기다리는데 자신들을 내맡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조속한 구원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일상생활의 반복과 반대는 어려움이 가중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였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나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68]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을 주셨다. 그들은 진리를 충실히 고수함으로 저희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였다. 사도는 그들에게 선행에 있어서 싫증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한편 현실적인 일에도 근면했던 자신의 모본을 가리켰다. 그는 태만하고 목적 없이 흥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준 교훈을 무시하기를 고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명하였다. 그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부언하였다.

바울은 이 편지 역시 생애의 수고와 시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평화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위로와 지지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결론을 맺었다.

고린도를 떠난 후, 바울의 다음 활동무대는 에베소였다. 바울은 다가오는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으므로 에베소에서의 체류는 물론 짧았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으며 그들은 매우 좋은 인상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활동을 계속하기를 바울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 때문에 그 때는 체류할 수는 없었으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수행하여 에베소에 왔으며 바울은 그가 착수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그 곳에 남겨 놓았다.

이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며, 선지자의 사업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산 증인이 되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기록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였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청중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아직 충만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렀다.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어 가장 유능한 그리스도교 신앙 옹호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270]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하니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는 교사로서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다. 그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공중 봉사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었다. 바울은 진리의 씨를 심었고 이제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볼로가 거둔 성공을 보고 어떤 신도들은 그의 수고를 바울의 수고보다 더 높이게 되었다. 이

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복음 사업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당파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일년 반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단순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고린도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두려움과 떨림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고전 2:1, 4, 5)다.

[271] 바울은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교수 방법을 달리하였다. 그는 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 3:1, 2). 많은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한 교훈을 빨리 배울 수 없었다. 영적 지식에 있어서 그들의 진보는 그들의 특권과 기회에 부합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크게 진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였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 16:12)고 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와 같았다. 질투와 악한 추측과 비난으로 많은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지”(고전 2:10)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닫혀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 아무리 현명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272] 고린도의 회심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보를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사업이었다. 바울은 마음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들을 가르쳐야 하였다. 그때는 그들이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고전 2:14)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씨를 심어야 하였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물을 주어야 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손을 댈 그 지점에서부터 일을 진전시켜야 하였으며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적절한 때에 영적 빛과 진리를 전하여야 하였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그가 가르치기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매우 주의 깊이 소개해야 함을 깨달았다. 사도는 그의 청중들 가운데는 인간의 이론을 믿는 교만한 신자들과, 성경에 계시된 영적이며 불멸하는 생명의 실체와는 모순되는 이론을 맹목적으로 자연의 책에서 발견하고자 모색하는, 거짓 예배 제도를 해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비평자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석을 논박하고자 할 것이며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조소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바울은 영혼들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고자 노력하면서 방탕한 자들을 직접 책망하거나 그들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흉악한지를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는 그들 앞에 생애의 참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저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세욕과 죄에서 그들을 끌어올려 순결과 의로 인도할 거룩하신 교사의 교훈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얻어야 할 실제적인 경건과 성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의 암흑을 꿰뚫어 그들의 부도덕한 행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친 그의 교훈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었다. 그는 그들의 가장 진지한 연구와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여야 함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

[273]

철학자가 구원의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이 그가 자랑하는 학설을 부끄럽게 하는 까닭이며, 속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그의 세속적 우상들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나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는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이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화시키는 감화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을 변화시킨다.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의 타고난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에 매력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곳에서 마음에 맞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을 지배하는 성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야 한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의 이해력은 성화된다. 그는 다함이 없는 기쁨과 지식의 샘에서 마실 것이며 생명의 빛이신 분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므로, 영원한 빛이 그의 길을 비출 것이다.

[274]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공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있음을 고린도 형제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상이한 일꾼들의 우열에 관하여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요 육에 속한 마음을 품은 결과였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4-7).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조직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이것은 주께서 그에게 배정하신 사업이었다. 후에 하나님의 지도로 다른 교역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몫과 위치를 감당하여야 하였다. 뿌린 씨에는 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을 아볼로가 해야 하였다. 그는 그의 사업에서 바울을 이어 더욱 교훈을 주고 뿌려진 씨가 자라도록 해야 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였으나 더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로서 그분의 감독 하에 일한다. 성공에 따르는 명예와 영광은 크신 일꾼이신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동일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모두 그분의 일꾼들이다. 각 사람은 크신 교사에

대하여 배우고 후에는 배운 바를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들 각자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다. 재능은 각각 다르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의 성화케 하시는 감화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 화합되어야 한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이다. 인간이란 도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분, 아주 사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신다.

[275]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8, 9). 사도는 이 성경절에서 교회를, 주께서 심으신 포도를 돌보기 위하여 농부들이 수고하는 경작지와 또한 주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건축물에 비유한다. 하나님은 일꾼들의 머리이시며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의 감독 아래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주와 기술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의 노력을 성공으로 관 썩워 주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친절하고 예모 있는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롬 12:10)면서 함께 일하여야 한다.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혹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한다. 주께서 기별을 위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봉사할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진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276]

이러한 원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번째 편지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1~5).

하나님의 다양한 종들 사이를 판단하는 일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주께서만 인간이 한 일의 재판장이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사도는 계속해서 그의 수고와 아볼로의 수고를 비교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언급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6, 7).

[277]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끈기 있게 견디었던 위험과 고생을 교회 앞에 분명히 제시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꺾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1~15).

복음 교역자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내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마음에 드는 목사에게 매우 강한 애착심을 나타내므로 다른 교사의 수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아니할 때에 모욕을 당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 목사가 그리스도교의 모든 요구대로 교회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소유하기란 드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어떤 자질들을 가진 다른 목사들을 종종 그들에게 보내신다.

교회는 이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주님 자신을 영접하듯이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한다. 교회는 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유익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 주는 진리들을 겸손에서 우러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되, 어떠한 목사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278]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써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곧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게 될 일을 성취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겠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도구에게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회개할 것이다. 자아는 눈에 띄지 않을 것이며 갈바리의 사람이신 예수만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이들도 사도 시대에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나타낸 탁월한 미덕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종들에게도 능력을 주고자 하신다.

사도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릇 인도함을 받아 당신의 사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거절한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인간 교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목사들의 도움 없이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음성에도 복종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279]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의 연합된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께서 지정하신 조력자로서 교회 안에 두셨다. 그들 자신의 강한 성격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명예를 함께 메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신(自信)에 눈이 멀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선택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발걸음마다 권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혼들을 지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원수는 쉽게 역사한다.

감정은 의무에 대한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원수는 종종 실제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충동만을 따르고 있을 때,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깊이 깨어 있어 우리 형제들의 권고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시 25:9)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280]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베드로가 저희 지도자라고 주장한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였으나 바울은 신자들을 꺾박한 자였다고 단언하였다. 그들의 견해와 감정은 편견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관대한 아량과 친절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당파심은 그리스도 교회에게 큰 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께서는 바울에게 열렬한 권고와 엄숙한 항의의 말을 하도록 명하셨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사도는 묻기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라고 하였다.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호소하였다.

바울과 아볼로는 완전히 일치하였다. 후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까닭에 실망하고 슬퍼하였으며 자신에게 나타난 편애를 이용하지도 격려하지도 않고 급히 싸움 마당에서 떠났다. 후에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도록 간청하였을 때, 아볼로는 거절하였으며, 그 교회가 보다 나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인 오랜 후까지도 그 곳에서 다시 일하지 아니하였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의 약속을 지켰다. 바울은 짧은 시일 동안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의 초기의 활동 무대였던 안디옥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 곳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여행하여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사도 시대에 소아시아 서부 지방은 로마의 아시아 도(道)로 알려졌다. 수도 에베소는 대대적인 상업 중심지였다. 항구는 선박으로 꽉 찼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다. 고린도처럼 에베소도 선교 활동을 하기에 유망한 곳으로 보였다.

모든 문명 국가에 널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례 요한이 전도하고 있을 때에 연중 절기를 당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요단강 언덕으로 나아갔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선포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 기별을 세상 각처에 전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들이 일할 길을 준비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열두 형제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얼마쯤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볼로와 같은 능력은 갖지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성실과 신앙으로 그들이 얻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 형제들은 성령의 사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바울이 물었을 때,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하였다.

그 때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그분의 잔인한 치욕적 죽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어떻게 생명의 주께서 무덤의 장벽을 깨치시고 사망에서 승리

하셨는지를 말하였다. 그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사명을 반복해서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마 28:18, 19)라. 그는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큰 이적과 기사를 이루실 보혜사를 보내시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고, 이 약속이 오순절 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는지를 묘사하였다.

[283]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그 형제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도 역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예언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와 그 부근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또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사람들이 교역자로서 추수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의 모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 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아니함으로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열렬히 지혜를 간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진리의 풍요한 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그가 거룩한 지혜의 교훈을 간직하게 될 때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위임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284]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주제를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樹液)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것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고 유지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철학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천연계에서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연계의 생명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285]

이 유대인 개종자들의 경험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다른 교훈이 있다. 그들은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았을 때,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중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기쁘게 영접하였으며, 이 진보의 단계와 더불어 그들의 의무에 변화가 이르러 왔다. 그들이 더 순전한 신앙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애에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변화의 증거를 보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표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았다.

바울은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함으로써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바울은 3개월 동안 계속 거기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다른 곳에서처럼 난폭

한 반대를 당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를 고집하였을 때 사도는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그쳤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 일하셨다. 진리를 알고자 정직하게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증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편견과 불신의 지배를 받아 가장 확실한 증거에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신자들의 신앙이 이 진리의 반대자들과의 계속적인 교제로 위태하게 되어나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모아 어떤 저명한 교사인 두란노의 서원(書院)에서 강론을 계속하였다.

[286]

바울은 비록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그의 앞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고전 16:9)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일 뿐 아니라 가장 부패한 도시였다. 미신과 관능적 향락이 그 많은 인구를 뒤흔들었다. 사원(寺院)들의 그늘 아래서 각종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찾았으며 가장 저급한 죄악들이 성행하였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다이아나:달의 여신-역자 주) 숭배의 이름난 중심지였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의 장엄한 신전의 명성이 온 아시아와 세계에 퍼졌다. 그 빼어난 장관은 그 도시뿐 아니라 그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였다.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구전되었다. 그 위에는 상징적인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상징들의 뜻과 용법을 설명하는 책들을 기록하였다.

이 값비싼 책들을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쳤다.

[287]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노력과 함께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와 같은 초자연적 능력의 출현은 에베소에서 이전에 목격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으며 그들이 요술쟁이의 기술이나 마술사의 마법으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이 이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을 때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여신 아데미의 예배자들인 마술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까지라도 가장 유력하고 총애를 받는 마술사들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이셨다.

그러나 모든 악령들을 복종시키고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을 지배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멸시하고 모독한 자들에게는 더 큰 수치와 패배를 안겨 주고자 하셨다. 마법은 위반 시 사형에 처하도록 모세의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때때로 배도한 유대인들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졌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 도시에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한 기적들을 보고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시도하였다. 그들은 귀신들린 한 사람을 찾아 “바울의 전과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성성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나타났고 구주의 사명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려던 자들은 위험을 당하였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전에 감추어졌던 사실들이 이제 밝히 드러났다.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들의 미신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마술의 행습을 계속하였다. 이제는 그들의 과오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였다. 선한 사업은 어떤 마술사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이 분개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289] 이 점치는 주문집(呪文集)들에는 악령들과 교통하는 법과 형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사단 숭배의 규칙들-사단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는 지침들이었다. 제자들이 이 책들을 소유하였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에 노출시켰을 것이며, 그것들을 팔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길에 시험거리를 놓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흑암의 왕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 권세를 떨리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현으로 바로 그 미신의 성채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은 바울이 실감했던 것보다도 더 널리 퍼졌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 자신이 그의 사명을 다한 오랜 후까지도 이 광경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어서 복음으로 나아오는 회심자들을 얻는 방편이 되었다.

이교의 미신들이 20세기의 문명 앞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하는 사건들의 엄연한 증언은 마법이 고대 마법사들의 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행하여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고대의 마법 제도는 사실상 현대 강신술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다. 사단은 자신을 죽은 친구들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냄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전 9:5)라고 선언한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랑, 그들의 증오심은 사라지고 없다. 죽은 자는 산 자와 교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단은 그가 최초로 사용한 간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 계략을 사용한다.

[290] 앓는 사람, 가족을 여인 사람,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통하여 악령과 교통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자 모험하는 모든 자들은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선언하신다.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이교의 신접한 자에게 조언을 구하려 보낸 한 왕에게 다음과 같은 단호한 형벌을 선고하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왕하 1:3, 4).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걷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의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의 감화에 굴복할 때 그들은 머지않아 마음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영혼이 더럽혀짐을 알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의 다음 권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엡 5:11).

에베소는 삼년 이상이나 바울의 사업의 중심지였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번영하였으며 이 도시로부터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되었다.

사도는 이제 얼마 동안 다른 지방의 선교 여행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였으나, 에베소의 사업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는 오순절 후까지 남아 있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출발을 재촉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다.

매년 한 번씩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데미를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었다. 이 예식에는 그 도의 각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이 절기 동안에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축제들이 거행되었다.

이 축제 시기는 새로 신앙에 입문한 자들에게는 시련의 때가 되었다. 두란노 서원에 모인 신자들의 무리는 축제의 합창에서 불협화음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바울의 전도는 이교 숭배에 현저한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거국적 축제에 참석하는 숫자와 예배자들의 열심은 눈에 띄게 하강하였다. 그 교훈의 영향은 실제로 회심한 자들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되었다. 공개적으로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이교의 신들에 대한 모든 신뢰심을 잃을 정도로 계몽되었다.

또한 다른 불만의 원인이 있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과 아데미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작은 감실(龕室-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과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 발달해 있었다. 이 사업에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모두 연합하여 그 달갑지 않은 변화를 바울의 전도의 탓으로 돌렸다.

은감실의 생산자인 데메드리오는 그의 직공들을 불러 모으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

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은 백성들의 자극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저희가...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였다.

이 연설의 소문은 신속히 퍼졌다. “온 성이 요란하”였다. 바울을 수색하였으나 그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형제들은 위협의 통고를 받자 그를 급히 거기서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도를 보호하도록 파송되었으니,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분노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폭도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바울이 숨은 장소는 그리 멀지 아니하였고 그는 곧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위협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폭도들에게 말하고자 즉시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렸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백성들이 찾는 먹이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큰 해가 우려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도의 창백하고 근심어린 얼굴이 보이게 되면, 이것은 곧 폭도들의 최악의 분노를 유발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할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가능성마저도 없게 될 것이었다.

바울은 여전히 군중 앞에서 진리를 옹호하고자 갈망하였으나 마침내 연극장에서 온 경고의 기별로 제지당하였다.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다.

연극장의 소동은 계속 증가되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료 중 얼마가 히브리 혈통이란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희는 바울과 그의 사업에 동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를 갈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내세워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하였다. 택함을 받은 대변인은 그 세공업자의 한 사람인 구리 장색 알렉산더이었는데”(딤후 4:14), 그에 대하여 바울은 후에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자라

고 언급하였다. 알렉산더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오로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떠밀어 버리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 동안이나 하”였다.

마침내 극도의 피로에 지쳐 그들은 소동을 그쳤고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때 그 도시의 서기장이 군중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직책 덕분에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백성들을 그들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하였고 그런 소동을 일으킬 아무런 까닭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의 이성애 호소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훼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295] 데메드리오는 그의 연설에서 “우리의 이 영업”에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참 원인과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도들을 따라다닌 대부분의 박해의 원인을 나타낸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복음의 가르침과 전파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을 알았다. 이교의 사제들과 직공들의 수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장 신랄하게 바울을 대적하였다.

서기장과 그 도시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바울을 백성들 앞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죄한 자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오류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승리였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관원을 일으켜서 당신의 사도를 옹호하게 하시고 소동하는 폭도들을 제지하게 하셨다. 바울의 마음은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에베소에서 소동으로 그리스도교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였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 여행에 바울은 에베소의 충실한 두 형제 두기고와 드로비모를 동반하였다.

[296]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종결되었다. 그 곳에서의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 그는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였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적하여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가 세운 교회들 중 어떤 교회에서 들려오는 배도의 소식은 그를 매우 슬프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한 그의 노력이 헛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는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들을 알았을 때, 그는 여러 날 밤을 잠자지 않고 기도로 지새우며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의 상태에 도움이 요구될 때, 그는 교회들에게 책망과 권고와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들 가운데서 사도는 자신의 시련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그의 수고와 고통에 대하여 때때로 조금씩 암시한다. 때 맞음과 옥에 갇힘, 추위와 주림과 목마름, 육지와 바다의 위험, 도시에서와 광야에서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하”였고 “만물의 찌끼같이 되”였고 “답답한 일”과 “땀박을 당하”였고 “사방으로 에워쌌을 당하”였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을 당하였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우와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하였다. 그는 구주의 발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297]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 후반에 기록하였다. 이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까닭이었다. 일 년 반 동안 그들 중에서 수고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분의 은혜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간청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권과 의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베푸는 일에 유의하였으며 그들을 도와 침례 서약에 충성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

바울은 모든 영혼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애쓰는 악의 대리자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있어서 연소한 이들을 강하게 하며 굳게 하고자 끊임없이 수고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며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하늘은 그들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곤궁한 때에 자비의 천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유혹적인 형태의 우상숭배와 호색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런 영향이 그들에게 거의 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확고한 신앙, 그의 열렬한 기도, 열성 있는 교훈의 말 그리고 특히 그의 경건한 생애는 죄악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형세가 불리한 상태가 일어났다. 원수가 심었던 가라지들이 곡식 가운데 나타나 악한 열매를 결

실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고린도 교회로서는 맹렬한 시련의 때였다.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도와줄 사도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점차로 많은 사람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여 그들을 지배하려는 타고난 취미와 경향에 빠졌다. 순결과 정직의 고상한 이상을 그들에게 것처럼 자주 호소하던 사도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회심하였을 때 악습을 버렸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교의 저급한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바울은 교회에 간략하게 편지하여 방탕을 고집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나,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의도를 곡해하여 그의 말을 비꼬며 그의 교훈을 무시하는 일을 핑계하였다. [300]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들 중에 있는 통탄할 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교회의 참 상태가 감추어졌으나 이 편지는 발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을 그에게서 받으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 무렵에 고린도에서 명성이 높은 그리스도인 가정인 글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쪽 형편에 관하여 물었고 그들은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말하였다. 아볼로가 방문하였을 때에 만연했던 분쟁이 더 커졌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교훈을 멸시하도록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복음의 교리와 의식들이 곡해되었다. 한때 그리스도인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과 우상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편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그의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하나님의 조언을 간구하였다. 즉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면,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현재 상태로는 그가 수고하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이 방문할 길을 준비하도록 디도를 보냈다. 한편 사도는 그들의 것처럼 왜곡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301]

서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 보냈다.

바울은 교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고 만일 그것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들을 보다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위험 가운데 있었고 그는 이 위험한 때에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충실하게 그들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지적하고 그들이 처음에 나타낸 헌신의 열성을 새로이 불붙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고린도 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큰 사랑은 교회에 보내는 그의 친절한 인사에서 나타났다. 그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와 참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그들의 경험을 언급하였다. 그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계속적인 향상을 하는 일이 그들의 특권임을 보여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302]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싸움을 그치도록 신자들에게 권고하였다. 그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 편지하였다.

사도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교회 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느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영감을 받은 사도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진리들을 “계시”로 받았으나 주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에게 언제나 직접 나타내지는 않으셨다. 이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번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과 죄악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앞에 이 문제를 제시하였고 사도는 그가 전에 받은 하나님의 계

시로부터 이같은 사태의 성격에 대하여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께서 그 특별한 때를 위하여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아니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빛을 찾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기별을 그리스도의 뜻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주께서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곤란과 위험을 그에게 보이셨고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사도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사람으로서 돌보아야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그들 중에 일어난 무질서와 분쟁에 관한 보고에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명백히 그렇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보낸 견책은 그의 다른 편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되었다.

[303]

사도는 그의 수고의 결실을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교회 안에 있는 무지와 분쟁 때문에 그는 현명하게도, 어떤 이들이 진리에서 완전히 떠날까 염려하여 그와 같은 언급으로 그들을 자극하는 일은 삼갔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행한 자신의 사업을 다른 이들이 건축할 기초를 닦아 둔 “지혜로운 건축자”의 일로 주목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울은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계급의 필요에 응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환경 아래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전할 수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어난 보다 중대한 죄악 중에는 이교의 많은 저급한 풍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전에 회개했던 한 사람은 그의 음란한 행위가 이교 세계에서 유지되고 있던 저급한 표준의 도덕성까지도 깨뜨릴 만큼 크게 배교하였다. 사도는 “이악한 사람”을 그들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교회에 호소하였다. 사도는 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권고하였다.

[304]

교회 내에 일어났던 또 다른 중한 죄는 형제들이 서로 간에 소송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신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와 같은 문제들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5~18).

이 분명한 권고를 돌아보지 아니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바울은 권고와 책망의 분명한 말로 편지하였다. 그는 문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305]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신과 이간과 적의를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그와 같이 느낄 만한 진정한 이유가 없는 때까지도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첫째로 할 것이며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어떤 방법이라도 다 쓸 것이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과오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희 형제들로 인하여 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할 때 그들 중 어

면 이들은 구주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에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 중에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서 호소하지 말 것이다. 그와 같은 다툼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저희 스스로 해결하든지 교회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록 불법이 행하여졌을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추종자는 교회 내의 형제들의 죄를 세상 앞에 공개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306]

형제들 사이의 소송은 진리의 사업에 수치이다. 서로 소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흑암의 권세가 승리하게 한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그분을 공공연히 모욕한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멸시를 나타낸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들을 죄악에서 지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만일 그들이 주어진 조건에 응하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속박을 깨뜨리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돕는 수단으로 바울은 그들이 회심하였을 때 그들의 생애를 바쳤던 그분의 요구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촉구하였다. 그는 선언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사도는 순결과 성화의 생애에서 이교의 부패한 행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그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편지하였다. 그는 저급한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묻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307]

바울은 높은 지적 재능을 소유한 한편, 그의 생애는 희귀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 능력은 그에게 민첩한 통찰력과 동정심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여 좋은 성격을 일깨움으로써 보다 고상한 생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감명을 줄 수 있게 하였다.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유혹에 대하여 그들을 굳게 해줄 내적 경건을 나타내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발걸음마다 사단의 회의 반대를 당할 것과 나날의 투쟁에 참가해야 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옛 습관과 타고난 경향을 물리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원수가 몰래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였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하여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308]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쇠하지 않는 열심의 중요성을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시켜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고린도 가까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렸던 유명한 경주에 비교하였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성행하는 모든 경기 중에서 경주는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 왕과 귀족들과 정치가들이 경주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신분이 높고 부요한 청년들이 경주에 가담하였고 그들은 상을 얻기에 필요되는 노력이나 훈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경기들은 항의할 수 없는 엄격한 규칙들로 통제되었다. 상을 얻기 위하여 경쟁자로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엄격한 준비 훈련을 받아야 하였다. 해로운 식욕의 방종이나 지적 혹은 육체적 활력을 저하시킬 어떤 다른 만족이라도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 힘과 속도의 시험에서 성공하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근육이 강인하고 유연해야 하며 신경들이 잘 통제되어야 한다. 모든 동작은 분명해야 하고 매 발걸음은 신속하고 빛나가지 말아야 하며 체력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경주자들이 기다리는 군중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의 이름이 공고되고 경기 규칙이 분명히 설명되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함께 출발하였고 관중들의 주목은 이기겠다는 결심을 갖도록 그들을 고무시켰다. 심판관들은 결승점 가까이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고 올바른 승리자에게 상을 줄 수 있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였다면 그는 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기에는 큰 위험이 따랐다. 어떤 이들은 무서운 육체적 긴장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도중에 넘어져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때때로 어떤 경주자는 거의 입상권에 들었을 때 넘어져 죽었다. 그러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달리는

이에게 크게 위협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성공적인 경주자에게 명예로운 보상이 주어지는 까닭이었다.

승리자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는 대기를 찢고 인근 언덕과 산에 메아리쳤다. 관중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심판관은 그에게 승리의 표상인 월계관을 주고 그의 오른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려주었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온 나라 안에 들렸고 그의 부모도 영광을 나눠 받았으며, 그가 사는 도시까지도 것처럼 위대한 운동가를 배출한 까닭에 크게 높임을 받았다.

[311]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경기를 언급한 바울은 경기에 임한 경주자들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 훈련, 절식(節食),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선언하였다. 경주자들은 체력을 약화시킬 모든 방종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강인하게 훈련시킴으로, 경기 당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원한 이익이 걸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욕과 정욕을 이성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결코 오락과 사치와 안일로 인하여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모든 습관과 정욕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여 계발되고 그분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성이 마음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린도인의 경기에서, 경주자들의 최후의 몇 걸음은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결승점에 가까이 이를 때,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한층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312] 바울은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시드는 월계관을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승리한 이에게 주어질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과 대조한다. 바울은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선언한다. 헬라의 경주자들은 썩을 상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수고나 단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무한히 귀중한 상, 곧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 깊게 노력해야 하며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극기해야 하는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인 경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실한 목적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1, 2).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3~45).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발이나 손을 잘라 버리거나 눈까지도 뽑아 버려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인가!

고대의 경기에서 경쟁자들은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경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받을 수 없다. 한 사람만이 탐내던 화관을 취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상을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나 그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 때, 바로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 탐하던 보물을 붙잡기도 하였다.

[313]

그리스도인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

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생애의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곧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 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314]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에 비례할 것이다.

사도는 자신을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였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방향 없이 달리거나 되는 대로 달리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자신을 엄격한 훈련에 복종시켰다. “내 몸을 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엄격한 훈련으로 욕망과 충동과 정욕을 격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였다.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생애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말과 감화와 자아 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였다. 그가 언제나 바라고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가지 목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였다”(빌 3:9).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315]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려는 성실한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날마다 경건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구하며 법대로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호소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순종할 때는 축복의 보상을 받고 범죄할 때는 형벌을 받은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지적하였다. 그는 히브리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기이한 방법에 대하여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으나, 반면에 애굽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모두 익사하였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셨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셨다. 침을 당한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니, 그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상함을 받으셔서 구원의 시내가 만민에게 흐를 수 있게 하셔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이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두고 온 사치에 대한 갈망과 그들의 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경험에 내포된 교훈을 주의하도록 명하였다. 그는 선언하기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그는 안일과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저한 징벌을 초래하는 죄악을 위한 길을 준비하였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던져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한 것은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 때였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방탕에 빠졌던 것은 바알브올의 예배와 관련된 호화스러운 잔치에 참석한 후였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났고 그분의 명령으로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간원하였다. 저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게 된다면 그들은 중한 죄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로 실망이나 낙담에 빠지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

음과 같은 보증을 그들에게 주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317] 바울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칠 것인지를 스스로 살피서 그 자체는 무죄할지라도 우상숭배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거스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형제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말”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의 경고의 말은 각 시대에 모두 적용되나 특히 우리 시대에 적용된다. 그가 의미하는 우상숭배는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요 자신을 섬기는 것, 안일에 대한 사랑,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다 의미한다.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목과 기호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며 방종을 시인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다.

사도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긴밀하고 조화된 관계를 적절하게 예증하였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남녀들에게 영감과 격려의 근원이 되어 온 말로써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품어야 할 사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18]

그의 공언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할 것이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열심으로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기실 것이다.

[319]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비에서 솟아오른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320]

고린도의 신도들 중에 도덕적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에 관한 명백한 증언으로 이 이단에 대처하였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였다.

사도는 수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대진리를 진술하였다. 사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 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는 고린도 형제들의 마음을 부활의 아침에 있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때는 자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사도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언하였다.

[321]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승리는 영광스럽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이 그들 앞에 있는 가능성들을 깨닫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육욕적인 사람들을 떠나 영원불멸의 소망으로 생애를 영화롭게 할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사도는 가장 단호하고 감명 깊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중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위험한 사상과 행습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의 경고와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빛이 그들에게 비치어 그들의 생애를 더럽히고 있는 감추인 죄악들을 드러내었다. 이 빛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던가?

그 편지를 부친 후 바울은 그가 기록한 것이 그가 덕을 베풀고자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는 더욱더 사이가 벌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때때로 그의 말을 철회하기를 원하였다. 사도처럼 사랑하는 교회나 기관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낀 이들은 그의 정신적 의기소침과 자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분의 사업의 짐을 진 하나님의 종들은 대사도의 몫으로 주어졌던 수고와 투쟁과 애타는 염려에 대하여 알 것이다. 교회 가운데 있는 분열로 번민하고, 그가 동정과 지지를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이들로부터 배은망덕과 배반을 당하며, 악이 잠복하고 있는 교회들의 위험을 깨달음으로 죄를 책망하는 면밀하고 엄중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동시에 그는 그가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지나 아니하였나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근심에 떨면서 그의 기별을 받은 곳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31장 기별에 유의함

바울은 에베소로부터 또 다른 선교여행을 떠났으며 그 동안 그는 전에 유럽에서 수고한 곳들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자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동안 드로아에 체류하였는데 거기서 그의 기별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후에 그는 그 곳에서의 수고에 관하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하였다. 드로아에서의 활동은 성공적이었으나 그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특히 고린도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권고와 책망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바울은 이 경험에 관하여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근심했던 기간에 바울은 잘되기를 바랐으나 그의 권면과 권고가 오해를 받거나 않았을까 하여 때때로 깊은 슬픔이 그의 영혼을 휩쓸었다. 바울은 후에 기록하였다.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충실한 사자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들어 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에 비난이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실제적 경건을 위해 능력 있는 감화를 끼쳤다.

사도는 기쁨에 충만하여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른 편지를 보내어 그들 중에 일어난 선한 사업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의 말이 멸시를 받거나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였을 때 사도는 때때로 그가 것처럼 단호하고 혹독하게 편지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

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개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보았다고 선언한 열매는 이와 같은 열매였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였는가!

[325]

얼마 동안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영혼의 부담, 곧 너무나 무거워 그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그의 감화를 없이하고 복음의 진리 대신에 자신들의 교리를 강권하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을 둘러쌌던 난국과 실망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근심의 원인은 제거되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가 가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이라.”

바울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남에 대하여 그의 기쁨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과 생애의 변화에 대한 찬양을 모두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부르짖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귀로에 포로의 행렬을 데리고 함께 오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다. 이런 경우에 항불 드는 사람이 임명되었고 군대가 의기

[326]

양양하게 고국으로 행진할 때에 향기로운 냄새는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진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처형당할 때가 가까움을 고하였으나,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은총을 입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포로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저희가 놓임을 받게 될 때가 가까움을 알려 주었다.

바울은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고린도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은 것을 알고 찬양의 말로 그의 마음의 감사를 토로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구주께 대한 지식을 넓히려는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와 진리의 원수들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할 것이었다. 향처럼 복음의 향기는 온 세계에 유포되어야 하였다. 그 기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고 불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327] 바울은 사업의 압도적인 방대함을 깨닫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부르짖었다.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하늘의 기별이나 그 기별자를 멸시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신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엄숙한 책임에 대한 감명을 주고자 하였다. 순결하고 언행이 일치한 생애로써 말씀을 전파하는 데 충실하는 것만이 목사들의 노력을 하나님께 가납되게 할 수 있으며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사업의 위대함을 깨닫고 번민하는 오늘날의 목사들도 사도처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자화자찬하였다고 그를 비난한 자들이 있었다. 사도는 이제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동기를 판단하였는지 물음으로 이 일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묻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였다. 새로운 지방으로 이사하는 신자들은 흔히 그들이 전에 연합하였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었으나, 이들 교회의 설립자들인 지도적 일꾼들은 이와 같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우상숭배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고린도 신자들 그 자체가 바울이 필요로 한 바로 그 추천서였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시킨 것은 바울의 수고가 충실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의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증거였다.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을 그의 추천서로 생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이다. 그가 사도라는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신다. 목사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목사들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증거한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을지라도 능력 있고 거룩한 목사들, 곧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크게 부족하다. 교만, 자신(自信),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험담, 신랄함,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이다. 구주의 생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생애는 종종 사람들이 그의 목회 활동을 통하여 회개하였던 그같은 봉사의 성격에 대하여 슬픈 증언을 한다.

사람이 복음의 유능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가납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인정한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케 하셨”다고 말한다.

참된 목사는 주님의 사업을 한다. 그는 그의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유지하셨던 것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죄인들을 보다 고상하고 높은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의 입술은 제단에서 핀 솟으로 지저졌고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높인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열렬하고 효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렸음을 안다. 성

[328]

[329]

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영혼은 활력 있는 하늘의 불을 느꼈으며 그는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깊어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묻게 된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330]

사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위임된 거룩한 위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미하였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와 그의 형제들은 고난과 고통과 위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었다. 그들은 청중들의 바라는 바에 맞도록 그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변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을 숨기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고 영혼들의 누우침과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되게 하여 제시된 진리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좋은 인상을 주도도록 하였다.

사도는 계속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곤궁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만유 위에 계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함에 있어서 이기적인 동기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의 길이 시련과 시험에 둘러싸였던 까닭이었다.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꺾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자들로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위험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상기시켰다. 저희가 당한 고생들은 그들의 힘을 쇠약하게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다. 이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궁핍과 수고를 통하여 육체적 고통을 당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은 고린도인들에게 영적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그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태만과 불만으로 사역자들의 부담과 시련들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1]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믿는고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하였다. 그에게 위탁된 진리의 본체를 완전히 확신하였으므로 아무것도 바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위로 다루거나 그의 영혼의 확신을 취소할 수 없었다. 바울은 세상의 여론에 따라 재물이나 명예나 향락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였던 신앙 까닭에 비록 끊임 없는 순교의 위험을 당하였으나 그는 겁내지 아니하였다. 이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부식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들을 인도하여 [332]

이 사업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하게 한 것은 영혼 구원의 소망이었다. 위험을 당하거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노력을 그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소망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원수의 세력을 느꼈으나 그의 체력이 기울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충실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십자가의 영웅은 투쟁 가운데 전진하였다. 그의 환호성은 그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였다. 충성한 사람들의 보상을 주시하면서 그는 승리의 음조로 부르짖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들의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새로이 생각하라는 사도의 호소는 매우 열렬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였다. 그대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높은 데서 몸을 낮추셨으며 당신께서 얼마나 깊은 굴욕에까지 내려오셨는지 알 것이다. 한번 극기와 희생의 길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셨다. 보좌와 십자가 사이에는 그분을 위한 휴식처가 없었다.

[333]

바울은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구주의 경이로운 겸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자세히 말하였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셨을 때 그분처럼 천사들의 충성을 받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그분께서 가장 깊은 겸비에까지 도달하셨던 경로를 자세히 말하였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이기심은 그들의 생활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원하여 자신을 인성의 상태에 복종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희망과 기쁨과 하늘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보여 주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본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본다. 다만 비탄과 절망만 가져올 것처럼 보인 복수의 구름은 십자가에서 반사된 빛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록을 나타낸다. “죄인이여, 살지어다 살지어다! 너희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여, 살지어다! 내가 대속하였노라.”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를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일 4:10, 3:1).

[334]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역시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32장 너그러운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최초의 편지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관하여 신자들에게 교훈하였다. 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수고에 관하여 기록함에 있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는 다시 물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7~14).

사도는 여기서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거룩한 직무에 구별된 이들은 저희가 영적 축복을 베푼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부양을 받았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히 7:5)다. 레위 족속은 성전에 속한 거룩한 임무와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주님께에서 택함을 받았다. 제사장에 대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신 18:5)고 하였다.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셨으며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을 주께서는 도적질로 간주하셨다.

바울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것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이 계획이었다. 그 후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딤후 5:18)고 말하였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여러 가지 예물과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세하셨다. 유대 제도 아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양면에 있어서 관대한 정신을 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특별한 경우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들이 있었다.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는 때에 들의 처음 익은 열매-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는 여호와께 헌물로 성별되었다. 밭의 구석에 있는 것들과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 두었다. 양털을 깎을 때 털의 처음 수확과, 밀을 타작할 때 곡식의 처음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역시 그렇게 하였고 처음 난 아들을 위하여는 속전을 지불하였다. 처음 열매들은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하였고 그 후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드러졌다.

[337]

이 자선 제도로 여호와께서는 범사에 당신이 첫째가 되셔야 함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토지와 양떼와 소떼의 소유주시며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보내어 곡식이 자라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였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며 그들은 소유의 청지기에 불과하였다.

유대 민족보다 훨씬 우월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드린 것보다 덜 너그러우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아니다. 구주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눅 12:48)라고 선언하셨다. 히브리인들에게 요구된 너그러움은 주로 저희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은 온 세상에 확장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복음의 보화를 두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기별을 세상에 전할 책임을 지우셨다. 실로 우리의 책임은 고대 이스라엘의 책임보다 훨씬 크다.

[338]

하나님의 사업이 확대되면 도움의 요구는 더욱더 빈번하게 될 것이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말 3:10)라는 명령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십일조와 헌금들을 충실히 가져 온다면 그분의 창고는 넘칠 것이다. 그 때에는 복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얻으려고 바자회나 복권 뽑기나 오락회에 호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방종, 식욕의 만족, 몸의 치장, 집의 장식에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목적을 위하여 마음대로 한층 과도하게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주의 창고에 드리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그들은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가 없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흔히 불필요한 방종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아까운 듯이 나누어 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렬한 흥미도 나타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생애가 위축되고 병적인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인간에게 위임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사업 곧 선과 자비와 진리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다.

[339]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는 것은 탐욕의 정신이며, 이같은 정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8, 9)는 말로 당신의 백성을 엄중히 책망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분께서는 가증하다.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비심에 호소할 것이다. 거기서 예증된 원칙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

한편 이기심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속인들의 생활에서 예증된 원칙은 받고 또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속인들은 행복과 안일을 얻고자 하나 그들이 심은 열매는 비참과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그치신다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 속한 부분만 여호와께 돌려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 곧 너그러운 헌물을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의 처음 열매, 곧 그들의 가장 좋은 소유물들,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봉사를 창조주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을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댄 동산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대수확을 거둘 때, 저희가 주께 가져올 수 있는 단들은 저희가 받았던 달란트들을 이기심 없이 사용한 데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340]

활동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동정적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自費)로써 싸움에 나아가도록 강요받아서 결코 안 된다. 목회 사업에 투신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속적 직업을 버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접하는 것은 교인들이 할 바 일이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용기를 얻을 때 그분의 사업은 크게 진전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이 철회될 때 그들의 손은 약하게 되고 흔히 그들의 유용성은 크게 해를 입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헌신한 교역자들이 활동적인 목회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생활필수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주의 돈을 악용한 데 대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당신의 충실한 종들의 의기를 소침하게 하고 또 상심하게 한 데 대하여도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목회 사업에 부르심을 받고 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종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 희생에 대하여 자신들과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세속적 사업에서는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충실한 일꾼들은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업은 어떠한 보통 직업보

[341]

다 더욱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에 충실히 종사하는 이들은 정당하게 충분한 급료를 받을 만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도덕적인 복리와 육체적인 복리를 위한 수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지상의 것에 대비하여 하늘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어야 한다.

목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교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에 응하기 위하여 금고에 자금이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바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필요를 교회 앞에 제시하고 교인들이 너그럽게 되도록 교육시켜야 할 엄숙한 책임이 목사들에게 놓여 있다. 이 일을 등한히 할 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주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 주의 사업이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올 축복도 철회된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욱 곤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부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선물, 곧 극기의 열매는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리고 자기희생의 모든 행위는 주는 자의 마음에 자비의 정신을 굳게 하고, 본래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당신의 빈곤을 통하여 부요하게 하신 분과 더욱 가까이 연합하게 한다.

[34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부인 두 렵돈을 연보궤에 넣은 과부의 행위는 빈곤과 싸우면서도 그들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주의를 이 여인에게 집중시켰는데 여인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막 12:44)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연보를 극기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연보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들은 풍부한 중에 적은 것을 드렸다. 그 과부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비까지라도 드렸으며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구주께서는 여인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막 12:43)고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목회 사업을 할 때, 새로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고취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때때로 그는 관대함을 행사하도록 그들을 권유하였다. 그는 그들 중에서 행한 그의 이전 수고에 관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언급하면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행 20:35; 고후 9:6, 7)고 편지하였다.

마게도냐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 세상 물질에는 가난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흘렀다. 그들은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바쳤다. 유대의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금을 할 때 마게도냐의 회심한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다른 교회에 모본이 되었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들의 주의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돌리면서 말하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후 8:1~4)였다고 하였다.

[343]

마게도냐 신자들이 행한 자원하는 희생은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고후 8:5) 그 후에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바쳤다. 그들에게 바치도록 간청할 필요가 없었으니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필수품까지라도 부정하는 특권을 기뻐하였다. 사도가 그들을 제지하려 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헌금을 받으라고 끈질기게 졸랐다. 그들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단순성과 성실로 즐거이 자아를 부정하였으므로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였다.

[344]

바울은 그 곳 신자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고린도에 보낼 때 그 교회를 베품의 은혜 가운데 세우도록 디도에게 교훈하였으며 신자들에게 보낸 그의 사신(私信) 가운데서도 역시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후 8:7, 11, 12, 9:8~11).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의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345] 영적 변영은 그리스도인적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구주의 자비심을 나타낼 특권에 대하여 기뻐하여야 한다.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은 그의 재물이 그들보다 앞서 하늘궁정으로 간다는 보증을 가진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가? 그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는 손에 그것을 두게 하라. 그들이 그들의 물질로 기쁨을 누리하고자 하는가? 그들로 곤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라. 그들이 저희 소유를 증가시키고자 하는가? 그들로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 3:9, 10)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라.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銘刻) 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사 32:20)고 하신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업이 나 인간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은 빈곤에 빠지게 하지 아니한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24). 씨를 뿌리는 자는 그의 씨를

뿌림으로 그것을 증가시킨다.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충실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고 약속하셨다.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업의 정당한 유지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주의 깊게 제시하고 자신이 복음의 목사로서 자양의 방편으로 세속적 직업에서 “일하지 아니할 권”(고전 9:6)이 있음을 주장한 반면에, 문명의 대 중심지에서 목회 사업을 하던 여러 해 동안 그는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공업에 하였다.

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이상하거나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근면한 습관을 기르도록 훈련하라는 교훈을 받았으며 젊은이가 육체노동을 모르고 자라게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였다.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까지라도 실생활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의 부모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모든 청년들은 어떤 일을 배웠다.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이와 같은 훈련을 준비하기를 게을리하는 부모들은 여호와의 교훈에서 떠나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 바울은 이 풍속에 따라 일찍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데 그의 재물을 모두 사용해 버렸을 때 그는 때때로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에 의존하였다. 특별히 그의 동기가 오해를 받을지도 모를 곳에서 수고할 때 그러하였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위해 손으로 일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능히 꾀를 끼칠”(살전 2:6에 대한 난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 2:9). 그리고 다시 그는 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

렇게 편지하였다. 밤낮 우리가 일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살후 3:8, 9).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그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하는 동안 그런 사람들 앞에 올바른 모본을 보이고자 유의하였다. 그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1, 12, 10)고 편지하였다.

[348]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교회 중에 광신의 정신을 도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노력을 해하고자 하였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여러 세기 후인 종교 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위클리프와 루터와 그리고 그들의 감화와 신앙으로 세상을 축복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이 과도하고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광신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수의 간계에 직면하였다.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참된 성화애의 도달은 마음을 모든 세속적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절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현세적 행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영적 사물에 헌신해야 하므로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본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한 일종의 견책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생계를 그의 손으로 유지하는 노동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후에 그 도시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거기 있는 동안 그들에게서 받은 선물에 대하여 인정하고 빌립보 신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빌 4:16)고 말하였다. 그는 이 도움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앞에 근면에 대한 모본을 보여 아무도 그를 탐욕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난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수공업에 관하여 광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실제적으로 견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이 행하였다.

[349] 바울은 처음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외국인들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안에 있는 헬라인들은 민첩한 상인들이었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빈틈없는 상거래를 통하여 자신들을 훈련하였으므로 그들은 이익은 곧 선이고, 옳은 방법으로건 부정확한 방법으로건 돈을 버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바울은 그들의 성격을 잘 알았으며 그들에게 자신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마땅히 고린도 청중으로부터 급양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목사로서의 그의 유용성과 성공이 그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부당한 의심으로 손상 받지 않기 위하여 이 권리를 자원하여 버렸다. 그는 그의 기별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오해의 모든 계기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사람이었다. 이들은 바울과 “업이 같”았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으며 거기서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업에 착수하였다. 바울은 그들에 관하여 문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들이 둘러싸여 있는 부패케 하는 감화를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행 18:2~4)였다.

[350]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연합하였다. 이 형제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오는 자금을 가지고 왔다.

그 곳에서 굳건한 교회를 세운 후 기록한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가 그들 중에서 생활한 방법을 회고하였다. 그는 묻기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서 나의 이 자량이 막히지 아니하리라”(고후 11:7~10)고 하였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왜 이 방법을 따랐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한다. 이는 그가 “기회를 찾는 자들”(고후 11:12)에게 비난의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한편 또한 복음 선포에 충실히 일하였다. 그는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고후 12:12~15)한다.

에베소에서의 그의 오랜 목회 사업 기간에 그 지역 구석구석까지 3년간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한 바울은 다시 그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에베소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함으로 기쁨을 누렸다. 그들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끝인 아시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였다.

[351]

바울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복음 교역자의 사업에 모순된다고 말하였다. 왜 가장 계급이 높은 목사인 바울이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직공이 하는 일과 결부시켜야 하는가? 일꾼은 그의 삶을 받을 만하지 아니한가? 왜 그는 모든 상황에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이 소비한 시간을 손실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일할 때 크신 교사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구주를 위하여 증거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지식에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영적사물에 대한 교훈을 주었고 또한 근면과 안전에 대한 모본을 보였다. 그는 민활하고 재주 있는 일꾼이었고 사업에 근면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롬 12:11)였다. 사도는 그의 사업에 종사할 때 달리 접촉할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평범한 기술인 그 기술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선물과 그것을 빠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모두 제

[352] 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매일의 노동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쳤다. 일에 굳어진 그의 손이 그리스도인 목사로서의 그의 감동적인 호소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때때로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의 수입을 누가와 나누었고 디모데를 도와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때때로 굶주림까지 당하였다. 그는 무아의 생애를 살았다.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의 고별의 담화를 나누는 기회에 그들 앞에, 일에 거칠어진 그의 손을 쳐들 수 있었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3~35)고 말할 수 있었다.

만일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고통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로 하여금 상상 가운데 바울이 일하던 작업장을 방문하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장막을 만들 때 그가 사도로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라.

[353] 노작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다. 게으른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괴어 있는 웅덩이는 불쾌하나 맑고 흐르는 시냇물은 온 땅에 건강과 기쁨을 준다. 바울은 육체노동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은 곧 약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은 젊은 목사들에게 저희 손으로 일하고 근육을 활동시킴으로 전도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고와 궁핍을 견딜 만큼 강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알맞게 운동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가르침은 활력과 힘이 부족하였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게으른 사람들은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얻는 가치 있는 경험을 잃어버린다. 소수가 아니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써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만 소비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달란트를 가지고 현명하게 장사함으로 그들이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만일 그들이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도우시는 손으로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유용성은 그들이 사업에 착수하는 방법에 많이 달려 있다. 목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높으신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보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유능한 일꾼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경험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의 신성성을 깨닫고 자아수양으로 더욱더 그들의 주님과 같이 되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진리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달란트를 활용함에 열심을 나타낼 때 교회는 그들을 현명하게 도울 것이다.

[354]

그들이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교회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자신과 가족들을 일시에 교회에 맡기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정된 경험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편에서의 어떠한 신중한 노력도 없이 완전한 부양을 기대하게 하는 아첨과 현명치 못한 격려로 해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헌납된 재물이 다만 생활비를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따라서 안일한 생활에 대한 이기적인 야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재능을 목회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다른 곳에서의 바울의 모본에서 도움이 되는 교훈을 찾을 것이다.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자였다. 특별한 사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결코 노동을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랑한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는 데 대하여 염려한 적이 없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전 4:11, 12)았노라고 편지하였다.

인간 교사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바울은 가장 천한 의무도 가장 높은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수행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환경이 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기꺼이 손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럼

[355] 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복음의 원수들의 반대에 대처하고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세속적 사업을 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그의 열심과 근면은 게으름과 안일을 갈망하는 데 대한 한 견책이다.

바울은, 복음은 육체적인 수고의 필요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당시 교회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생각과는 반대되는 모본을 세웠다. 그는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여러 곳에서, 헌신한 평신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증하였다. 그의 행위는 그들이 매일의 노동으로 자신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시켰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전파 사업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꾼들을 쓰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히 보여 주게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치도록 택하심을 받는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손이 안수한 적은 없었으나 영혼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자급 전도인들 앞에는 넓은 일터가 열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일부를 어떤 형태의 수공업에 바치는 한편 전도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중대한 봉사를 할 강력한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다.

[356] 끊임없이 말씀과 교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의 일에 있어서 보수가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는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의무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는 그의 사명을 하늘에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업을 마칠 때, 보수를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본다.

이러한 일꾼들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후 4:15)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을 순종할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불필요한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히 활동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반면에, 세속적인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충실한 교역자들이 비록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신들까지 허비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교회가 그들에게 정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지를 당하고 고통으로 변민할 때 어떤 이들은 시험하는 자에게 맹렬하게 포위된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가 매우 경하게 평가되는 것을 볼 때 의기가 저상된다. 그들이 공정한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는 심판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그들의 가족에게는 음식과 의복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거룩한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저희 손으로 노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곧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려는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울의 모본을 따라 목회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한편, 한동안 수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견고하고 확실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도 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느끼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근심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의 노력에는 변영이 따를 것이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계만방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을 지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주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 전진하라고 명하신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다.

[358]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포도원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주님의 일꾼의 정신으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금이 그들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너그러이 바칠 것이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요구에 대하여 관대히 응답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국의 선교지뿐 아니라 외방 선교지에 있는 주님의 사업을 지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힘이 이를 것이며 주의 사업은 당신의 정하신 방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불드심으로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의 이상(理想)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으로써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선두에 서셔야 하였다. 그분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아래 있었다. 그분은 만민을 섬기시고 만민에게 봉사하셨다.

예수께서는 거듭거듭 이 원칙을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자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을 간청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6~28)고 말씀하셨다.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업을 진전시키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봉사하신다. 교회의 머리되신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로 일하도록 임명하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감독하신다.

[360]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탄원해야 한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이다. 그들의 사업은 파수꾼들의 직무에 비유되었다. 옛날에는 파수꾼들이 흔히 성벽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그 요지에서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

의 접근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었다.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은 서로 연락해서 모두 깨어 있는지 아무도 탈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쁨의 부르짖음이거나 경고의 부르짖음이거나 간에 서로 전달하여 온 성에 메아리칠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반복하였다.

주께서는 모든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과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면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겔 33:7-9).

[361]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선언한다. 그들은 과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발하여야 한다. 영혼들은 시험에 빠질 위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한 멸망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영적 감각이 위험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되어 경고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당신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과수꾼들의 특권이다. 과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들의 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사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샅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 치심을 받았으므로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목사는 그의 사업의 신성성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고와 희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궁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는 잃은 양을 찾음에 있어서 자신이 피로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한다. 그의 한 가지 목적 곧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362]

임마누엘의 피묻은 깃발 아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웅적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은 단호하게 싸움터의 맨 선두에 선다. 원수가 공격을 가할 때,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요새로 향하며 그가 주께 말씀의 약속을 가져갈 때 당면한 의무를 행할 힘을 얻는다. 그는 위에서 오는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가 얻은 승리는 그로 하여금 자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이에게 더욱더 굳게 의지하게 한다. 그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별을 매우 힘 있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친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깨어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는 여기에 능력과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사의 노력에 그의 설교의 감화보다 더욱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이 능력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는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자신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그의 입술에 숯불을 닿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영원한 실재를 붙잡는 일은 종종 너무도 미약하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세 반석의 틈에 숨기실 것이다. 이같이 감추어지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판단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다.

[363]

사단의 술책은 의기저상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데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된다. 낙담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할 때에 그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신뢰한 것은 하늘이 낮처럼 바울을 덮은 때였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바울은 고통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과 투쟁으로 둘러싸여 그의 발이 하늘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가 외친 다음의 승리의 부르짖음을 들

어보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7, 18).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다.

[364] 목사는 그가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과 자유롭게 섞여서 친숙하게 됨으로 그의 가르침을 그들의 필요에 적응시킬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목사는 신자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열렬하고도 겸손하게 그들과 담화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 그들에게 보다 높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접촉하지 못할 가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화되어 고통하여야 한다.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는 명령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목사들은 저희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촉하여 그들의 가정에 진리를 가르치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영적 능력으로 옷 입히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업에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청중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처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행 20:27, 20, 21)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특권이다.

구주께서는 집집을 방문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더시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피로한 어머니들에게 희망과 안위의 말씀을 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친절과 온유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인간의 재난과 고통에 대처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은 만민의 종이셨다. 당신께서 접촉하려고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공급하는 일이 당신의 양식이요 물이었다. 남녀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전이나 신조와는 매우 다른 진리를 그분에게서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샘솟았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확신케 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열성이 있었다.

[365]

하나님의 목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을 배워 그분의 말씀의 창고에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끊임 없이 받고 계셨던 교훈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구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지식의 근원과 능력의 비결이 되어야 한다.

목회 사업에 수고한 어떤 이들은 주의 사업에 그들의 관심을 온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얻지 못하였다. 목사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일에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목사들이 큰 개인 기업체에서 중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받으실 만한 사업을 행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열은 그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한다. 세속적 사물이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는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맞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사업을 그들의 환경에 따라 끌 짓고자 노력한다.

목사의 정력은 모두 그의 고상한 소명에 필요 된다. 그의 최대의 능력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목사는 큰 사업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할 투기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에도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4). 이와 같이 사도는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한 목사의 무조건적인 헌신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목사는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신을 충분히 바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를 거절한다. 목사는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자 자신을 버리신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의 최고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재물을 저축하려는 것이 아니요, 무관심하고 불충실한 사람들의 주목을 영원한 실체어로

[366]

이끄는 것이다. 목사는 큰 세속적 이익을 약속하는 기업에 중사하라는 요청을 받을지 모르나 그런 유혹에 대하여 그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라고 대답한다.

사단이 이와 같은 유혹을 그리스도께 제시한 것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세계는 결코 구속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다른 가면을 쓰고 오늘날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동일한 유혹을 제시한다. 이는 그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67] 하나님의 목사들이 부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교훈은 물론 모본으로써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딤후 6:10, 11, 17~19)다.

사도 바울의 경험들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그의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그의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 생존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다. 그는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는 어디서든지 악을 시정하고 남녀들의 발을 의의 길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였다. 선교적 여행을 한 후 그와 바나바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저희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복음 전도에 연합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사업에는 오늘날의 목사들을 위한 중대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다. 사도는 복음 전도의 직무를 맡도록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삼았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으므로 그들은 후에 그들로 책임이 무거운 직분을 맡을 수 있게 한 경험을 얻었다. 그들과 헤어졌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의 사업과 접촉을 유지하였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그들의 성공을 얼마나 갈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368]

오늘날 경험 있는 교역자들은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지울 때 고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지워진 책임을 잊지 않았으며 만일 자신의 불충실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문책하시리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였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5~29).

이 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 앞에 달성해야 할 높은 표준을 제시하지만, 이 표준은 자신들을 크신 교사의 지배 하에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들은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수반되는 능력에는 한정이 없다. 자신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주 안에 자신을 감추는 목사는 청중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어떤 것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369]

바울의 기록은, 복음의 목사는 그가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본이 되어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3, 4~10).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딤후 2:6~8).

[370] 추수를 고대하면서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아가는 당신의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당신의 종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의 그 열망을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영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까지라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잃어버린 사람들의 요구에 감동을 받아 우상 숭배자들과 야만인들 중에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락한 가정과 친구들과의 교제와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중도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업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고 슬픔 중에 뿌린 씨는 많은 수확을 가져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널리 퍼졌고 십자가의 깃발은 이방 나라들에 세워졌다.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목사는 그의 재능을 전부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

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아흔아홉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진실한 목사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과 힘이 투자되고 수고로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영혼에 그와 같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온 진리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높이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끝까지 그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섞인 초청과 호소로써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그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계 17:14)로 계수한다.

[371]

35장 구원이 유대인에게

바울은 많은 불가피한 일로 지체한 후, 마침내 과거에 매우 열심히 일한 곳이었으나 한동안 깊은 염려의 대상이었던 고린도에도 도착하였다. 그는 초창기의 신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전히 최초로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제자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성실과 열심의 증거를 보았을 때 그는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업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였다.

한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높은 부르심을 것처럼 쉬 잊어버릴 듯하던 고린도 신자들은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계발하였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시킨 능력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이제 이교와 미신의 중심지에서 선을 위한 강한 군대가 되었다.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이 충실한 회심자들과의 교제에서 사도의 피로하고 혼란한 정신은 안식처를 찾았다.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바울은 새롭고 넓은 봉사의 일터를 바라볼 시간을 얻었다. 특별히 로마로 여행하려는 의도가 그의 생각을 차지하였다. 알려진 세계의 대중심지에 그리스도교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일이 그의 최대의 소망이요 가장 소중히 여겨 온 계획 중의 하나였다. 한 교회가 이미 로마에 세워졌으므로 사도는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에 그곳 신자들의 협력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게는 생소한 이들 형제들 가운데서 일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어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과 스페인에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알렸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복음의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들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진술하였으며 한때는 특별히 유대인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제공된 소망과 약속들을 보여 주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고도 능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는 다른 교회들도 로마

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교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으나, 그는 그의 말의 원대한 감화를 얼마나 희미하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던가!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루터의 마음을 싸고 있던 흑암을 흠어 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동일한 빛은 죄짐을 진 무수한 영혼들을 용서와 평화의 참 근원으로 인도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374]

바울은 이 편지에서 유대인을 위한 그의 책임에 대하여 기탄없이 표현하였다. 그는 회개한 후 언제나 그의 유대인 형제들을 도와 복음 기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고자 갈망하였다.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선언하였다.

바울의 바라는 것은 평범한 소망이 아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확신 있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이 선지자들은 당신을 제일 먼저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했어야 할 자들에게서 거절과 죽음을 당하실 구속주의 초림을 예언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는 수 세기를 내다보고 선지자들이 차례로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구속주를 받아들일 것에 관하여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 이 예언을 언급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사야가 때

[375]

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비록 이스라엘은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바울의 계속되는 논증을 들어보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비틀거리 넘어졌으나 이것은 그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라는 질문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376] 당신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분명히 개괄되어 있다. 사도는 그의 논증 가운데서 이 예언들의 얼마를 사용한다. 그는 묻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바 공훈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

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한다.

한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로서 상당히 많은 무리가 그들 중에 남아 있었다. 구주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이 연구하게 된 충실한 남녀들이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들이 그의 강림을 갈망해 온 분으로 인정한 충실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바울이 편지할 때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한 것은 이 남은 무리에게 한 말이다.

[377]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를 그 가지의 얼마가 부러진 고상한 감람나무에 비유한다. 그는 이방인을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비유한다. 바울은 이방인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에 대한 하늘의 목적을 불신하고 거절 하였으므로 한민족으로서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이스라엘의 참줄기 곧 저희 조상의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한 남은 무리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하셨다. 사도는 이 꺾여진 가지들에 대하여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언명한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

[378]

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379]

이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을 똑같이 변화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사야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은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황폐되었을 때 무수한 유대인들은 팔려가 이교의 나라에서 종이 되었다. 적막한 해안에서 조난을 당한 것처럼 그들은 열국 중에 흩어졌다. 일천팔백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계의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하였고 아무 곳에서도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옛 명성을

다시 찾을 특권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비방과 증오와 박해를 당하였으며 대대로 고통을 물려받았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였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한 민족으로서 무서운 운명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를 통하여 조용히 고통을 참은 고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유대인 남녀들이 존재해 왔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무서운 상태를 동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의 기도를 들으셨다. 어떤 이들은 저희 조상들이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를 찾게 되었다. 이미 알고 있었으나 유전과 그릇된 해석으로 매우 오랫동안 모호하였던 예언들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 찼다.

[380]

이사야가 그의 예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무리에 대한 것이다. 바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부르짖었다. 사도는 자신을 유대인에게 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빛진 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소유한 결정적인 이점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유효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목사들 가운데는 유대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나 때때로 돌보지 않고 버린 사람들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희망의 기별이 전달되어야 한다.

[381]

복음 기별의 마지막 선포에 있어서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계층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업을 해야 하는 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이 세상 각처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신다. 여호와와의 영원한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합할 때 이것은 많은 유대인에게 새로운 창조 곧 영혼의 부활의 아침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복음 시대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여러 페이지에 묘사된 것을 보고 신약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지를 깨달을 때 그들의 잠자던 기능은 일깨움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계의 구주로 인정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영접할 것이다.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요 1:12)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유대인 중에는 다소 사람 사울처럼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팔이 짧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종들이 오랫동안 버려두고 멸시하여 온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할 때에 그분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38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사 29:22~24).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감화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육욕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전과 혼합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의 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였다.

사태는 위급하였다. 들어온 악은 신속히 갈라디아 교회들을 멸하려고 위협하였다.

바울은 그에게서 복음의 원칙들을 충실히 배운 자들 중에서 생긴 이같은 공공연한 배도로 마음이 상하였으며 그의 영혼은 흥분되었다. 즉시 그는 기만당한 신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견책하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바울은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견책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였고 성령께서는 그의 수고를 증거하였으니 그런고로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지 말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였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최초의 경험을 주의 깊이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는 부르짖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385] 이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신도들을 그들 자신의 양심의 심판대 앞에 고발하였고 그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배도한 교사들의 교리를 인정하기를 거절함으로 사도는 회심자들에게 그들이 크게 기만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에 돌아옴으로 그들이 사단의 목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진리와 의의 편에 굳게 섰으며 그가 전한 기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과 확신은 믿음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 구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시켰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대하는 방법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태도와는 얼마나 달랐는가! 그는 고린도인들을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책망하였으나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엄중한 견책으로 대하였다. 고린도인들은 유혹에 넘어 갔었다. 오류를 진리로 가장하여 제시한 교사들의 교묘한 꾀변에 기만을 당하여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다.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에는 조심과 인내가 요구되었다. 바울이 가혹하게 하였거나 지각없이 서둘렀다면 그가 도와주고자 원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감화를 소멸시켰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는 공공연하고 정체를 드러낸 오류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다.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낱아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도들이 저희를 위협한 위협한 감화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가장 신랄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386] 모든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그들이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자기의 노력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친절, 인내, 결단, 확고함이 모두 필요하나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자신의 회개와 초기 그리스도인 경험과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회고하였다. 그는 이 방법으로 그가 복음의 대진리를 깨닫고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바울이 것처럼 엄숙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사람을 경고하고 권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를 통하여 된 것이었다. 바울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한 신념과 절대적인 지식의 보증을 가지고 편지하였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개괄(概括)하였다.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따랐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교리에 기초를 둔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다.

[387]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같은 유대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한다. 사도 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 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의 신뢰심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의 지위를 훌륭하게 옹호하였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밋 죽은 자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은 그의 사명을 받았다. 바울의 지위는 그가 이방인 중에서의 모든 수고에 응한다는 결정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388]

이와 같이 바울이 그의 사도 직분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고자 함이었다. 바울의 소명과 사업을 얽잡아 보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의 원수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도는 그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한때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다. 논박할 수 없는 논증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남녀가 되는 특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다. 바울은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의 열렬한 호소는 결실이 없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제 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에 확고 부동하였다. 그들의 생애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그 지방 각 곳에서 신자의 수효가 많이 증가하였다.

바울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심히 바랐는데, 이는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올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자 함이었다. 바울은 항상 믿지 않는 자국 민들이 귀중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 교회들이 유다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전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그는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 사이에 공고한 연합이 이룩되기를 희망하였다.

고린도에서 사업을 마친 후 바울은 팔레스틴의 해안에 있는 어떤 항구로 직접 향해해 가고자 결심하였다. 모든 준비를 갖추어 배에 오르려고 하였을 때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에도 이 신앙의 반대자들은 사도의 사업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다.

[390]

복음 전도에 따른 성공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새로이 일으켰다. 각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교리의 전파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의문의 율법의 의식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동등한 특권들을 받는다고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의 편지들에서 것처럼 힘 있게 주장한 동일한 논증을 제시하였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골 3:11)다는 그의 힘 있는 진술을 그의 원수들은 대담한 참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음모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유월절 예배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오순절에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랐다.

바울과 누가를 동행한 이들은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바

울은 이방 교회들이 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유대의 사업에 책임을 진 형제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므로 연금을 낸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준비하였다.

[391]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빌립보에 머물렀다. 누가만 그와 함께 남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드로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렸다.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가 회심시킨 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는 8일간의 절기 동안에 그들과 평화스럽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다.

벧길로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누가는 5일 후에 동료들이 있는 드로아에 도착하여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유하였다.

그가 체류한 마지막 날 저녁에 형제들이 “떡을 떼려” 함께 모였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을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통 때보다 많은 무리를 모이게 하였다. 그들은 삼층 “윗다락”에 모였다. 사도는 그곳에서 그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염려로 열심을 내어 밤중까지 설교하였다.

열린 창가에 유두고라 이름하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곧 혼란이 일어났다. 그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놀란 무리들을 헤치고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 위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다. 신자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윗다락에 모였다. 그들은 만찬을 들었고 그 후에 바울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

[392]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배가 출항하려 하므로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아와 앓소 사이의 가까운 육로를 택하였고 앓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 관련된 어려움과 위험들,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곳 교회의 태도, 또한 다른 지방에서의 교회들의 상태와 복음 사업에 대한 관심 등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고 근심스럽게 생

각하는 주제였고 그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다.

여행자들은 앓소에서 남쪽으로 향해할 때 사도가 매우 오랫동안 일한 곳인 에베소 도시를 지나갔다. 바울은 그곳 교회를 방문하고자 심히 갈망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중대한 교훈과 권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 그는 서둘러 여행을 계속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는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함이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삼십 마일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하자 바울은 배가 떠나기 전에 교회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장로들에게 기별을 보내어 그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밀레도에 급히 오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부름에 응하여 그들은 왔고 그는 힘차고 감동적인 권고와 고별의 말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다. 그는 율법에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형벌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행악자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일으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며 또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대언자로 아버지 앞에 서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였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

[393]

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 증언을 하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동안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것이 에베소 형제들과의 최후의 모임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의 염려를 확증시켰다.

[394]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반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정이나 갈채를 얻으려는 바람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교훈과 경고와 시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억제하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훈을 실행하는 데 담대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최고의 기쁨을 주는 진리만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고통을 일으키는 다른 진리들은 억제해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는 품성의 계발을 깊은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그의 양무리 중 어느 하나가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충실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경우에 적합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그들이 자의로 행하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높으신 이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목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든 점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을 충실히 교훈하고 그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설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진리를 충실히 가르친 자만이 그의 사업이 마칠 때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중대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양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 자신들의 모본이 그들의 교훈을 설명하고 굳게 해야 한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그들은 진리가 악평을 받게 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들은 헌신

[395]

과 순결한 생애와 경건한 말로 그들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증거하여야 한다.

에베소 교회를 엄습하게 될 위험들이 사도에게 알려졌다. 사도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좃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안팎의 원수들에게 당해야 할 공격을 보고 교회를 위하여 몹시 걱정하였다. 그는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깨어 그들의 거룩한 임무를 지키라고 형제들에게 명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행한 자신의 불요불굴의 수고를 예를 들어서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말을 계속하였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에베소 형제들은 부자였으나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기별 가운데는 자신의 필요를 호소하는 부분이 없었다. 그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힘에 겨운 수고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여행 중에서도 그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을 부양하고 매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는 끊임없는 근면과 가장 철저한 절약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에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모본을 지적할 수 있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9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행자들은 밀레도에서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소아시아 서남 해안에 있는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배가 짐을 푸는 두로에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 그들

과 함께 칠일 동안 유하였다.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고통과 투옥에 대한 공포도 사도로 하여금 그의 목적인 바를 돌이키게 하지 못하였다.

두로에서 보낸 그 주일의 끝에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바울을 전송하러 배에까지 왔고, 그가 배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였다.

[397] 서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한 여행자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일곱 집사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였다. 거기서 바울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몇 날을 보내었는데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누리기를 바란 완전한 자유의 마지막이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체류하는 동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고 하였다고 말한다.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도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떼쓰기를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말할 뿐이었다.

얼마 후 가이사랴에서 체류하던 짧은 기간도 끝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몇몇 형제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가올 불행에 대한 예감으로 깊이 그늘져 있었다.

[398] 사도가 그토록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간 적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는 친구는 적게, 원수는 많이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죽인 성읍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조가 머물러 있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자신

의 편견이 얼마나 신랄하였던가를 회상한 바울은 기만을 당한 그의 동포들에 대하여 가장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과 똑같은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대적하는 온 국민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불타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의 형제의 동정과 지지까지도 의지할 수 없었다. 그의 발자국을 것처럼 가까이에서 추적하던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와 그의 사업에 관하여 말과 편지로서 예루살렘에 가장 나쁜 소문을 유포시키기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도들과 장로들 중에서까지도 어떤 이들은 이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반박하고자 시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와 연합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낙담 중에서도 사도는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또한 그의 동포들의 마음에도 말씀하실 것이며 그의 동료 제자들이 사랑하고 섬긴 주님께서 머지않아 복음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연합시키실 것임을 믿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기회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의 사업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유대 형제들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보낸 연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이 연금을 모으기 위하여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시간과 애타는 생각과 끈질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예루살렘 장로들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은 이방 신자들의 큰 희생과 극심한 궁핍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자원하여 드린 연금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조직된 사업에 대한 이방 신자들의 충성의 표시이므로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였으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까지라도 선물을 드리게 한 형제다운 사랑의 정신에 감사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이 명백하였다.

[400]

이방인 중에 복음 사업을 행한 초창기에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은 이전의 편견과 사고의 습관에 매달려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다. 몇몇 무의미한 형식과 의식을 보존하려는 열망으로, 그들은 각처의 주의 사업을 하나로 연합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한 사업과 자신들에게 이르러 올 축복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 교회의 최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발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조를 같이하는 데 실패하였고 인간의 지혜로 교역자들 주위에 많은 불필요한 제재를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먼 지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당하는 변화되는 환경과 특수한 필요를 친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형제들에게 어떤 특정한 활동 방법을 따르라고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한 무리가 생겨났다. 그들은 마치 복음 전도의 사업이 그들의 의견과 일치하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다른 주요한 교회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취한 방법 때문에 일어난 난처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려 깊은 해결책을 제시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다. 이 회의의 결과로 형제들은 할례를 포함한 어떤 의식과 습관들에 관하여 교회들에게 명확히 권고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또한 형제들이 연합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모든 신도들의 충분한 신임을 받을 만한 일꾼들로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추천한 것도 이 총회에서였다.

[401]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이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담한 사도들이 취한 활동 방법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평을 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회기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넓어져서 그들은 전체 신자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형제들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증가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적 형제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방법에 대하여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편견을 새로이 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굳어져서 마침내 어떤 지도자들은 복음 전도 사업이 그들 자신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일 바울이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에 그의 방법을 일치시킨다면 그들은 그의 사업을 승인하고 지지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사업을 더 이상 호의를 가지고 우러러보거나 지원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교사이시므로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교역자들은 직접 지도를 받기 위하여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도자를 따르는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하며 그분의 일꾼들은 인간의 의견이 아닌 거룩하신 분의 형상을 좇아 풀 지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에서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가 선포한 진리는 성령이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시니라...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

[402]

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4, 10~13)고 바울은 선언하였다.

바울은 그의 전 목회 사업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였다. 동시에 그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맞도록 일하고자 매우 주의하였으므로 그 결과 교회들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행 16:5)였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이 자기를 흠족하게 동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회에 그가 유대 장로들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관대한 연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충성과 관용과 형제다운 사랑의 정신을 그가 회개시킨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의식하고 위안을 얻었다.

[403] 바울은 예물을 드린 후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날날이 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든 사람들, 더욱이 의심하였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그의 수고에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였다는 확신을 가져왔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그들은 이 사도가 취한 활동 방법에는 하늘의 인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 앞에 드린 너그러운 연금은 이방인들 중에 세운 새로운 교회들의 충성스러움에 관한 사도의 증언에 무게를 더하였다. 예루살렘의 사업을 책임진 사람들 가운데 포함된 자들 중에서 독단적인 통제 방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봉사를 새로운 빛 가운데서 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되었으며, 그들이 유대인의 습관과 유전에 속박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린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복음 사업을 크게 방해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으며 때때로 그들이 그의 원수들의 보고를 듣고 질투와 편견을 일으킴으로 과오를 범하였음을 모든 지도적인 형제들이 솔직히 자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해를 입은 사람을 공정하게 취급하려는 노력으로 연합하는 대신에 기존의 편견에 대하여 바울이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그들이 품고 있음을 나타내는 권고를 그에게 하였다. 그들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를 옹호하기 위하여 굳게 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의견으로는 오해의 모든 원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노선을 따르도록 그에게 권면함으로써 타협을 짓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증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였다.

[404]

형제들은 바울이 제시된 방법을 따르므로 그에 관한 거짓 보고에 단호한 반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에 대한 전번 총회의 결정과 의문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에게 확증하였다. 그러나 지금 준 충고는 그 결정과 모순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교훈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소심(小心)의 결과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유대인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핍박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산헤드린은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단체는 사도들 특히 바울을 추적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사람들을 택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산헤드린 앞에서 율법의 파괴자로 정죄함을 받을 때 유대 신앙의 배도자로서 신속하고도 엄격한 형벌을 받을 것이었다.

[405]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동포의 신임을 얻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 그들을 세계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너무도 현명치 못한 양보를 자원하였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 대해 편견을 품는 한 그들은 그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만일 그가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재가를 받지 못하였다.

[406]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바울의 큰 소망,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제일 강한 기둥의 하나를 잃었으며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

다음날 바울은 장로들의 권고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민 6장 참조)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였다. 아직도 결례를 위하여 상당히 값비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였다.

이 방법을 취하도록 바울에게 충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당하게 될 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로 가득하였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세상의 많은 대도시들을 방문하였으므로 외국 여러 곳에서 절기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무수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마음에 바울에 대한 통렬한 증오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 날 동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배자들 중에 출입하였으나 그 특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 그가 드려야 할 희생 제물에 관하여 한 제사장과 함께 담화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았다.

[407]

그들은 악마들처럼 격노하여 그에게로 달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라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도움의 호소에 응할 때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는 비난이 추가되었다.

유대의 법에 따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전의 앞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 범죄였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나타났었으므로 그가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으리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유대인인고로 성전에 들어간 그의 행위는 범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비난은 전부가 거짓이었지만 백성들의 편견을 자극하였다. 부르짖는 소리가 성전 온 마당에 들리자 거기 모인 군중들은 거친 흥분에 휩싸였다. 소식은 신속히 온 예루살렘에 퍼져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였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세계 각처에서 그곳에 와 있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한 배교자가 감히 성전을 모독한다는 사실은 폭도들의 감정을 가장 극렬히 자극하였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였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가 처리하였던 폭동의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였다. 소동의 원인은 몰랐으나 군중의 분노가 바울에게 향해진 것을 보고 로마 천부장은 그가 체포를 피하여 멀리 도망하였던 애굽인 반역자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두 쇠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였다. 즉시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높여 분노하여 고발하였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갔기 때문이었다.

[408]

소요 중에서도 사도는 침착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그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동포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막 영문 안으로 인도되려 할 때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루시아는 대답하기를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고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였다.

[409] 이 요구는 허락되어 “바울이 층대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였다. 그의 손짓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그의 태도는 존경심을 일으켰다. “크게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였다. 귀에 익은 히브리말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하였고 모두 조용한 중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가 언급한 바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아무도 사도의 진술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되 죽이기까지 한 그의 이전 열심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회개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그분에게 절하게 되었는지를 청중들에게 고하였다. 만일 그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완고하게 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을 것이나 그의 경험에 대한 진술은 수궁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한동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 중에서 행한 그의 사업은 자원하여 시작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를 갈망하였으나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계시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행로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던 것이다.

[410] 지금까지 백성들은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었으나 바울이 그의 이야기 중에서 그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점에 이르자 그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하였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 믿는데 익숙하게 된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던 특권들을 멸시받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말하는 연사의 음성보다 더욱 그들의 음성을 높여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였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한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 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웠다.

사도는 이제 그가 회개하기 전 자신이 회원이었던 바로 그 법정에서 심문을 받아야 하였다. 그가 유대 관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태도는 침착하였고 그의 용모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었다.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의 증오심은 새로이 불붙게 되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 이 비인간적인 명령을 듣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고 부르짖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고 하였다. 바울은 그의 평소의 예의에 따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였다.

[411]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고 하였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두 파는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바울을 반대하던 힘이 꺾이었다. 그들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였다.

계속된 혼란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를 취하여 죽이고

[412]

자 열심히 노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호하고자 애썼다.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들어가라 하”였다.

후에 그날의 괴로운 경험을 회고하여 보는 동안 바울은 그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잘못이었던가? 그의 동포와 연합하고자 한 그의 큰 소망이 이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차지한 지위가 사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여호와를 예배하노라고 주장하면서 거룩한 직무를 받았으나, 맹목적이고 이성을 잃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과 종교적 신앙이 다르다고 감히 그들의 동포까지 멸하고자 하여 그들의 가장 엄숙하고 신중한 공회를 싸움과 거친 혼란의 장소로 변화시킨 그들을 이 이방 관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바울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그는 옥에 갇혔으며, 그는 그의 원수들이 심한 원한을 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다. 교회들을 위한 그의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약탈하는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그는 깊은 근심으로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났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홀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바울은 고통과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하였다.

[413]

이 어둠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고자 원하였으며 그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기를 크게 갈망하였으나 그의 목적인 유대인들의 증오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자신이 죄수가 되어 가게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못하였다.

주께서 당신의 종을 격려하시는 동안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멸하고자 열심히 음모하고 있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여기에 주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정죄하신 그와 같은 금식, 곧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금식이 있었다.

동맹한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 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다.

이와 같은 잔인한 음모를 견책하는 대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일에 열렬히 동조하였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였을 때에 그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이다. [4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건에 개입하셨다. 바울의 생질이 자객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였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 청년을 친절하게 영접하여 곁에 서게 하여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청년은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였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였다.

루시아는 즉시 바울에 대한 그의 재판권을 총독 벨릭스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유대 백성 전체가 흥분과 분노의 상태에 있어서 소동이 자주 일어났다. 사도가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그 성읍뿐 아니라 지휘관 자신에게도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루시아는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삼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415]

마병 칠십 명과 창군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위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바울을 보내는 데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그 곳으로부터 기병이 죄수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는 한편 사백 명의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무리들을 지휘하는 장교는 죄수를 벨릭스에게 전하고 천부장이 그에게 맡긴 다음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다.

[416]

편지를 읽은 후 벨릭스는 죄수가 어느 영지에 속하였는지를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였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와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원한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은 최초의 경우는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분노로 그 백성들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검은 목록에 또 하나의 범죄를 첨가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그들의 운명을 더욱 확실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사람은 몇 안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범죄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신 다음, 당신의 청중들의 마음을 지배한 교만과 불신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선민을 그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에 버리시고 하늘의 빛을 거절하지 아니한 이교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상기시키셨다.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은 모든 일에 저희가 받은 빛을 따라 살았으므로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편의와 세상 명예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보다 더욱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하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충실한 사자에게 안전이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나사렛의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사실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가치를 알거나 그분의 수고에 감사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원수이었다. 그들은 교훈과 모본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더욱더 멀리 떠나게 하되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417]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신 구주의 견책의 말씀은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의 신앙의 형제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에 대한 그들의 신랄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주께서는 그를 그들 중에 아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수고가 것처럼 곧 끝나도록 정하지는 않으셨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좌절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셨다.

그와 같은 정신은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빚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다. 얼마나 자주 주께서는 그의 수고가 감사히 여김을 받지 않은 까닭에 어떤 충실한 목사의 사업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가. 만일 교회가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지각을 흐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잘못 나타낸다면, 만일 그들이 스스로 목사의 길을 가로막아 그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 주께서는 때때로 당신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생명 그 자체까지라도 희생할 준비까지 되어 있을지 모르나 대기만자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형제들의 의심을 일으키게 할 것인데, 그것이 만일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그들의 품성의 성실성에 대한 신용을 해쳐서 그들의 유용성을 약하게 할 것이다. 대기만자는 너무도 자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박해를 당한 당신의 종들에게 씬을

[418]

주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의 슬픔을 그들의 형제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데 성공한다. 그들이 죽어 경고와 격려의 음성이 잠잠해진 후에야 완고한 자들은 일깨움을 입어 저희가 저버린 축복을 이해하고 고맙게 여길지 모른다. 또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살았을 때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시킬지도 모른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그의 고소인들은 변호사로 고용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 소송은 신속히 심리(審理)하도록 허락되었다. 바울은 회중 앞으로 인도되었고 더들은 “송사하”기 시작하였다. 로마 총독에게는 사실과 공의에 대한 단순한 진술보다 아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교활한 변사는 벨릭스를 칭찬하는 그의 연설을 시작하였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더들은 여기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는 벨릭스의 성품이 천하고 경멸할 만하였기 때문이었다. 벨릭스는 “각종 색욕과 잔인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였다”(타키투스, “역사”, 제5장)고 전해지고 있다. 더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아첨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바울에 대하여 정죄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은 진리에 대한 애착심보다 더 강하였다.

더들은 그의 연설에서 바울에게 정부에 대한 대역죄를 씌워 고발하였다. 변사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더들은 진술하기를 예루살렘 수비대의 사령관 루시아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들의 교법으로 재판하려 할 때에 그를 난폭하게 빼앗아 갔으므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벨릭스 앞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총독을 꺾어 바울을 유대인의 법정에서 넘겨주도록 하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진술하였다. 모든 비난은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그들은 죄수에 대한 증오심을 감추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벨릭스는 바울의 고소자들의 의향과 성격을 충분히 통찰할 수 있었다. 벨릭스는 무슨 동기로 그들이 자기에게 아첨하였는지를 알았고 그들이 또한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실증하지 못한 것도 알았다. 그는 피고인을 돌아보고 몸짓으로

[421] 그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하였다. 벨릭스가 매우 오랫동안 총독으로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풍속을 매우 잘 아는 까닭에 바울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벨릭스 앞에서 더욱 기쁨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단순하게 진술하였다. 그에게 가하여진 비난을 언급하여 그는 그 중의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는 그가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서도 소란을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울은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고 말하였다.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한편 자기는 항상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노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생활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과 체포되어 심문당한 전후 사정을 진술하였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고 하였다.

[422] 사도는 열성 있고 사뭇 성실함으로 말하였으며 그의 말은 그들을 크게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의 행동에 관하여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그보다 더 벨릭스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유대인의 신앙을 더욱 잘 알고 있었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진술은 벨릭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사도에게 소요와 반역 행위의 죄를 씌우고자 한 동기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하였다. 총독은 로마 시민을 부당하게 정죄하여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를 공정한 심판도 거치

지 않고 사형에 처하도록 그들에게 내어 주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사리사욕 외에 더 고상한 동기 따위는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칭찬에 대한 애착심과 승진에 대한 욕망의 지배를 받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무죄한 것으로 아는 사람에게 완전한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다. 그런고로 그는 루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심문을 연기할 것을 결정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말하였다.

사도는 죄수로 남아 있었으나 벨릭스가 바울을 지키도록 임명을 받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고 하였다.

그 일 후 오래지 아니하여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을 불러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개인적으로 그를 만났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진리 곧 저희가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 모르는 진리, 만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날에 그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증거할 진리를 듣고자 열심을 내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충실히 선용하였다. 바울은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할 권세나 그를 놓아 줄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섰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칭찬이나 아첨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의 말이 그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의 냄새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위기에 대한 느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사도는 복음이 그의 말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장차 그들이 크고도 흰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든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자들 중에 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청중의 각 사람을 만나야 하며 거기서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뿐 아니라 그가 행한 말과 행위의 동기와 정신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벨릭스의 행동이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였으므로 감히 전에 그의 성품과 행동에 흠이 없지 아니하다고 그에게 암시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의 까닭을 분명히 선포하였고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인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게 되었으나 그의

앞에 있는 교만한 부부에게는 이것이 매우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었다.

[424]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어 체력과 지력을 건강한 상태에 보존하는 절제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그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겠고, 부나 직분이나 지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거나 죄의 결과에서 그를 구원하는 데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생은 인간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임을 나타내었다. 인간이 현재의 특권과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인간에게 새로운 유예 기간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견해와 지식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지 보여 주었다. 손이 행하는 것과 혀가 말하는 것 곧 외적 생애가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낸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을 드러낸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 둔 정욕, 질투, 증오, 색욕, 야망,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피하는 악한 행위들은 비록 기회가 없어서 실행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한다.

[425]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죄를 위한 큰 희생 제물로 향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인 희생 제물들을 지적하였고 그 후에 이 모든 의식들의 원형-타락한 인류를 위한 유일한 생명과 소망의 근원으로서 희생 제물들이 지적하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였다. 옛 성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다. 희생 제물들의 죽음의 고통을 볼 때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연히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의 사랑과 순종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들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도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

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죄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였고 멸시받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세계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유대인인 왕후는 자기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범한 그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잘 이해하였으나 갈바리의 사람에 대한 그의 편견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일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양심이 살아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느꼈다. 범죄한 과거가 회상되었다.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의 앞에는 그가 방탕하던 초기 생애의 비밀과 피 흘림, 그리고 그의 후년의 검은 기록이 떠올랐다. 그는 음탕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은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의 심령이 이처럼 공포로 가득 찼던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의 범죄의 생애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목전에 공개되었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426]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그는 이 반갑지 않은 영상들을 흠어 버리고자 노력하였다. 바울과의 회견은 중단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하였다.

벨릭스의 태도와 빌립보의 간수의 태도는 얼마나 현저히 대조되는가! 주의 종들은 마치 바울이 벨릭스에게 온 것처럼 결박을 당하여 간수에게로 왔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증거, 곧 고통과 치욕 중에서도 기뻐하고 지진으로 땅이 비틀거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의 정신은 간수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였으므로 그는 떨면서 그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다. 벨릭스도 떨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간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 받아들였으나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도를 떠나가게 하였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가 되기를 택하였으나 후자는 불의의 일꾼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427]

이년 동안이나 심문이 실시되지 않은 채 바울은 죄수로 남아 있었다. 벨릭스는 여러 번 그를 방문하여 그의 말을 주의 깊이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정한 척하는 것은 그 진정한 목적이 이득을 얻고자 갈망함이었으니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 바울이 놓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도는 뇌물을 주고 놓임을 받기에는 너무도 고상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몸을 굽혀 악을 행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와 같은 보석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하였고 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였을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가 회개시킨 사람들의 동정과 관대한 행위에 호소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벨릭스는 마침내 유대인에게 범한 큰 죄악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었다. 이 소환에 응하여 가이사랴를 떠나기 전에 그는 바울을 옥에 남겨 둠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생각하였다. 그러나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신임을 다시 얻으려는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벨릭스는 충애를 잃어 직분을 박탈당하였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랴 본영과 더불어 그를 계승하도록 임명되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한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허락되었다. 그것은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이 보낸 기회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늘의 사자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멸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삼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였다. 이 요구를 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을 보내기를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베스도는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 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행 25:16)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기도 미구에” 가이사랴로 “떠나갈” 것을 말하였다.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저희가 이전에 가이사랴에서 패배한 것을 잊지 아니하였다. 사도의 침착한 태도와 능력 있는 논증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악의에 찬 정신과 근거 없는 비난이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다시 그들은 바울을 심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 공정한 심판을 베풀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고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베스도의 결정을 지배하셔서 사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셨다.

[429]

그들의 목적이 좌절되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곧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증언을 하고자 준비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수일을 유한 후 가이사랴에 돌아오자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은 변호사도 없는 이런 경우를 당하여 저희 스스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심문이 계속될 때에 피고의 침착하고 허심탄회함은 그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베스도는 논쟁 중에 있는 문제는 전부 유대인들의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요 바로 이해한다면 바울에 대한 비난에는 그

를 사형에 처하거나 더 투옥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만일 바울을 정죄하지 않거나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때 일어나게 될 분노의 폭풍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자기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헤드린의 심문을 받을 것인가를 물었다.

[430]

사도는 그가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청한 백성에게서 공의를 바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늘의 빛을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서보다 이방인 중어서가 더욱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투쟁에 지친 그의 활동적인 정신은 그의 심문과 투옥에 대한 거듭되는 지체와 오랜 근심을 거의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의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총독의 질문에 응답하여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삽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고 하였다.

베스도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며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는 놀랐다. 그러나 사도의 말은 재판의 진행을 중지시켰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였다.

[431]

이리하여 고집과 독선에서 나온 증오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증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 엘리야가 구조를 받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에게로 도망한 것과 복음의 사신들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은 동일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증오심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 형식주의, 이기심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것처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압박의 정신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할 때 취했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만간 당면하게 될 큰 위기

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잔인한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증오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들이 되실 것이다.

[432]

41장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므로 베스도는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적당한 배를 구할 때까지 다소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함께 보내야 하였으므로 그들의 소송에 대한 고려도 역시 지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가이사라의 중요한 사람들 앞과 또한 헤롯 왕조의 최후의 왕 아그립바 2세 앞에서 그의 신앙의 이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죄수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시작하여 바울이 최근에 그의 앞에서 심문을 받은 것을 고하고, 유대인들이 그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정들의 대략을 말하였다.

베스도가 이야기할 때 아그립바는 흥미를 느껴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고 하였다. 그의 희망에 따라 다음날 한 회집이 준비되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威儀)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베스도는 그의 방문객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를 훌륭한 과시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총독과 그의 손님들의 값진 예복, 군사들의 검과 그들의 사령관들의 번쩍이는 갑옷은 그 광경을 눈부시도록 훌륭하게 하였다.

이제 바울은 여전히 수갑을 찬 채 모인 무리 앞에 섰다. 여기에 얼마나 뚜렷한 대조가 나타났던가!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품성의

특성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고 마 음과 생활이 부패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하늘이 싫어하는 것이었다.

과수병의 쇠사슬에 매인 늙은 죄수는 외모에 있어서 세상이 그에게 충의를 표할 만 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친구도, 재물도, 지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죄수가 된 이 사람에게 온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천사들이 그의 수종자들이었다. 만일 이 빛나는 사자들 중 하나의 영광이라도 비쳐 나왔더라면 왕의 화려함과 교만은 창백하여졌을 것이며 왕과 궁신들은 그리스도의 무덤 곁에 있었던 로마의 과수병들처럼 땅에 넘어졌을 것이다.

베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모인 무리들에게 바울을 소개 하였다. [435] “아그립바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하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될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왕은 이제 바울에게 자신을 위하여 말하도록 자유를 주었다. 세상의 부와 지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도는 그와 청중의 눈부신 허식이나 높은 계급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장관(壯觀)과 권세가 한 순간이라도 그의 용기를 꺾거나 그에게서 자제력을 잃게 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아그립바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밋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완고한 불신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세상의 구주 [436] 로 믿게 된 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를 말할 수 없는 공포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으나 후에는 최대의 위안의 근원임이 증명된 하늘의 계시, 곧 그가 멸시하고 미워했던 분, 그 때에 그가 그분의 추종자들을 멸하려고 까지 했었던 그분께서 그 가운데 좌정해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묘사하였다. 그 때로부터 바울은 성실하고 열렬

하게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와 같이 된 것은 변화시키는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서 분명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 개요를 설명하였다. 그는 예언의 메시야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을 증거하였다. 그는 어떻게 구약 성경이 메시야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어떻게 예수의 생애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윤곽을 그린 모든 세목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치욕을 가볍게 여기셨으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437]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논하였다. 한때 그에게도 그렇게 보였으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불신할 수 있을까? 바울은 다메섹 성문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셨고 갈바리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의 속박을 깨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을 틀림없이 보았다. 진실로 그는 게바,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과 담화하였다. 그 음성이 부활하신 구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명하셨으니 어찌 그가 불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와 유대 온 땅과 원방에서까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였고 각 계급의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 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온 무리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바울의 말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사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설득력 있는 웅변이 고조에 달하였을 때 바울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부르짖은 베스도로 인하여 방해를 받았다.

사도는 대답하였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리고 그는 아그립바를 향하여 그에게 직접 말하기를 “아그립바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그가 들은 진리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앞에 선 비천한 죄수만을 바라보고 아그립바는 무의식중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대답하였다.

[438]

쇠사슬을 찬 그의 손을 들면서 사도는 열렬히 대답하였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베스도와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의당히 사도를 속박한 쇠사슬을 차야 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한 죄를 범하였다. 이 범 죄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제의를 들었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그러나 아그립바는 제공된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왕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회견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회중은 흠어지면서 저희끼리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고 말하였다.

아그립바는 유대인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의 완고한 열심과 맹목적인 편견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건은 높은 법정에 맡겨졌으므로 이제는 베스도와 아그립바의 재판권 밖에 있었다.

42장 항해와 파선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었다. 누가는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隊)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 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고 기록하였다.

서기 1세기에 바다로 여행하는 데는 특별한 고난과 위험이 따랐다. 선원들은 주로 해와 별의 위치를 보고 그들의 진로를 정하였으므로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폭풍우의 징후가 있을 때 선주들은 대양으로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한 해의 어떤 기간에는 안전한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길고도 지루한 항해 동안 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그에게 주어진 괴로운 경험을 견디어야만 하였다. 한 가지 사실이 그의 고난을 크게 경감시켰는데 그것은 그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반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후에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아리스다고를 그와 “함께 갇힌 자”(골 4:10)라고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아리스다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여 그의 속박에 동참한 것이었다.

항해는 순조로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그들은 시돈 항에 닿을 내렸다. 이곳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였다. 그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였다. 건강이 나쁜 사도는 이에 대하여 크게 감사히 여기었다.

시돈을 떠나자 배는 역풍을 만나 직접 가는 노선에서 쫓겨 서서히 행진하였다. 루기아도의 무라 성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 해안으로 가는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즉시 죄수들을 이 배로 옮기었다. 그러나 여전히 역풍이어서 그 배의 진행이 어려웠다. 누가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항에서 그들은 순풍을 기다리기 위하여 얼마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 속히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였고 배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그 계절 전에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 해에는 바다로 여행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까닭이었다. 다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미항에서 체류할 것인가 혹은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441]

이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되었고 마침내 백부장은 모든 선원들과 군사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바울에게 문의하였다.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도는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여객과 선원의 대다수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아니하였다. 저희가 닻을 내린 그 항구가 “과동(過冬)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다.

백부장은 다수의 판단에 따르고자 결정하였다. 따라서 “남풍이 순하게 불때” 그들은 곧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항에서 출항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었다.

폭풍에 밀려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접근하였고 섬에 피하여 있는 동안 선원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였다. 배가 침몰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구명선은 달고 다니는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명선을 선체에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로써 배를 든 든히 하고 폭풍우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들은 작은 섬이 베푸는 적은 보호를 오래 이용할 수 없었으며 얼마 후 그들은 다시 광풍에 휩쓸렸다. [442]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에는 물이 새어들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다. 밤은 다시 왔으나 바람은 자지 아니하였다.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진 배는 격노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녔다. 배가 폭풍의 충돌로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신음하는 듯한 선체는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침수는 신속히 증가되었고 여객들과 선원들은 계속 물을 퍼내는 일을 하였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 순간이라도 쉴 수 없었다. 누가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고 기록하였다.

14일 동안 그들은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하였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였고 모든 위급한 경우에도 도움의 손이 되었다.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 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 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

[443]

폭풍이 가라앉는 것을 이용하여 바울은 갑판 위에서 서서 음성을 높여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희망이 소생하였다. 여객들과 선원들은 무감각에서 깨어났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고 파멸을 막기 위하여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다.

떠밀어 올리는 검은 물결에 밀린 지 열 나흘째 밤이 되어 “밤중”에 선원들은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고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이십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하여 고물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였다.

동이 틀 때에 폭풍이 부는 해안의 운곽은 희미하게 볼 수 있었으나 낮익은 육상의 목표물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전망이 매우 암담함으로 이교도의 선원들은 모두 용기를 잃고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릴 준비를 하는 채하면서 별

써 구명선을 내려놓았다. 바울이 그들의 비열한 계책을 알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였다. 군사들은 즉시 “거룻줄을 끊어” 바다로 “떼어 버렸”다. [444]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직도 그들 앞에 있었다. 다시 사도는 격려의 말을 하고 선원들과 여객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도록 하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였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니 바울이 아니었다면 절망에 빠졌을 피곤에 지치고 낙담한 275명의 무리가 사도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제는 낮이 완전히 되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의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때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라.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이제 파선보다 더 무서운 운명의 위협을 받았다. 군사들은 육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희가 책임진 죄수들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각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수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죄수를 책임진 사람들은 그 별로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들은 죄수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로마법은 이 잔인한 정책을 재가하였으므로 이 계획은 즉시 집행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깊은 은혜를 입고 있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으므로 바울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 점호를 하였을 때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445]

[446]

파선을 당한 선원들은 멜리데 토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다. 누가는 “토인들이...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다. 바울이 “한뭇 나무”를 모아 “불에 넣”었을 때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그의 죄사슬을 보고 바울이 죄수임을 알고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흔들며 불에 떨어뜨렸고 그는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은 그 독성을 앎으로 바울이 어느 때라도 무서운 고통중에 쓰러지리라 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였다.

배의 무리가 멜리데에 머물러 있던 석달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하였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파선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급받았다. 누가는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워 주었다.

항해가 시작되어 백부장과 죄수들은 로마로 여행길에 올랐다.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구로 호는 서쪽으로 가는 도중 멜리데에서 과동(過冬)하였으며 이 배로 여행자들은 출항하였다. 다소 역풍으로 지체는 되었으나 항해는 안전하게 이루어져 그 배는 이탈리아 해안에 있는 보디올의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이곳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들이 바울에게 이레를 저희와 함께 유할 것을 간청하였고 백부장은 친절하게 특전을 주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 이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방문을 열렬히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가 죄수가 되어 오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고통은 그로 더욱더 그들의 사랑을 받게 할 뿐이었다. 보디올과 로마 사이의 거리는 140마일이나 되었으나 그 항구는 수도와 통신이 빈번하였으므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도착 소식을 듣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울을 만나 환영하려고 출발하였다.

상륙한 지 8일 만에 백부장과 그의 죄수들은 로마로 출발하였다. 율리오는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였으나 죄수로서의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를 그의 과수병의 사슬로부터 풀어 줄 수는 없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예상하였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여행자들은 로마에서 40마일 떨어진 압비오 저자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큰 도로에 모인 무리들 사이를 지나갈 때 냉담하게 보이는 죄수들의 무리와 함께 사슬에 매인 백발의 노인은 많은 경멸의 시선을 받았으며 많은 격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돌연히 기쁨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환영하듯이 죄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다. 사랑스러운 기대로 눈들이 예민하여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슬에 매인 죄수가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임을 분별하였을 때 거듭거듭 이런 광경이 반복되었다.

[449] 온정이 넘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되었다. 군사들은 지체되는 것이 초조했으나 이 즐거운 회합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다. 군사들도 그 죄수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긴 때문이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빛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바울이 그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 말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도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욱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기뻐하였다.

[450] 로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죄수들을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계하였다. 사도는 백부장이 그에게 대하여 좋게 보고한 것과 베스도의 편지 때문에 근위대장의 호감을 사게 되어 투옥되는 대신 자신이 세로 얻은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비록 그는 여전히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의 친구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몇 년 전에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효가 이제 로마에 있게 되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원수들이 그들을 격분케 하여 그를 대적하게 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런고로 로마에 도착한 지 삼일 후에 그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죄수로서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하였다.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그가 유대인들의 손에 당하였던 학대나 그를 암살하려는 그들의 거듭된 음모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말에는 신중함과 친절함이 현저히 나타났다. 그는 자기 개인에게 주의를 끌거나 동정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복음의 영광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답하여 그의 청중들은 그들이 공한이나 사신으로 그를 대적하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였고 로마에 온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에게 어떠한 죄를 씌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451] 그들은 역시 자신들을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진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앎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스스로 이것을 갈망하는 이상,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날을 정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작성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고 구약 성경의 논증을 단순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게 제시하였다.

사도는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만일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하여 신

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맡기우는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이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지적하였으며,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분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치료제요, 죄인들의 죄를 지셔야 할 무죄하신 분으로 증거하였는지를 나타내었다. 그는 그들의 형식과 의식의 준수에 대하여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의문의 예식은 매우 엄밀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그 모든 제도의 원형이 되시는 그분을 거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52] 바울은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오실 메시야의 성격과 사업에 관하여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 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가 나사렛 예수를 사기꾼으로 거절하였던 것은 그분께서 이같은 생각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매우 신령하였고 고상하였는데 이는 그가 회개한 까닭이었다. 사도는 그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그분을 보았다. 안나스도,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로마의 군사들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영광을 받으신 구속주로서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과 개인적 친분을 갖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었다.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교제보다 더욱 친밀하고 더욱 지속적인 것이었다.

[453]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말하고 그가 본 것을 증거하자 정직하게 진리를 찾던 자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적어도 그의 말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 감명을 끼쳤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빛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전할 때에도 완고하게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의 논증을 반박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의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달이 경과하였다. 거듭거듭 그들의 계획은 좌절을 당하였으나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의 최고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또 다른 패배를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루시아, 벨릭스, 베스도와 아그립바는 모두 그가 무죄함을 믿는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 황제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총애하게 함으로써만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계획을 완성시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지체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직접 사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얼마 동안 기다렸다.

이 지체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울은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 곳에서 자유로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2년 동안 바울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기간에 그가 여러 나라에 세운 교회들은 잊히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깨달은 사도는 경고와 실제적 교훈의 편지를 보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로마에서 그는 이 교회들뿐 아니라 자신이 방문하지 아니한 지방에서 일할 헌신적인 교역자들을 파송하였다. 이 교역자들은 현명한 목자로서 바울이 잘 시작한 사업을 굳게 하였고, 사도는 그들의 계속적인 통신으로 교회들의 상태와 위험을 알고 있어서 모든 교회를 현명하게 감독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표면상으로는 활동적인 사업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던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주님의 죄수로서 그는 형제들의 애정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그의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그들로부터 더욱 큰 주의와 경의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기까지는 신자들이 그가 그들을 위하여 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재치와 불굴의 정력이 사도보다 못하다고 하여 책임과 짐을 지는 일에 크

게 핑계하였으나 이제 그들은 무경험 상태에서, 그들이 피하였던 교훈을 배우게 되었으며, 바울이 친히 베푼 봉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의 경고와 권면과 교훈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기간 감금당해 있는 동안 그의 용기와 신앙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더욱 큰 성실과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

[455]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이전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에 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은 의원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디모데는 역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수종을 들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가 사도 곁에 고상하게 서 있었다. 데마와 마가도 역시 그와 함께 있었다. 아리스다고와 에바브라는 그와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골 4:7~14).

초년에 신앙 고백을 한 이래 마가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은 깊어졌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돌아가심을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마가는 구주의 사명과 그분의 수고와 투쟁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봉사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상처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과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자아 희생의 크기를 알고 마가는 자원하여 주를 따라 자아 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죄수 바울의 운명에 동참한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무한한 이익이며, 세상을 얻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영혼을 잃는 것은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잘 깨닫게 되었다.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여기에 언급하여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딤후 4:10)렸다고 기록하였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 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

의 후사요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하였다.

로마에서 바울의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 중에는 골로새의 그리스도인 신자인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로마로 도망한 오네시모가 있었다. 바울은 친절함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의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였다.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귀의하였다.

[456]

오네시모는 그의 경건과 성실, 사도를 위로하기 위한 그의 적지 않은 친절함, 복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의 열심으로 바울의 총애를 받았다. 바울은 그에게서 선교 사업에 유용한 조력자가 될 품성의 특성을 발견하고 지체 말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의 용서를 구하고 장래를 위하여 계획하도록 권면하였다. 사도는 빌레몬이 도난당한 금액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주어 두기고를 파송하려 하였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었다.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삼았고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은 그의 평소의 재치와 친절을 가지고 회개한 종의 문제를 호소하였고 장차 그의 봉사를 계속 받고 싶다는 소망하는 표현을 하였다. 이 편지는 친구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대한 다음과 같은 사랑에 넘치는 인사로써 시작하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좃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는 그가 소유한 모든 선한 목적과 품성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은 것이며 이것만이 그를 사악한 자들과 죄많은 자들에게서 구실되게 한 것이란 사실을 빌레몬에게 상기시켰다. 동일한 은혜는 저열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사업의 유용한 사역자로 만들 수 있었다.

[457]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의무를 요구 하였으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간청의 말을 선택하였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사도는 오네시모의 회개를 보고 회개한 종을 자기의 친 자 식처럼 받아들이고 그가 “이후로는 종과같이 아니하고 종에게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의 이전 주인과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애정을 그에게 나타내도록 빌레몬에게 요구하였다. 사도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그 종을 석방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의 봉사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빌레몬 자신도 그렇게하기를 원했을 일, 즉 속박 중에 있는 그를 섬기는 일을 위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자 하는 자기의 소망을 표현하였다.

[458] 사도는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혹독하게 행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는 빌레몬이 그의 종의 행동 때문에 크게 화가 났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가장 깊고 가장 부드러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빌레몬에게 편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네시모의 회개는 그를 믿음의 형제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회심자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것처럼 될 것이었다.

바울은 범죄자로 하여금 형벌의 수치를 면하고 그가 상실하였던 특권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책임질 것을 자원하여 제의하였다.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이다고 말씀하신다.

오네시모의 빚을 책임질 것을 제의한 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자신이 사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상기시켰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를 회개시키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빌레몬 자신도 바울에게 빚을 졌다. 그 후에 바울은 부드러우나 열렬한 호소로써 마치 그가 그의 아량으로 성도들을 대접한 것처럼 사도에게 이 기쁨의 근거를 허락함으로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빌레몬에게 간청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으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복음의 영향을 나타낸다. 노예 소유는 온 로마 제국 안에서 굳게 세워진 제도였고, 바울이 수고하던 교회들의 대부분에서 주인들과 노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노예들이 때로는 자유민보다 그 수효가 크게 많은 도시들에서는 무섭도록 혹독한 법률이 그들을 복종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한 부요한 로마인은 모든 계층, 모든 민족의 온갖 재주가 있는 노예들을 수백명 소유하고 있었다. 이 불쌍한 존재들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하여 그는 그가 선택한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들에게 가할 수 있었다. 만일 노예들 중 한 사람이 보복이나 자기 방어로 감히 그의 소유주를 대적하여 손을 든다면 그의 전 가족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사소한 과오나 사고나 부주의도 흔히 무자비한 벌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비심이 많은 어떤 주인들은 종들에게 매우 관대하였으나, 제재 없이 색욕과 정욕과 식욕의 방종에 빠진 부자와 귀족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노예들을 멋대로 학대하여 참혹한 희생자로 삼았다. 모든 제도의 경향은 극단적으로 비열하였다.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 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서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야 하였다.

[459]

[460]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고전 1:26). 가난하고 친구가 없는 죄수 바울이 부요하고 지위가 높은 계층의 로마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악은 그들에게 온갖 찬란한 유혹을 제시하여 그들을 자원하는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러나 수고에 지치고 빈곤에 지친 그들의 압박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고난의 운명 아래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준 희망과 평화를 발견하였다.

그 사도의 사업이 비천하고 하류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화는 계속 퍼져 나갔으며 마침내 황제의 궁전까지 미쳤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다.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다. 왕과 궁신들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2년도 채 못 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바울은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딤후 2:9)였다.

이전에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공연히 선포하였고 표적과 기사로 그 신앙의 거룩한 성격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주었었다. 그는 헬라의 현인들 앞에 고상하고도 확고부동하게 일어서서 그의 지식과 웅변으로 거만한 철학의 논증을 침묵시켰었다. 그는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논했으며 마침내 거만한 통치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날의 공포를 벌써 본 것처럼 두려워 떨었었다.

그와 같은 기회들은 이제 그 사도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거처에 감금되어 그 곳으로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그는 모세와 아론처럼 방탕한

왕 앞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잔인과 학정을 책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복음의 최고의 옹호자가 표면상으로는 공적 활동을 중단당한 것처럼 보인 바로 그 때 복음은 일대 승리를 얻었다. 이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까닭이었다.

[463]

로마의 궁정처럼 그리스도교에 부적합한 분위기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네로는 그의 마음에서 신성(神性)의 마지막 흔적뿐 아니라 인간의 그것까지라도 말살시킨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의 각인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종들과 궁신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사납고 저열하고 부패하였다. 온갖 형세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교가 네로의 궁정에서 발판을 굳히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매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서도 그의 싸움의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후 10:4)는 바울의 주장이 사실임이 판명되었다. 네로의 가족 내에서까지 십자가의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었다. 매우 비열한 왕의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개심자들을 얻었다. 이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공공연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보인 이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가 들어가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네로의 가족 가운데서 신앙으로 개심자들을 얻는데 성공한 것을 그의 투옥 덕분으로 돌렸다. 그의 고통이 복음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염려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증하였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 1:12).

그리스도 교회들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리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도시에서 현저하게 복음이 승리하리라고 기대하였다. 바울은 많은 나라에 진리를 전하였고 대도시들에서 진리를 반포하였었다. 이 진리의 투사가 세계의 수도에서까지라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희망은 깨어졌다. 그들은 이 큰 중심지에 일단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신속히 퍼져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보고자 확신을 가

지고 바랐었다.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던가! 그러나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464]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최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 매여 있는 속박을 끊어 준 것은 그가 포로되어 있을 때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빌 1:14).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량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공적으로 활동하다 물러나게 된 그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써 보다 큰 정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의 능력과 유용성이 단절되고 모든 형세로 보아 그가 최소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받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거뒀었다.

그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었고 빌립보인들에게 문안을 보낸 이들 가운데서 그는 주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하였다(빌 1:13, 4:22).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한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사별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량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무에서 물러날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키신다.

[465]

더 이상 하나님과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공적으로 활동적인 수고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가 해야 할 봉사가 없고 그가 얻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주에 끌려갔을 때에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에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을 하였다.

[466] 매우 암담한 환경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열심과 성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에 못지않은 신앙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목사의 태만과 믿음의 부족을 견책한다.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가공할 만한 장애물들에 둘러싸이고 거센 반대에 직면한 사도와 그의 조력자들은 사실 네로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추론하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들은 자들 가운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장애와 위협을 무릅쓰고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

가이사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그 집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 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다.

자신의 환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데 실패한 핑계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가이사 집안 곧 황제의 부패와 궁정의 방탕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이 개심자들이 처한 것보다 더 신앙생활에 불리하고 더 큰 희생과 반대를 당할 환경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고난과 위협 중에서도 그들은 성실을 유지하였다.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와 말씀의 연구로 얻은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이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신자는 기꺼이 멸시와 조소에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신다. 당신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쌀 것이다.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히 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시 56:3)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467]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한지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계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전능하신 조력자에게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요불굴함과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신뢰심을 계발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

[468]

45장 로마에서 편지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바울은 “주의” 많은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친히 인정하였다. 복음 진리의 원칙들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지극히 큰 사도들”의 그것과 같았다(고후 12:2, 4, 1, 11). 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하고도 충분히 깨달았다(엡 3:18, 19).

바울은 계시 중에 본 것을 모두 말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의 말을 오용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로 하여금 지도자요 현명한 교사로서 수고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또한 후년에 교회들에게 보낸 기별들을 형성시켰다. 계시 가운데서 그가 받은 감명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품성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그 후 언제나 말과 편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과 힘을 끼친 기별을 전하였다. 이 기별은 오늘날 신도들에게 교회를 위협할 위험들과 그들이 만나게 될 거짓 교리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의 권고와 훈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도의 소망은 그들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 교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이들에게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4:14, 13, 17, 18, 5:15, 16)고 탄원하였다. 바울은 신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

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실 때를 바라보도록 격려하였다(엡 5:25, 27).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이 기별들은 모든 사람이 연구해야 하고 때때로 반복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 기별들 가운데는 실제적 경건이 요약되어 있고 모든 교회에서 따라야 할 원칙들이 놓여 있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설명되어 있다.

[471]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에 기록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에 바브라가 그에게 전달한 기별을 듣고 골로새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음에 대한 기쁨을 말하였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 대한 그의 소망을 그와같이 말하였다.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이상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높음에서 높음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业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들을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였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472]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아흔아홉 양인 하늘에 있는 무죄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다(사 53:5).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원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473] 이교의 행습과 감화에 둘러싸인 골로새 신도들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유일의 안전한 안내자로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감화를 통하여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예언하셨었다. 그분은 교회가 원수들의 박해보다도 이 악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었다. 바울은 거듭거듭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경고하였다. 신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오류에게 문을 열어 주게 되고, 원수는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의 신앙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확신을 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표준이시다. 그들은 그 표준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해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하였다.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이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었다.

[474]

그리스도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사도 시대에 사람들이 유전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원수는 고등 비평, 진화론, 강신술, 점신술, 범신론(汎神論) 등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름없는 등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추론적인 신조의 통로로 저희 마음을 돌린 까닭이다. 해부하고 추측하고 재구성하는 고등 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능력을 빼앗고 있다. 강신술에 의하여 군중들은 욕망이 최고의 법이며 방종은 자유요,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도가 골로새 신도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술적 성경 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도의 음성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확인하는 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 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

[475]

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것 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모든 세대와 각 나라에서 품성 건설을 위한 참 기초는 동일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원칙들이다. 유일의 안전하고 확실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시 19:8, 15:5). 사도들이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거짓 교리에 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였다(고전 3:11).

[476] 골로새 신자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이제까지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신조와 행습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였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서약을 지키려면 그들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악을 대적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고 하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최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롬 5:1)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 인 왕국에 들어가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둬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노력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공과들, 즉 구주를 옳게 대표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목적의 단일성과 목표의 고상함을 보여 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다 높고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상에 대하여는 너

[477]

[478]

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하여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영적 완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죄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가까이 접촉하게 해주는 기도를 우리 입에 두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한 하늘의 대리자들을 활동하게 하신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 계신 능력에 접촉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전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 기도를 통하여 경성을 통하여, 지식과 총명에 성장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갖추어진다. 순결하게 되고 성화된 인간들이 당신을 돕는 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큰 특권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479]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도 그가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에 기록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선물들을 보내었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편지하였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신자들은 그에 대한 근심으로 충만하였고, 그는 그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들이 그에게 준 선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빌립보 신도들에게 보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가장 관대하였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480]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투옥된 바울을 붙들어 주었으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그의 간힘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편지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481]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 내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물을 바라볼 위험이 있다. 불행과 재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만하시거나 잔인하시다고 비난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유용한 봉사가 중단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실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한다.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활동적 봉사에 종사할 때보다 고통의 징계 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의 그들의 모본으로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482]

이 말씀은 분투하는 모든 영혼을 돕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바울은 완전의 표준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한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

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기호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진해서 행하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후 10:5)실 것이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주께서는 온전하지 못한(나누어진)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키신다. 그리고 그 신도는 날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실험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483]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고 편지하였다.

바울은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의 충성심을 그리스도께 바친 그 시간부터 바울의 생애는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484]

여행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하고 복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을 얻어 교회들을 세웠다. 이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염려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교훈의 편지들을 기록하였다. 때때로 그는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업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분주한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큰 목적 즉 그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곳곳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다. 그 목표는 다메섹 성문 곁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권세도 그를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원기를 준, 모든 다른 것을 흡수하는 최고의 동기였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매진하도록 강권한 그 큰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주목을 구주에게서 돌이키려고 세속적 매력들이 제시될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자 하는 희망은, 그것의 달성에 필요되는 온갖 노력과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로마에서 교회들에게 써 보낸 편지들을 꿰뚫고 승리의 곡조가 울린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품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많은 영혼들을 개심시키고 신도들을 굳게 하고 격려시키는 축복을 받았으나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교회의 번영을 위협하는 구름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공의와 성실의 사람인 황제의 근위대장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그의 너그러움으로 바울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복음 사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도가 어떤 특별한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한 관원으로 교체되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들은 유력한 조력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네로가 그의 둘째 부인으로 삼은 방탕한 여인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개종자로서 그리스도교의 투사를 살해하려는 그들의 계교를 돕고자 자기의 권세를 모두 사용하였다.

바울은 그가 상소한 가이사에게서 거의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네로는 품행이 매우 천박하였고 품성이 매우 비열했으며 동시에 극악한 잔인성에 있어서 그는 이전의 어떠한 통치자보다도 더욱 혹독하였다. 나라의 정치가 그보다 더한 전제 군주에게 맡겨질 수 없었다. 그의 치세의 첫 해는 왕위의 법적 상속자인 그의 이복동생을 독살함으로 오점을 남겼다. 네로는 차츰차츰 깊은 죄악과 범죄에 빠져 마침내 자기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후에는 그의 아내를 죽였다. 그가 자행하지 않은 포악함이 없었고 그가 저지르지 않은 악행이 없었다. 모든 고상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는 증오와 멸시만을 고취시켰다.

그의 궁정에서 행해진 불의의 항목들은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무서워 필설로 묘사할 수가 없었다. 그의 파렴치한 악행은 그의 범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까지라도 증오와 혐오를 일으켰다. 그들은 네로가 다음에 어떠한 극악한 범죄를 제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네로가 행한 그와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온 문명 세계의 전제 군

주로 인정을 받았다. 더 나아가 그는 거룩한 영광의 수령자가 되고 신으로서 예배를 받았다.

인간적인 판단의 견해로 볼 때에 이와 같은 재판관 앞에서 바울이 어떤 정죄를 받을지는 분명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느꼈다. 과거에 그의 보호자이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그를 유대인들의 악의와 가이사의 권세에서 보호하실 것이었다.

[487]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바울의 심문의 때에 그에 대한 고소는 기각되었으며, 네로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품성과 전혀 모순되게 공의를 존중하여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바울의 속박은 제거되었고 그는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그의 심문이 오래 지연되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그가 다음 해까지 로마에 체류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때에 일어난 박해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관원들의 주목을 끌고 증오를 일으킬 만큼 그리스도교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게 되었다. 황제는 그의 가족들의 개종으로 특별한 분노를 발하여 얼마 후에는 그리스도교를 그의 무자비한 잔학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구실을 발견하였다.

이즈음 로마에는 무서운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거의 절반을 태웠다. 네로 자신이 방화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잃은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크게 관대한 체하였다. 그러나 네로는 방화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백성들은 흥분하고 격노하였으므로 네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고 그가 두려워하고 증오한 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웠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여, 무수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남녀와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바울은 이 무서운 박해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석방된 후에 곧 로마를 떠난 까닭이었다. 이 최후의 자유의 기간을 그는 부지런히 교회들을 위해 활동하는 데 이용하였다. 바울은 헬라와 동방 교회들 사이에 공고한 연합을 이루고 신앙을 부패시키려고 기어 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리들에 대비하여 신도들의 마음을 튼튼히 방어하고자 노력하였다.

[488]

그가 견딘 시련과 근심으로 인하여 바울의 체력이 점점 쇠하여 갔다. 그에게 노환이 찾아왔다. 바울은 이제 최후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수고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자 그는 더욱더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의 열성에는 한도가 없

는 것처럼 보였다. 목적에 있어서 단호하고 행동에 민첩하고 신앙에 있어서 굳센 바울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신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업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곧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의 때에 그들이 복음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려고 힘닿는 데까지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노력했다.

47장 마지막으로 체포됨

바울이 로마에서 무죄 석방된 후 여러 교회에서 행한 그의 사업은 그의 원수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배척받는 종파로 규정되었다. 얼마 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로마의 방화를 선동한 죄를 씌우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한 순간이라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이라도 그럴 듯하게 조작하면 이러한 비난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고, 그의 최후의 감금은 서둘러졌다.

그의 두 번째 로마로의 항해에 바울은 그의 이전 동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운명에 동참하고자 간절히 바랐으나 그는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앞에 있는 전망은 이전 투옥 때보다 훨씬 어두웠다. 네로 치하의 박해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효는 격감되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의기가 크게 저상되고 겁내고 있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침침한 토굴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마쳐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사도의 수고를 함께 나누었던 몇 친구들 중 이제 어떤 이들은 그를 버림으로, 다른 이들은 여러 교회에 선교하기 위하여 그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부젤로와 허모게네가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었다. 그 후에 점점 어두워가는 고난과 위협의 짙은 구름에 낙심한 데마가 꺾박받는 사도를 버렸다. 바울은 그레스게를 갈라디아 교회로, 디도를 달마디아 교회로, 두기고르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였다(딤후 4:11). 연로하고 수고와 병으로 쇠약하였고 로마 감옥의 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는 지금처럼 사도에게 그의 형제들의 봉사가 필요된 적이 전에 결코 없었다. 사랑하는 제자요 충실한 친구인 누가의 봉사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련의 때에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보로가 자주 방문함으로 기쁨을 얻었다. 이 동정심이 많은 에베소 사람은 감금된 사도의 괴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 그의 사랑하는 선생은 진리를 위하여 구속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자유스러우므로 그는 바울의 상태를 보다 견딜 만하게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도가 기록한 최후의 편지 가운데 그는 이 충실한 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흠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딤후 1:16~18).

[491]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에 심기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겐세마네의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하셨다. 그리고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 고독과 배반의 때에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48장 네로 앞에 선 바울

바울이 심문을 받기 위하여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에 분명한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었다. 그에게 썩어진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증오로 인해 유리한 선고가 내릴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가운데는 피고가 재판정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호할 변호인을 고용할 특권이 허락되는 것이 한 관습이었다. 이런 변호인은 힘 있는 논증과 열렬한 웅변, 혹은 간청과 기도와 눈물로써 흔히 죄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게 하거나 혹은 이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형벌의 혹독성을 경감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네로 앞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가해진 비난이나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간청한 논증의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시련의 때에 그의 곁에 서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93]

이 경우에 대한 믿을 만한 유일의 기록은 바울 자신에 의하여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둘째편 편지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딤후 4:16, 17).

네로 앞에 선 바울,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인가! 그의 신앙을 위하여 답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거만한 군주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부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죄와 불의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었다. 권세와 위대함에 있어서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의 뜻을 거스릴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왕들은 그의 발 곁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두었다. 강력한 육군은 그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그의 해군의 깃발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조상(彫像)은 재판정에 세워졌고 원로원 의원들의 포고나 재판관들의 판결은 그의 뜻에 반항에 불과하였다. 수백만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네로의 명성은 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의 손실을 의미하였고 그의 얼굴 찌푸림은 염병보다 더 무서웠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네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격노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바울의 경험은 빈곤과 극기와 고통의 그것이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행한 끊임없는 오전(誤傳)과 비난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의 주님처럼 그는 겁 없는 방랑자였었지만, 그의 주님처럼 그는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 변덕스럽고, 성 잘 내고, 음탕한 폭군 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의 품성과 동기를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있었겠는가?

[494]

넓은 법정에는 열심 있고 침착하지 못한 군중들이 운집하여 일어날 모든 것을 보고 듣고자 앞으로 몰려들었다.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거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모두 다 같이 생명과 구원의 길에 대한 참 지식이 부족하였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소요와 이단이라는 해묵은 비난을 퍼부었고 유대인과 로마인은 모두 그를 로마 도성에 붙을 지르도록 선동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에게 이런 비난이 역설되는 동안 바울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였다. 백성들과 재판관들은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많은 심문에 참석하여 많은 죄수를 보아 왔으나 저희 앞에 있는 이 죄수처럼 기록하고 침착한 모습을 가진 자를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재판관들의 예리한 눈들은 죄수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죄상을 알기에 익숙하였으나 바울의 얼굴에서 범죄의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에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한 번 바울은 의아해하는 군중 앞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바울이 그의 앞에 모인 무리들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분기된다. 그는 그 경우와 그를 둘러싼 위험들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운명을 보지 않는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인간의 웅변과 능력 이상으로 바울은 복음의 기

[495]

별을 제시한다. 그는 청중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 그는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선언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동참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천사라는 사자들로 말미암아 땅은 하늘에 연결되고, 사람들의 행위는 선악간에 무한하신 재판장의 목전에 드러난다.

진리의 옹호자는 이와 같이 호소한다. 충실하지 못한자들 가운데서 충실하고 불충성하는자들 가운데서 충성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다. 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과 같다. 말에나 외모에 두려움도 슬픔도 낙담도 없다. 무죄함을 의식함으로 굳건하고, 진리의 갑옷을 입은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뻐한다. 그의 말은 전쟁의 부르짖음 위에 들리는 승리의 함성과 같다. 그는 그가 일생을 바친 사업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유일의 사업임을 선언한다. 비록 그는 죽을지라도 복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행 6:15)음을 보았다.

[496] 이 무리들은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 말들은 가장 완고한 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진리는 오류를 무너뜨렸다. 후에 즐거움으로 이 빛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었다. 그날에 말해진 진리는 열국을 흔들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에게 말한 입술이 순교자의 무덤에서 잠잠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 것이었다.

네로는 이때에 들은 진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신의 생애의 중한 죄악이 그에게 것처럼 나타난 때는 전에 결코 없었다.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심령을 꿰뚫었으며 그는 세계의 지도자인 그가 마침내 고소를 당하여 그의 행위가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네로는 사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을 내릴 수 없었다.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그의 피에 끓주린 정신을 제지시켰다.

한동안, 범죄하고 마음이 완고한 네로에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평화와 순결이 바람직하게 보였다. 그 순간 은혜의 초청은 네로에게까지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용서를 바라던 생각은 일순간에 불과하였다. 그는 바울을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토굴의 문이 닫혀

졌을 때에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혀졌다. 하늘에서 온 빛이 다시는 그를 둘러싼 흑암을 꿰뚫지 못하였다. 얼마 후 그는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하였다.

이 일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그의 불명예스러운 헬라 원정을 위하여 항해하였고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이 천하고 비열한 언동으로 자신과 그의 나라를 망신시켰다. 크게 화려한 행렬을 갖추어 로마로 돌아올 때에 그는 그의 궁신들과 어울려 몸서리나는 주색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이 흥청거리고 있는 도중에 거리에는 폭동의 소리가 들렸다. 이 원인을 알아오도록 파견한 사신은 육군의 대장 갈바가 신속히 로마로 행진하고 있으며 성안에서는 이미 반란이 일어났고 거리에는 황제와 그의 모든 지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분노에 찬 폭도들이 가득 찼으며 그들이 신속히 왕궁에 접근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497]

이 위기의 때에 네로는 충성스러운 바울처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였다. 폭도들의 손에 당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고문을 두려워한 참혹한 폭군은 자기 손으로 그의 생명을 끊고자 생각하였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용기를 잃었다. 완전히 비겁하게 된 네로는 수치스럽게도 도성에서 도망하여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별장에서 피신하고자 하였으나 헛되었다. 그의 은신처는 얼마 후에 발견되었는데 추격하는 기병이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 그는 한 종을 시켜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였다. 이리하여 폭군 네로는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다.

49장 바울의 최후의 편지

가이사의 재판정에서 그의 감방으로 돌아온 바울은 그에게 매우 짧은 집행유예 기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울은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한동안 진리가 승리하였다는 것도 알았다. 그에게 귀를 기울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선포한 것은 그 자체가 승리였다. 바로 그날, 자라나고 강하여질 사업, 네로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방해하거나 멸하려고 하여도 소용이 없을 사업이 시작되었다.

네로의 한마디 말이나 한 번의 고갯짓으로도 그의 생명이 희생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날마다 침침한 감방에 앉아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부르러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볼 책임이 지워졌으므로 바울이 로마로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에 디모데는 거기 남게 되었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깊고도 강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회심한 이래로 디모데는 바울의 수고와 고통에 동참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더욱 강하고 깊고 거룩하게 자라서 마침내 디모데와 연로하고 수고에 지친 사도와의 관계는 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관계처럼 되었다. 바울이 외롭고 고독한 중에 디모데를 보고자 간절히 원한 것은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디모데가 소아시아에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매우 순조로운 환경 아래서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불확실함을 알았으므로 디모데가 너무 늦게 도착하여 그를 볼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바울은 매우 큰 책임이 위임된 이 청년을 위한 중요한 권고와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지체 없이 오라고 호소하는 한편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목숨이 부지되지 않을지 몰라 그의 임종의 증언을 받아쓰게 하였다. 그의 마음에 그의 복음의 아들과 그가 돌보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염려로 충만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거룩한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인사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사도는 디모데에게 확고부동한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사도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간청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선언하였다.

[500]

오랜 봉사의 기간 내내 구주께 대한 바울의 충성심이 흔들린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어디 있든지 얼굴을 찌푸린 바리새인 앞에서나 로마 관원들 앞에서나, 루스드라에서 격노한 폭도들 앞에서나, 마게도냐 토옥에서 죄를 깨달은 죄인들 앞에서나, 파선된 배위에서나 그는 그가 옹호하고 있는 사업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한 큰 목적은 한때 자기가 그분의 성호를 멸시하였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반대나 핍박도 그를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노력으로 굳세게 되고 희생으로 순결하게 된 그의 신앙은 그를 붙들어 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참 하나님의 목사는 고난이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혹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

[501]

코 실망시키지 않는 능력의 근원에서 끌어 온다. 그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성질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능력을 확대시킨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서 가납하실 만한 봉사를 행하고자 사모하는 소망으로 부풀게 된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전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진다. 이 은혜는 그가 들은 사물에 대하여 그로 하여금 충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식을 멸시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이 지식을 저희 차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충실한 사람들에게 의탁한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최후의 편지에서 바울은 젊은 교역자 앞에 높은 이상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지적하였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502]

사도는 교회에 침투하려고 노력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경고하였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뉘우리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하였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우리

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우리는 의로 흥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바울은 교회 앞에 큰 위기의 때가 닥쳐올 것을 알았다. 교회를 책임맡은 사람들에 의해 신실하게, 열심 있는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03]

디모데와 같이 매우 열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엄숙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강한 증거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하고, 그에게 사람의 말이나 관습이 아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한다. 바울은 그에게 무리들 앞에서나 사담하는 자리에서나 길가에서나 화롯가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원수들에게나, 안전할 때나 고난과 위협, 비난과 손실을 당할 때를 막론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하였다.

디모데의 온순하고 양보하기 쉬운 기질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사업의 한 긴요한 부분을 피하게 하지나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악을 책망하는 일에 충실하고 악을 범한 사람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라고 권고하였다. 오직 디모데는 이 일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여야 하였다. 말씀의 진리로 그의 책망을 설명해 주고 강요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였다.

죄를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인에 대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얻으려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열렬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더욱 예민해질 것이며, 정도에서의 어떤 이탈에 대해서도 더욱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행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지만, 죄의 지극히 사악함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와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지만 또한 그의 과오에 대하여 지나친 관용을 보임으로 그가 자신이 책망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망을 쓸데없고 부당한 것으로 거절하게 될 위험이 있다.

[504]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때때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죄악들에 대한 묵인으로, 심지어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로까지 전락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해를 입힌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을 간과하고 가볍게 보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매우 눈이 멀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도록 명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까지 된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인 죄스러운 관용으로 영적 지각이 무디어진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거칠고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더 큰 죄를 범할 것이다.

인간적 지혜를 뺏내고 성령의 감화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혐오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505]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한 불신앙자들이 아니라 기호를 그들의 안내자로 삼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의 노예가 되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연락을 사랑하는 행위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만 즐겨 들으려고 한다. 그들은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기탄없는 말에 성을 내고, 그들을 칭찬하고 아침하는 교사들을 선택한다. 목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견해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거룩한 신임에 불충실하게도 그들은 그들에게 영적 지도를 바라는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주셨고,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은 이 율법은 세상 끝 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게 대한 사랑이란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셨다.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외적인 행위를 넘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심리하는지를 보여 주셨다.

우리가 순종하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부정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그러나 모든 의의 원수는 세상을 사로잡고 남녀들을 율법에 불순종하게 하였다. 바울이 예견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명백한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등을 돌리고 그들이 원하는 허탄한 이야기들 그들에게 제시하는 교사들을 택하였다. 목사들과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짓밟고 있다. 이리하여 세계의 창조주는 모욕을 당하시고 사단은 그의 계교의 성공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의 증가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교만과 쾌락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자아 방종이 증가된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사람들은 각처에서 이 우려할 만한 죄악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 하고 근심스럽게 묻고 있다. 그 해답은 “말씀을 전하라”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만 유일의 안전한 행동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문제들을 깨우쳐 주고, 그 교훈에 유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그릇됨이 없는 안내자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방향으로 노력을 쏟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를 허송하지 않도록 지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셨으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한하신 지혜자가 말씀하신 후에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의심스러운 문제와 인간이 조정해야 할, 망설여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현된 뜻에 솔직하고 진지하며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순종은 양심뿐만 아니라 이성의 최고의 명령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당부를 계속하였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길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는 디모데가 그를 대신하여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

[506]

지 못하게 막을 모든 세속적 추구하고 연루를 피하고, 그의 충성스러움이 그에게 가져다 줄 반대와 비난과 박해를 즐거움으로 견디고,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의 목회 직임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보이도록 권고하였다.

[507]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수범하였으며,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항상 그의 책임감을 깊게 느꼈다. 그는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활동하였다. 그는 유일의 성공의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의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 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런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충성스럽고 수고에 지친 기수들이 진리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쳐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누가 나와서 그들을 대신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서 거룩한 임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죽음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노리고 있는 이기심과 야망의 자극 속에서도 사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의무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508]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개인적 기별들로 그의 편지를 끝맺고 다시 반복하여 디모데가 할 수 있으면 겨울 이전에 그에게 곧 오라고 간절히 요구하였다. 바울은 그의 친구들 중 어떤 이들의 배반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른 이들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그의 외로움에 대하여 말하고, 에베소교회가 그의 수고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염려로 디모데가 주저하

지나 않을까 하여, 그는 그가 이미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기고를 에베소에 파견하였음을 말하였다.

네로 앞에서 그의 시련의 광경과 그의 형제들의 배반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대하여 말한 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비록 목자들이 죽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양떼를 돌보실 목자장의 보호에 의탁하면서 그의 편지를 끝마쳤다.

50장 사형 선고를 받음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심문을 받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고 판결을 연기하여 피소된 하나님의 종을 방면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황제의 악의는 얼마 후 되돌아왔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난 네로는 그럴 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려고 결심하였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바울로 순교자의 죽음을 하도록 정죄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510]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 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거나 없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 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였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

게 하려 함이라”(고후 4:6~10).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다.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 26:3)라고 하였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범했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거룩한 생애의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교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반박할 수 없을 때에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본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511]

사도는 이제 그가 이별하게 될 사람들이 편견과 증오와 박해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므로 다가오는 자신의 고통은 잊었다. 그는 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그는 시련을 충실히 견딘 당신의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였다. 얼마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안락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울 수 있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운 아침이 동틀 것이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본다. 그의 지지자시요 위로자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진다.

[512]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보증을 그는 듣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종교적 편협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의 동료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는 듣는다. 고문대와 화형주와 감옥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귀에 들린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는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한다.

[513]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그리고 사형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들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일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의 피를 쏟은 지 거의 20세기가 지났다. 어떤 사람의 손도 후세대를 위하여 이 거룩한 사람의 생애의 최후의 광경을 충실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증언을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였다. 나팔 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퍼져, 그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슬픔에 싸인 무수한 사람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그의 승리에 찬 기쁨의 메아리를 일깨워 주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6~8).

51장 충성스러운 부목사

[514]

사도 행전에는 사도 베드로의 후년의 사업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 뒤따른 분주한 봉사의 세월 동안에 베드로는 연례적 절기 때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 접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사자들이 방문한 다른 지방들에서 신자들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가진 재능은 초대 그리스도교회에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의 증언의 감화는 멀리 넓게 퍼졌다. 베드로에게 이중의 책임이 지워져 있었다. 베드로는 불신자들 앞에 메시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하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신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업을 행하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에 굳게 서게 하였다.

베드로가 부목자로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후의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기 이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 사도가 신앙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장차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것을 의미하였다. 베드로 자신의 범죄와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없었다. 시험의 폭풍 중에서 베드로는 인간이 완전히 자신을 불신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515]

해변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회합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는 세 번의 거듭된 질문으로 시험을 받은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의 그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그의 사업이 그에게 지정되었다. 그는 주의 양을 먹여야 하였다. 이제 회개하고 가납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양의 목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봉사의 조건-“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을 언급하셨다. 이것이 필수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 자비심, 웅변, 열심, 이 모든 것은 선한 사업에 긴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의 사업은 실패한다.

[516]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요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산 원칙이다. 목자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옹호하는 진리를 수범할 때에 주께서는 그 사업에 당신의 승인의 인을 치실 것이다. 목자와 양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공통의 소망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은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교훈이 되었다.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에게 가지신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업을 행할 때에 과오를 범한 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였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하였다.

자기 자신도 악에 빠졌으면서도 인간은 시험을 받는 자들과 과오를 범한 자들을 불친절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들은 마음의 투쟁과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사랑의 책망, 병을 고치려고 주시는 때, 희망을 말하는 경고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그의 봉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에게 위임된 양무리를 충성스럽게 돌보아 자신이 구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였다. 항상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인류의 구주로 높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교역자의 장(長)이신 그리스도의 훈련 아래에 복종시켰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방법으로 그는 신도들을 활동적인 봉사를 하도록 교육시키고자 애썼다. 그의 경건의 모본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은 유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목회 사업에 전적으로 투신하도록 감화를 주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자요 지도자로서 사도의 감화력은 증가하였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의 책임을 결코

[517]

잊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 그의 증언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군중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의 봉사의 후년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도들에게 영감을 받아 편지하였다. 그의 편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쇠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이 편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그분의 위로가 풍부하였던 사람,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명각을 지니고 있다.

노령의 하나님의 종은 그의 첫 편지의 서두에 그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새롭게 된 땅에서 얻을 확실한 유업을 바라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즐거워하였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518]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권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히 3:14)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하다.

사도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들로 향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에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다.

사단의 간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좃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519]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만일 은과 금이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써만 범 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에 기초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라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더할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롬 6:23)이다.

[520]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 중 다수는 그 당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다. 이 진리들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터전을 잡았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말씀은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으며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4, 16)는 진리를 선포하였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들은 영원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할 모든 영혼의 경험 가운데 난관과 시련의 장면이 있게 될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혹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에 위안을 가져다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약속들을 마음에 상기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인 신자들의 다수가 이교인들 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는 도리의 높은 부르심에 충

실하는 데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그들의 특권에 대하여 그들에게 역설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522]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신도들이 세상 관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도는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하였다.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523]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언어에 순결하고 의복과 단장을

품위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권면하였다.

이 교훈은 각 시대의 신도들에게 적용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외모의 단장은 언제나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6:24)고 말씀하셨다.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이다. 취향(趣向)이 변했다는 증거는 주님의 속량된 자들을 위해 놓여진 길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복에서 나타날 것이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미, 즉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찾기를 바라신다. 어떤 외모의 단장도 가치나 사랑스러움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입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과 비교할 수 없다(계 19:14). 이 세마포 옷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약속하신다.

[524]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하게 될 위태로운 시대를 예언적 이상으로 내다본 사도는 신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확고부동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편지하였다.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세속성의 찌끼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괴로운 경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까닭이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면 당신의 사업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고 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 영혼들을 같지 않은 지위와 여러 가지 환

경에 처하게 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결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결점들을 극복하고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할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의 불이 타오르도록 허락하신다.

[525]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간단없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긴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시험과 시련으로 가져다주시는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깊은 경건과 더욱 큰 힘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기 원치 않았었던 때가 있었다.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당신의 고통과 죽음을 알리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부르짖었다(마 16:22). 고통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피하게 하는 자기 연민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간언을 하게 하였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은 고민과 굴욕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그 제자에게는 쓰라린 공과였으며, 그는 그 공과를 배우는 데 느렸다. 그러나 그는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이 교훈을 배워야 하였다. 한때 활동적이었던 그의 몸이 여러 해 동안의 수고와 활동으로 굵어졌을 때에,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편지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양떼의 목자로서 그들의 책임에 관하여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26] 부목자의 직임에 있는 이들은 주의 양떼를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돌보아야 한다. 권세를 부리는 경계(警戒)가 되지 말아

야 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향상시키게 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 목회는 설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목회는 열렬한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지상의 교회는 그릇 행하는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현세에서 가납될 일을 행하고 내세에 영광과 불멸로 관 씩음을 받을 일을 행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할 참을성 있고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일 충성스러운 목자들, 그들의 생애에서 날마다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과 저희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품은 그런 목자들이 필요하다.

부목자는 교회에서 배척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될 때에 재치 있게 일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수고하고 일들을 질서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충실히 경고해야 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목사는 이 일을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고로도 해야 할 것이다. 고집스러운 마음은 그 기별에 성을 낼지 모르며 하나님의 좋은 그릇된 판단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그 때에 하나님의 좋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약 3:17, 18)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일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엡 3:9)는 것이다. 만일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소한도의 자기희생을 택하여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인적 봉사 사업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의 사업은 하나님께 가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은 잘 훈련된 개인적 수고의 부족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무리가 요구하는 개인적 사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의 부르심에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참 목자의 정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신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잊는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가정에서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시련을 알게 된다. 그는 위대한 짐진자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할 때에 목사는 하

늘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계몽을 입는다.

[528]

교회에서 신임 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그의 교훈과 관련하여 사도는 교회 내에서 친교하는 이들이 모두 따라야 할 몇 가지 일반적 원칙들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양무리들 중에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장로들의 모본을 따르도록 권장받았다. “젊은 자들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이 베드로는 교회에게 올 특별한 시련의 때에 대하여 신도들에게 편지하였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고 곧 교회는 두려운 박해의 기간을 통과해야 하였다. 몇 년 안에 교회에서 교사와 지도자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려야 하였다. 곧 무서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 중 아무것도 저희 소망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었다. 베드로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로 신자들의 마음을 현재의 시련과 미래의 고통의 광경에서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향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열렬히 기도하였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계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승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사도는 각 계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진보를 대표하고 그것을 오르는 데는 정지가 없는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를 신자들 앞에 제시한다. 사다리의 발걸이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등이다. 우리는 사다리의 발걸이를 하나하나 오르고 한걸음 한걸음 올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의 최고까지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530]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셨으니 이것들은 참으로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가진 그들은 “완전한 데 나아가야”(히 6:2)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벧전 1:5)야 하였다. 당신의 공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

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531]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의 참 방벽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성실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겨 두시는 좋은 선물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렘 9:23, 24)고 선언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성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 없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532]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를 채우는 그리

스도의 의의 향(香)에 의하여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구주께 기도해야 한다. 그는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다. 이것들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서는 겸비하고 참회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신다.

부정(不淨)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계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이 덧셈(加法) 방식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셈(乘法)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항상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충실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증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얽어매는 죄악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되는 축복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 버린다. 그 결과는 실패 즉 얻었던 모든 것의 상실이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계발되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사도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은 잊었느니라”고 선언한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졌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굳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 문 어구에 닿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 계단까지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앞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였다.

다년간 베드로는 은혜와 진리의 지식에서 끊임없이 장성해야 할 필요를 신자들에게 호소해 왔었다. 이제 그는 얼마 후 그가 신앙을 위하여 순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모든 신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귀중한 특권들에 관심을 이끌었다. 그의 신앙의 충만한 보증을 가지고 노령의 사도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에 확고부동하도

록 권면하였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귀중한 보증인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최고봉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신자의 앞에 있는 소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534] 사도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자들의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이 증거가 확신을 주기는 하지만 예언의 증언에 그보다 더 확신을 주는 다른 증거가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굳어지고 안전하게 닳을 내릴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샨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535] 사도는 “확실한 예언”을 위기의 때에 안전한 안내자로 높이는 한편 “주를 부인하”는 “멸망케 할 이단을”가만히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이 높이 쳐들 거짓 예언의 횡불을

대적하도록 교회에 엄숙히 경고하였다. 교회 중에서 일어나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신실하다고 여김을 받는 이 거짓 교사들을 사도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그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고 선언하였다.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라(살전 5:3). 그러나 원수의 계교에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536]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요 14:3)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537]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서 투옥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노련한 사도는 세계의 수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고, 그 땅에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수확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 그의 지위를 회복한 이래 베드로는 확고부동하게 위함을 무릅쓰고 나아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를 전파하는 일에 고상한 용기를 나타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떠뜨리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뜨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게 그가 어떤 방법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리셨고 그의 손이 십자가에 벌려지리라는 것까지 예언하셨다.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심문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다. 한때 것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요 21:20)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 사람 중의 하나였으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긴 것도 그에게였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서는 법정의 위험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주위에 머물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갔다.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한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540]

요한의 성품의 결점들은 그가 구주와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 강하게 표출된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한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

도록 요구하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 곳을 그냥 지나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셨다. 이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체류하시도록 초청하는 대신에 보통 행인들에게라도 베풀었을 호의조차도 베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임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마리아인들은 만일 저희가 그분을 그들의 손님이 되시도록 간청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주어졌을 축복을 잃어버렸다.

[541]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주님께 나타낸 냉대와 질투와 불경은 그들을 경악과 분노로 충만하게 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흥분하였다. 그들이 매우 높이 존경하는 그분께서 이렇게 대접하는 데 대하여 즉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인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러 보낸 사마리아 관원들과 그 무리들의 멸망을 가리키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다음과 같은 그분의 책망이 그들의 귀에 울렸을 때에 더욱더 놀랐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눅 9:54~56).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신다.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가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서 마음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신다.

또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때 시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이 나라의 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탐낸 그 어머니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지적하시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회상하였으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주님께 일어나게 될 모든 일에 동참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다. [542]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고 선언하셨다. 당신의 앞에는 보좌 대신 십자가가,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행악자들이 있을 것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었다. 전자는 칼에 의한 신속한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고 후자는 수고와 비난과 박해 중에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따를 것이었다.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다(마 20:21~23).

예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고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5~28).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실을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정복의 증거이다. [543]

오랜 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계 3:21).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

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고전 13:4, 5)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544] 그들이 일찍이 전도 활동을 하던 다른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그들의 이러한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진상을 그리스도께 고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분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막 9:39)고 말씀하셨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을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되었다.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과오를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데 필요되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본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요 1:14)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이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요일 1:2),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열두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숭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요일 3:1, 2)라.

54장 충실한 증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한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섰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어 주심을 입어 새로운 열성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요한은 열심이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였다. 아름다운 언어와 음악적인 음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였다. 그의 말의 단순함, 그가 말한 진리의 숭고한 능력, 그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룬 열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다.

사도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 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였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하여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히 연합해야 할 것이였다. 그들의 생애는 당신의 의로 그들의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높여야 하였다. [548]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둠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다.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이 신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특별한 의미에 대하여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 [549]

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 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550]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점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이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도록 호소할 때에 마음에 가장 감동적인 호소를 한다. 그의 형제에 대하여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다. 참 그리스도인은 위험과 곤궁 가운데 있는 영혼을 경고하거나 돌보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이 더욱더 불행과 낙담에 빠지거나 사단의 전쟁 마당에서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능력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동정 있는 정신으로, 저희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서의 그들의 적합성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하신다.

[551]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552]

요한은 신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정신을 나타냄으로 그들에게 이르게 될 고귀한 특권들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救贖)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동기를 제어하며 이 능력의 소유자들을 세상의 부패시키는 감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올 것이며 그들은 현세와 영원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이다. 주께서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553]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당신의 교회 곧 당신께서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신 이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만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

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세월이 흘러 신자들의 수효가 증가할 때에 요한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다 더한 성실과 열성으로 수고하였다. 그 시대는 교회에 위험이 충만하였다. 사단의 기만이 각처에 있었다. 사단의 사자들은 오전(誤傳)과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견 충돌과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족하다고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선량한 사람이었음은 인정했지만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는 척하는 어떤 이들은 기만자들이었고 그들은 행실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였다.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은 교회에 이설(異說)들을 들여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요한은 이 유해한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슬픔에 가득 찼다. 그는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알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 위기에 대처하였다. 요한의 편지서들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 편지서들은 마치 그가 사랑에 적셔진 붓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저희가 죄 없이 살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접촉할 때에 그는 그들의 무서운 기만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554]

복음 사업의 조력자로서 평판이 좋고 널리 감화를 끼치는 한 여인에게 편지하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555]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졌다. 초대 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의 깊이 유의되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부르짖음은 특별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적 예의를 나타내야 하는 반면, 죄와 죄인들을 분명한 말로 다룰 권위를 위임받고 있으며 이것은 참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논쟁이나 지루한 말다툼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그가 아는 것 곧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들을 목격하였었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에게는 어둠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 구주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그의 증언은 명백하고 힘이 있었다. 구주께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충만한 마음으로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도 그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556]

그와같이 참된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

나님은 참되시다하여 인칭”(요 3:33)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증거할 수 있다.

55장 은혜로 변화됨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 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 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558]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룩한 감화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 특권을 받았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는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후자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전자는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후자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559]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릇됨이 없는 법칙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3:3, 2:6).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공허한 공언만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거룩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고 편지하였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 때에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그들의 마음에 그

[560]

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걸려 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후 4:17; 마 16:24).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에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561]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이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롬 7:18; 갈 6:14).

기록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록하게 하라. 그러나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람된 말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562]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으나 다음과 같이 겸손히 진술하고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좇아가노라”(빌 3:12).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의 승리들을 기록하게 하라. 상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긴 확고 부동한, 하늘로 향한 그의 발걸음을 보고 하늘이 기뻐하도록 하게 하라. 천사들은 그의 승리를 말하기 좋아하나 바울은 그의 성취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의 태도는 불멸의 면류관을 위한 투쟁의 길로 전진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이다.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는 율법의 일을 깨달을 때 죄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자신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8, 10, 9).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거룩하다고 공언하며 저희는 전부 주의 것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약속들

[563]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주장하나 이것은 그들 편에서의 주제넘은 행위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이론을 믿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는 험잡꾼이 아니요 성경의 신앙은 공교하게 만든 우화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저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요일 2:4, 5, 3:24).

요한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쳤다.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 3:5, 6)고 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일치한다.

[564]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들은 마치 소금땅과 바짝 마른 황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는 성화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계발될 수 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계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받으리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될 그 놀라운 건물의 모형을 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였다. 우리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명상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산 곧 은밀한 교통의 장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늘과의 교통의 통로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의 교리들을 서서히 보이심으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방법은 “그의 나 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호 6:3)다는 말에 예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 녘의 부분적인 어둠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한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의 얽어매는 것을 끊어 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565]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일을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싫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줄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 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

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지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566]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별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시간은 신속히 영원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것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절하지 말자. 드리지 않으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그분께 드리자.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서 모두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지력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재물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최고의 이상, 즉 완전을 두신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히 그분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이것이 또한 그대의 뜻이기도 한가? 그대들의 죄악이 그대들 앞에 가로놓인 태산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대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대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이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사업은 평화요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확신이다.

[567]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대는 그분의 은혜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를 더욱더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 그분의 의의 보호, 그분의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대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벧후 3:14).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다. 그 기간에 복음의 기별은 끊임없는 반대를 당하였다. 복음의 원수들은 결코 그들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로마의 권세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계속된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신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심히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의 원수들이 논박할 수 없는 한 증언을 하였으며 이 증언은 그의 형제들에게 닥친 시련들을 용기와 충성심으로 대처하도록 그들을 도왔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극렬한 반대 하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노련하고 연단 받은 예수님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이야기를 능력과 웅변으로 되풀이하였다. 그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고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동일한 기쁨의 기별이 흘러나왔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요일 1:1~3)노라.

요한은 장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장한 성전의 멸망을 목격하였다. 구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세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불신에서 돌아섰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때문에 그를 몹시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노력은 요한의 증언이 백성의 귀를 울리는 한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담대한 증인의 음성을 침묵시켜야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신앙에 대하여 심문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소환되었다. 이 곳 관헌들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들은 허위 진술되었다. 거짓 증인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단을 가르친

다고 비난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이와 같은 비난으로 제자의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기를 바랐다.

[570] 요한은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와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변호하였으므로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더욱 수궁이 가면 갈수록 그의 반대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옹호자의 논조를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에 어깨를 겨눌 수도 없었으나,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세 히브리인을 풀무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옥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 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요한을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었다.

다시 박해의 손길이 사도를 무겁게 눌렀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계 1:9) 정죄당해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밧모 섬으로 추방당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 그의 감화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571] 에게 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밧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불모의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타는 횃불처럼 사방에 퍼져 세상 열국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선포할 것이었다.

밧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평화가 넘쳐흘렀다. 그는 그리스도인적 생애를 살았으며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요일 3:14) 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를 정배시킨 황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황제는 그의 뛰어나고자 하는 야망의 결과인 전쟁과 살육의 마당, 황폐된 집들, 울고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회고할 수 있을 뿐이었다.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창조 사업을 명상하고 기록하신 건축자를 사모하는 것이 한 기쁨이었다. 그의 이전 생애 동안 그의 눈은 삼림에 덮인 언덕, 푸른 계곡, 과실이 풍요한 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를 더듬는 것이 항상 그의 기쁨이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위 환경은 황막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굽어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거칠고 험한 바위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에서, 궁창의 영광들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572]

주위에 있는 만상에서 사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 범했기 때문에 땅을 휩쓸었던 홍수의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샘들이 터져 나옴으로 심히 깊은 곳과 땅에서 튀어나온 바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 무서운 두려움을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깊음이 깊음을 부르는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선지자는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다. 무자비한 바람에 격노한 바다는 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그에게 나타내었다. 무섭게 동요하는 큰 파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의 정한 한계선 안에 머무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의 통제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여 요한은 먼지 가운데 있는 벌레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소위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분이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높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바위들 곁에서 요한은

그 피난처에서 그가 두려움 없이 숨을 수 있는 그의 능력의 반석인 그리스도를 회상하였다. 바위로 덮인 밤모에 정배된 사도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열렬한 영혼의 갈망, 가장 열렬한 기도가 올라갔다.

[573]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 요한이 밤모 섬에 유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밤모 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개심자들을 얻었다.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그의 생애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업과 결부되었던 이들에 대하여 가장 친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 노령의 일꾼들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히 섰었다. 그들이 허약할는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연로하여 비록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무거운 책임들은 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조언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들이 실수들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은 오류들과 위험들을 피해야 할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현명한 조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들은 시험과 시련을 견디었고 비록 그들의 활력을 다소 잃어버렸지만 주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

[574] 사업이 어려울 때에 그들의 주님을 섬긴 사람, 진리를 위하여 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 빈곤을 견디고 충실히 선 사람들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젊은 교역자들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성숙을 얻기를 바라신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와 같은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회의석상에서 그들에게 명예스러운 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친 이들은 그들의 지상 봉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

업에 관계하였던 경험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진 그분의 놀라운 교제에 대한 기록,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의 크신 인자에 대한 기록이 새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최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박해를 당한 사도 요한의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이로운 힘과 안위의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책을 시련과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용하게 하신다. 흔히 복음 교역자는 핍박의 폭풍과 쓰러진 반대와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때에 시련과 고통의 풀무에서 얻게 될 경험은 온갖 고통을 치르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라고 그들을 가르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처하고 신임의 지위를 감당하고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주어진 능력의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하였다.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횡방과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다니엘은 그가 하늘에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며, 욥은 이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하였으나 성실을 유지하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 없었으며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들을 매우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다. 스테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 섬에 유배당하였다.

[575]

인간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써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 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

[576]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그분은 악의 연합 세력의 반대를 당하셨다. 무자비한 동맹으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평화의 왕을 반대하였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거룩한 동정을 나타냈으나 그분의 세상과 같지 않음이 가장 심한 적의를 불러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꺾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577]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극기를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고 말할 수 있다.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성실과 열성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 이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낸 열성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감의 붓으로 기록되었다. 주 예수께서 사도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충실하고 참된 증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계 2:2, 3).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구주께서 항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부르심의 중요성을 느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기별의 책임을 느끼고 세상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구원의 기쁜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죄인들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었다.

[579]

교인들은 의견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들을 함께 묶은 금사슬이었다. 그들은 계속 주님을 더욱더 완전히 알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나타났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였고 자신들을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았으며, 이

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언하는 바는 거짓이 되고 결국 그들의 구주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80] 모든 도시에서 사업은 추진되었다. 영혼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받은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밝게 비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때까지 쉴 수 없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과오를 범한 자들, 추방당한 자들, 진리를 아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열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스하고 감명 깊은 개인적 호소를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쓰러졌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궤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서 돌이켰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의 부분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람이 고안한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깊이 생각하는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 소비되었다. 충실히 제시된 진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많은 무리는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 경건은 신속히 쇠하여지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곧 지배할 것처럼 보였다.

[581] 교회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요한은 추방 선고를 받았다. 지금처럼 그의 음성이 교회에게 필요된 때는 결코 없었다. 목회 사업에서의 그의 이전 동료들은 거의 모두 순교를 당하였다. 남은 신도들은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다. 모든 외관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교회의 원수들이 승리를 얻을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교화를 위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곳에 있게 되었다.

진리의 원수들은 요한을 유배시킴으로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으나 밧모에서 요한은 그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교회를 계속 강화시켜 줄 한 기별을 받았다. 그들의 그릇된 행동의 책임은 면하지 못했지만 요한을 유배한 자들은 하늘의 목적 수행을 돕는 하나님의 수중에 쥐어진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빛을 끄려는 바로 그 노력은 진리를 더 명확하게 부각시켰다.

영광의 주께서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요한은 그가 유대의 동리들과 성읍들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밧모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였다. 그는 그날에 관하여 주어진 귀중한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였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계 1:10-13).

이 사랑하는 제자는 큰 은총을 받았다. 그는 그분의 얼굴이 고통의 핏방울에 적셔지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신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을 보았었다(사 52:14). 그는 낡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의 수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었다. 그는 잔인한 조롱과 능욕의 상징인 갈바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았었다. 이제 요한은 다시 한 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는지! 주님은 더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시다. 주님은 하늘의 빛난 옷을 입고 계신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계 1:14, 15).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난다. 그의 손에는 일곱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의 상징인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온다. 밧모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다.

[582]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계 1:17).

[583]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기이히 여기는 시야에 하늘의 영광들이 공개되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상의 싸움 저편과 흰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의 무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고 세상 끝 날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예언되었다.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요한에게 제시되었으며, 그는 그의 시대와 미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총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야 하였다.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종교 교사들은 이것은 인봉된 책이요 그 비밀은 설명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기록을 외면하고 시간을 바쳐 그 비밀들을 연구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책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 것이다. 주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다(계 1:1, 3).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 22:18~20).

[584]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영감받은 페이지들에 주어진 “계시록”이란 바로 그 이름이 이것이 인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모순된다. 계시란 나타내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종에게 이 책에 포함된 비밀들을 나타내셨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되도록 공개되기를 주께서는 계획하셨다. 계시록의 진리는 요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

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예언 중에 묘사된 광경 중 더러는 과거의 것이며 어떤 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사이의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 준 것이며 어떤 것들은 재창조된 세상에서의 구원 얻은 사람들의 승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도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내포된 진리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연구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말라. 요한에게 이 비밀들을 나타내신 분께서는 부지런히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사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다.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단 12:4)고 명령하였다.

[585]

그의 앞에 공개된 것을 기록하도록 사도에게 명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계 1:11, 18~20).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일곱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 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신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과 중

[586]

보자이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꺾어버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의 참 파수꾼이시요, 성전 마당의 참 청지기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일곱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과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계 2:1)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교회 내에 풍성하여야 할 감미로운 감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구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에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587]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교회가 배도하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친절한 기별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이 영원을 위하여 분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신의 소원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 2:5)고 호소하셨다.

교회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참회하는 모든 신도들에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 주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투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칭찬과 약속의 말을 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8, 10, 2, 11).

[588]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가 당하여야 할 일들을 당신의 교회에게 나타내신 것은 자신을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계 1:9)한 자라고 선언한 사람을 통해서였다. 암흑과 미신의 장구한 세기를 내려다본 노령의 유배자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의 초기의 증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통과하여야 할 여러 세기의 박해 동안에 당신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589] 그리고 요한은 죄악과 투쟁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들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계 2:7, 3:5, 21).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섞인 것을 보았다. 요한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분이 아버지이심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쟁투의 최고 절정 저편을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계 15:2, 3).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다(계 5:5, 6). 이 상징들은 전능의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다. 반역자들을 치시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할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선다.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감옥에 침투할 때에, 의인들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부르짖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각 시대의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하고 또 큰 실망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죄책과 비애를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에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2, 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계 14:1).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계 22:5).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무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계 14:4)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써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2~5).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계 21:2, 11, 12, 21, 22).

[592]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계 22:3~5).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 2, 14).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 21:3).

사도들이 그들의 봉사를 그친 지 18세기 이상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화들이다. 성령의 지도 하에 쓰여진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사업에 더욱 열심과 열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시켰다. 이 십자가의 사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갈 때, 전에는 결코 본 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드러났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봉사의 결과들은 실로 영광스러웠다. 그들의 봉사의 시초에 그들 중 몇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전적인 것이었고,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 그들은 맡겨진 큰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심연에 잠겨 버렸다.

제자들은 성실히 말하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능력이신 분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섰으며 그분의 보좌에 개인적인 접촉을 하였던가!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와 그의 명예는 그들의 명예였다. 여호와와 그의 진리는 그들의 진리였다. 복음에 가해진 어떤 공격이라도 마치 그들의 영혼의 뼈를 깎아내는 듯 했으며, 전력을 다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진술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의 기름부음을 받은 까닭이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지도를 구하였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반대에 저항하는 그들의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비

례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설교의 주제였다. 그분의 성호 즉,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름은 그들에 의하여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부활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남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주의 성호를 모독하고 당신의 능력을 멸시한 군중들이 이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제자들임을 고백하였다.

[595]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그들의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교회의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였으나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나약한 목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고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은 그들의 경험을 순결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였으며 하늘의 은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한 정복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가라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와의 성전을 지을 가지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선언한다(슥 6:12, 15; 사 60:10).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4, 5).

[596] 사도들은 유대와 이방 세계의 채석장에서 기초를 놓을 돌들을 채취하는 일에 수고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

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19~22).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전 3:10~13).

사도들은 확실한 기초, 즉 만세 반석 위에 세웠다. 그들은 이 기초에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채석한 돌들을 가져왔다. 건축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수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대로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들은 거짓된 기초 위에 짓고 있는 사람들의 완고와 편견과 증오에 맞서 싸워야 하였다. 교회의 건축자로서 일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자들에게 비유될 수 있다. 그들이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느 4:17).

[597]

왕들과 총독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충실한 사람들은 사업을 진전시켜 성전 건물은 아름답고 균형 있게 건축되었다. 때때로 일꾼들은 저희 주위에 둘러 있는 미신의 안개로 거의 눈멀게 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대적들의 폭행에 거의 압도당하였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충실한 용기로 그들은 사업에 전념하였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 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돌이 첩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 부족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 11:36~38).

[598]

의의 원수는 주의 건축자들에게 위임된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행 14:17)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옹호할 수 있는 교역자들을 일으키셨다. 이 사람들의 인내와 영웅적 행위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처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리에서 쓰러졌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꾸준히 전진하였다.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사업은 전진하였다. 왈덴스인들, 존 위클리프, 후스와 제롬,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리, 크랜머, 래티머 그리고 녹스와 위그노들과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영원무궁토록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왔다. 그리고 근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우 훌륭하게 노력할 사람들과 이방 나라에서의 그들의 봉사로 마지막 큰 기별들을 선포할 길을 준비한 사람들 또한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도왔다.

[599]

사도 시대 이후의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세기들을 회고할 때에 오류와 미신의 어둠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빛처럼 빛나는 산 돌들을 볼 수 있다. 영원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 닦은 돌들의 번쩍이는 빛은 빛과 어둠, 진리의 금과 오류의 찌꺼기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시 144:12)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격려와 경고의 말

을 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4, 15).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도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교회의 교인들을 내어 보내신다.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능력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은 주께서 당신의 승인의 인을 찍으신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셨다. 그 후에 주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셔서 당신의 종의 입에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 1:7-9).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입술에 닿은 것을 느끼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러 나아가라고 명하신다.

[600]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심히 제자들을 움직여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와 동일한 열성이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주의 강림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601]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의 생애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영원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 보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에 그들은 구속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는다(마 25:34; 계 5:12, 13).

[602]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

한다. 싸움은 끝난다. 환난과 투쟁은 종식된다. 구속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양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진동시킨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계 7:9, 10)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7:14~17, 21:4).